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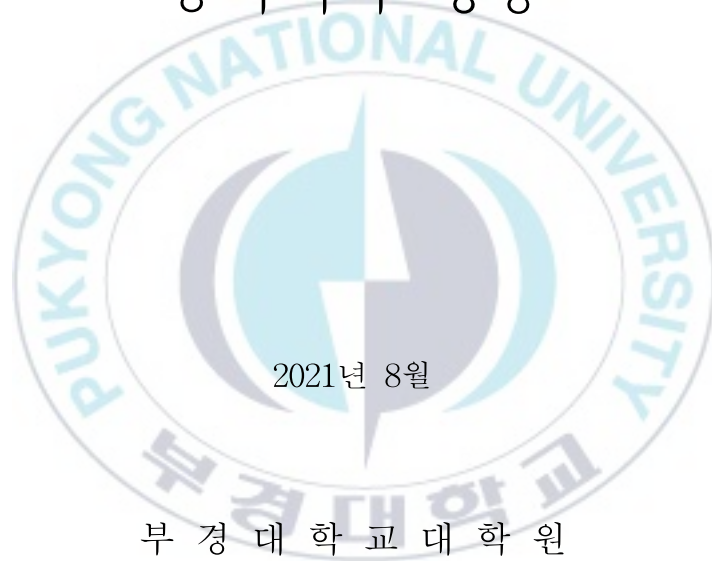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수로 이용과
동아시아 팽창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김 종 호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수로 이용과
동아시아 팽창

지도교수 박 원 용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김종호

김종호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27일



위 원 장 문학박사 박 화 진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문 기 (인)

위 원 역사학박사 박 원 용 (인)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4
3. 연구방향	7
II.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진출 배경	10
1. 19세기 이전 러·청의 전통적인 관계 속 아무르 강	10
2. 19세기 아무르 수로에 대한 인식 전환 배경	19
III.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탐사	29
1. 아무르 강 하구 탐색	29
2. 탐사 영역의 확대와 탐사의 공인	47
3. 아무르 수로 이용을 위한 행정적 준비	60
IV.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점유	69
1. 푸타틴의 대청(對淸)·대일(對日) 교섭	69
2. 크림전쟁시기 아무르 수로 이용	79
3. 아무르 유역 국경 확정	87
V. 결론	101
참고문헌	104

그 립 목 차

그림 1. 아무르 유역의 지리적 범위와 주요 수계	10
그림 2. 1734년 청나라의 영역을 표현한 지도에 묘사된 동북국경지역	18
그림 3-1. 1723년 프랑스 지도에 묘사된 동해북부	31
그림 3-2. 프랑스 라페루즈 백작의 해협 횡단 시도와 실패	31
그림 4. 오호츠크 해 연안의 모습	32
그림 5-1. 네벨스코이	39
그림 5-2. 무라비요프	39
그림 6. 1850년의 사할린과 아무르 강 하구 주요 지명	43
그림 7. 1808년 이르쿠츠크 구베르니아(Иркутская губерния) 지도 ..	61
그림 8. 1850년 이후 동시베리아에서 분리되어 형성된 주	62
그림 9. 타타르 해협 인근의 주요 해안 거점	65
그림 10-1. 1853년 나가사키에서 대일교섭에 임하는 푸타틴	77
그림 10-2. 1854년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팔라다	77
그림 11. 1860년까지 러시아가 차지한 동아시아 영역	99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수로 이용과 동아시아 팽창

김 종 호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요 약

본 논문은 19세기 중반, 러시아제국의 동아시아 팽창을 두고 ‘부동항 확보’라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에서 아무르 수로의 이용과 확보가 가졌던 중요성을 분석했다.

러시아인들이 아무르 수로에 처음 진입했던 시기는 17세기였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아무르 수로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지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19세기부터 대중(對中) 국경무역의 이익감소와 북대평양에 있는 러시아 거점 및 식민지의 취약성이 강조되면서, 러시아는 기존의 육로와 해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로를 필요로 했다. 이때 아무르 수로가 주목받게 되었다.

교통로로 아무르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밝히려는 많은 탐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네벨스키(Г. И. Невельский)와 아그테(Н. X. Агте) 등의 탐사를 통해 아무르 강과 주변 지류가 근대적인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확인한 무라비요프(Н. Н. Муравьев-Амурский) 등의 러시아제국 행정관들은 아무르 유역에 행정구역과 군사 거점을 설치해 아무르 유역의 실질적인 점유를 준비했다.

이후 아무르 수로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 러시아제국은 푸타틴(Е. В. Путятин)을 동아시아로 파견, 아무르 유역에서 근대적인 국경선 정립과 개항장무역 참여를 위한 대청(對淸)·대일(對日)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크림전쟁이 발발하고 그 여파가 동아시아에도 미치게 되면서 푸타틴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크림전쟁기간에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수로를 이용, 동시베리아의 물자 및 군대를 대평양 연안과 아무르 강 하구로 수송할 수 있었고, 이 보급을 바탕으로 방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무르 강 좌안(左岸)과 우수리 강 동안(東岸)에 첫 번째 러시아인 민간인 이주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서자 푸타틴은 시급한 대일교섭을 재개했고, 마침내 일본의 개항과 사할린·쿠릴 열도에서 국경선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후 크림전쟁이 끝나자 무라비요프와 푸타틴은 청나라의 혼란스러운 내부사정을 이용해 청나라를 압박했고, 결국 아이훈조약과 헨진조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베이징조약을 통해 아무르 강 좌안과 우수리 강 동안의 엄청난 영역을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이 지역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 되어 현재까지 동아시아 속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남게 되었다.

The utilization of Amur waterway and Expansion of Russian Empire into
the Northeast Asia

Jong Ho Kim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analyzed the importance of utilization and occupation of Amur waterways in Russia's expansion in Northeast Asia in the mid-19th century, based on the critical awareness that there is a part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logic of "Acquiring the Icefree port".

The first time the Russians entered the Amur waterway was in the 17th century. The 19th century, Amur waterway was not an area of significant strategic value for Russia. However, in the 19th century, Russia needed new transportation routes to replace the existing land and sea routes because of reduced interests of China's border trade and the vulnerability of Russia strongholds and colonies in the North Pacific. At this time, Amur Waterway was noticed.

Since then, explorations were made to determine whether the Amur waterway was available, eventually the exploration of Nevelskoi(Г. И. Невельской) and Agte(Н. X. Агте) verified that the modern ships can sail in Amur waterways. After confirming this, the administrators of the Russian Empire, including Muravyov(Н. Н. Муравьев-Амурский), established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military bases in the Amur Basin to prepare for the actual occupation of the Amur Basin.

After that, the Russian Empire dispatched Putyatin(Е. В. Путятин) in East Asia to negotiate for establishment of modern borders in the Amur Basin and participation in free trade in open port. However, diplomatic activities in East Asia were halted by the Crimean War.

In Crimean war, the Russian Empire was able to utilize Amur waterway to transport East Siberia's supplies and troops to Pacific coast and the mouth of the Amur River, which led to successful defensive operations. In the process, Russian civilians first migrated to the left bank of the Amur River and the eastern bank of the Usuri River.

As the war entered a lull, Putyatin resumed urgent negotiations with Japan. Finally, Japan opened its ports and established a border line in Sakhalin and Kuril Islands. After the Crimean War ended, Muravyov and Putyatin used the chaotic internal affairs of the Qing Dynasty to pressure them. Eventually the Treaty of Aihun, Tianjin, and the Treaty of Beijing allowed Russia to occupy a vast area along the Amur River and the Usuri River. Since then, the region has become the "Russian Far East" and remains the closest Europe in East Asia.



I. 서론

1. 문제제기

러시아연방의 행정조직에서 극동연방관구(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에 속한,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동아시아와 북아시아의 넓은 대륙에 걸쳐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동시베리아의 타이가지대부터 북으로는 북극해 그리고 동쪽으로 태평양과 접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짧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런 지리적인 인접성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와 부산에서는 활발한 해양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두보인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창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리적인 인접성과는 별개로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들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상은 주변 동아시아 지역과는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도시는 오히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해도 거의 일주일의 여정을 가야 하는 모스크바와 유럽 러시아의 도시들을 축소해 옮긴 듯 유사하다. 극동지역은 문화적으로 전형적인 유럽의 도시와 비슷하고, 바로 이런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러시아 극동지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된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19세기 러시아제국은 외교협상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영토적 성공을 거뒀다.¹⁾ 대표적으로 1858년 아이훈조약을 통해 아무르 강(река Амур) 좌안의 영토를 확보했으며²⁾ 1860년 베이징조약에서는 더 나아가 우수리

1) Ivan Sablin and Daniel Sukhan, "Regionalisms and Imperialism in the Making of the Russian Far East, 1903 - 1926", *Slavic Review* Vol. 77, No. 2, 2018, p.337.

2) Е. А. Адамова и И. В. Козьменко,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России с другим*

강 동쪽을³⁾ 차지했다.⁴⁾ 그리고 1855년 시모다조약과 187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을 통해 사할린에 대한 권리도 독점할 수 있었다.⁵⁾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엄청난 크기의 영토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들은 러시아가 얻은 땅이 아니라 러시아가 도달한 바다에 주목한다.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바로 러시아의 부동항을 향한 욕망이다.⁶⁾

실제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해상활동을 벌인다. 1842년 미덴도로프(A. Ф. Миддендорф)가 지휘하는 제국 과학 아카데미의 조사단을 시작으로, 가브릴로프(A. М. Гаврилов), 네벨스코이(Г. И. Невельской), 푸타틴(Е. В. Путятин) 등이 당시 서구인들이 극동이라 부르던 동북아시아 지역들을 항해했다.⁷⁾ 이 중 네벨스코이는 동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Н. Н. Муравьев-Амурский)와 함께 아이훈조약과 이후 베이징조약 협상에 큰 공을 세웠다. 또한 푸타틴은 일본과 청나라 개항에 관한 협상을 벌였고,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을 측량하면서 동시에 해안가의 거주민과도 접선을 시도했었다.⁸⁾

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1856-1917),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52, p.47.

3) E. A. Адамова и И. В. Козьменко, 앞의 책, pp.74~75.

4) 두 조약을 통해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는 현재의 하바롭스크 변경주(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의 일부와 프리모르스키 변경주(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아무르주(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부랴트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Бурятия), 유대인 자치주(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자바이칼 변경주(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와 사할린주(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를 포함한다.

5) 박종효, 「러시아 쿠릴열도에 관한 러일 분쟁사 연구 - 러·일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중심으로 -」,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pp.172~176.

6) Leonard O. Packard는 이미 1913년에 러시아의 팽창정책을 두고, “간헐있으며 좁고, 부동항이 적은 러시아의 해양환경에서 더 좋은 해양환경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Leonard O. Packard, “Russian expansion and The long struggle for open ports”, *The Journal of geography* Vol. 7, No. 2, 1913, pp.33~39.; 한편 커너(Robert J. Kerner)는 부동항을 얻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을 “바다를 향한 충동”이라 설명했고, 크라씨(George B. Cressy)는 그의 저서에서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제정러시아와 소련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일차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제성훈, 「19세기 말 만주 한반도에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지정학적 목표와 시사점」, 『슬라브학보』 Vol. 33, No. 1, 2018, p.105.

7) 민경현, 「19세기 중엽 러시아의 극동 진출 배경에 관한 연구」, 『史叢』 Vol. 49, 1999, pp.151~159.

이렇듯 해상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협상을 통해 현재의 영토와 유사한 판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얻은 땅에서 러시아제국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부동항은 존재하지 않았다.⁹⁾ 이 문제는 이후의 동아시아 역사에서 러시아의 정책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러시아제국이 부동항을 찾기 위하여 만주와 한반도로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¹⁰⁾ 이렇듯 부동항이 러시아제국의 팽창목적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후 동아시아사에서 러시아제국의 행동을 설명하기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러시아제국의 동아시아 팽창과 그로 인한 극동 러시아지역의 형성을 두고 부동항을 향한 욕망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19세기 중반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편입된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유역에서의 광범위한 지역은 부동항획득이라는 목적과는 차별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1850년을 전후로 해서 러시아제국은 네벨스코이의 항해를 통해 아무르 강 유역에 부동항이 없다는 사실을¹¹⁾ 알고 있었다.¹²⁾ 특히 청나라

8) 이반 곤차로프, 『전함 팔라다 II』, 정막래 옮김, 살림 출판사, 2016, pp.680~718.

9) 현대에도 극동 러시아지역에서 완전한 의미의 부동항은 없다. 대표적인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 나호카(Находка), 자루비노(Зарубино)는 모두 겨울에 쇄빙선을 사용해야 하며, 페트로파블롭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의 경우 내빙선(항내용 쇄빙선)을 이용해야 한다.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항구인 포시예트(Посьёт)는 만의 수심이 낮아 대규모의 항구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나진항에 주목하는 것도 나진항이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만의 대체 부동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과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이영형,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한국의 선택」, 『한국 시베리아연구』, 22권 2호, 2018.

10)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정책(南下政策)과 한국 : 특히 부동항획득(不凍港獲得)을 중심으로」, 『西洋史論』, Vol. 54 No. 1, 1997, pp.153~168.

11) 1850년 네벨스코이는 아무르 강 하구 일대가 얼어붙어 6월 20일 이전에는 하구를 통해 강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이 해빙된 후 8월 1일에는 강 유역에 니콜라옙스크를 건설하고, 주변을 측량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그는 겨울 숙영지를 만들었고 얼음이 녹을 때까지 인근지역을 조사했다. Геннадий Иванович Невельской, *Подвиги Русскихъ морскихъ офицер-овъна Край немъ Востокъ Россіи 1849-55 г*

와의 외교협상으로 지역을 공식적으로 차지하기 이전에도 이미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¹³⁾ 지역에 부동항이 없다는 지리정보는 러시아제국의 수뇌부도 이미 알던 정보였다. 그러나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러시아제국은 외교협상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얻고자 노력했으며, 결국 쟁취한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러시아제국의 팽창을 부동항획득의 관점으로만 설명한다면, 아이훈조약에서 나타난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강 유역으로의 팽창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2. 선행연구

기존연구들은 러시아제국의 영토팽창이 동아시아로의 진출과 태평양 연안에서의 부동항획득이라는 지정학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은 첨예하게 나뉜다. 국내의 연구자들은 우선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출현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중에서도 1860년 베이징조약을 통해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된 이후 시점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아무르 유역이 러시아제국으로의 편입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최문형은 러시아제국의 팽창이 청·러국경을 확정하고 청나라 내의 영국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이루어졌으며, 아이훈조약과 베이징조약은 러시아제

При-амурский и при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 Русская Скоропечатня (П. С. Нахимова), Большая садовая No 27 1878. pp.114~137; Геннадий Иванович Невельской (Редакция Л. Г. Каманина), *Подвиги русских морских офицеров на край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1849-1855 г.)*,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49.

12) 본 논문은 네벨스코이의 『1849-55년의 아무르와 우수리 지역에서의 러시아 해군장교의 공훈(Подвиги Русскихъ морскихъ офицеровъ на Крайнемъ Востоке России 1849-55 г При-амурский и при-уссурийский край)』을 참고할 때 1878년에 출간한 원본과 1949년에 재출간한 편집본을 동시에 이용했다. 여기서 1878년의 원본은 1918년 철자통일 이전의 철자를 사용했고 연구자의 한계로 이를 오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이를 설명할 때 원문을 가능한 각주에 병기했다.

13) 홍웅호, 「러시아의 연해주 진출과 개발의 역사」, 『시베리아 극동연구』 제4호, 2008, pp.9~10.

국의 강압에 청나라가 굴복한 결과였음을 밝혔다.¹⁴⁾ 또한 최문형은 아이훈 조약에서 어떻게 아무르 강 좌안의 광범위한 영역이 러시아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¹⁵⁾ 민경현은 러시아의 극동 진출의 배경으로 네벨스코이를 비롯한 여러 해양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¹⁶⁾ 홍웅호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에 관해 시대별로 상세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특히 크림전쟁에서의 패전에 따른 유럽에서의 영향력약화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제국이 그 반대급부로 동아시아 팽창을 주도했다는 관점을 제안했다.¹⁷⁾ 이완중은 아이훈조약이 청나라의 지방 관헌과 체결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국제법적 정당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¹⁸⁾ 김용구는 러시아제국의 동아시아 팽창에 대해 카흐타무역에서 러시아제국이 얻는 이익의 감소가 큰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¹⁹⁾ 최형원은 아이훈조약의 만주문과 몽골문을 국문으로 번역했다.²⁰⁾

영국과 미국학계는 영국과 러시아의 세계구급 영향력 투쟁,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에서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팽창했다는 시각이 강하다. 특히 러시아가 본토에 없는 부동항을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건설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해양으로 진출하고자 했음을 강조한다. 블라디미르(Z. V. Vladimir)는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과정을 정리하고 그것이 어떻게 시베리

14) 최문형, 앞의 글, 1997;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2009.

15) 최문형, 앞의 책, p.103.

16) 민경현, 앞의 글, 1999; 민경현,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대조선 정책」,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제23호, 2006.

17) 홍웅호, 앞의 글; 홍웅호, 「1858~1898년 의 동아시아 팽창과 만주」, 『동북아역사논총』 제14호, 2006; 홍웅호, 「청일전쟁 이전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대동문화연구』 제61호, 2008; 홍웅호, 「19세기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백두산 탐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Vol. 13 No. 3, 2009.

18) 이완중, 「러시아의 극동진출과 중-러 국경획정과정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제4호, 2005.

19) 김용구, 『러시아의 만주 한반도 정책사, 17~19세기』, 푸른역사, 2018.

20) 최형원, 「아이훈조약(璦琿條約)의 만주문(滿洲文)과 몽고문(蒙古文)」, 『몽골학』 25권, 2008.

아횡단철도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역사적 맥락에 따라 자세하게 서술했다.²¹⁾ 말로제모프(Malozemoff, Andrew)는 러시아가 아무르 유역을 곡물 생산지로 예상했으나, 아무르 강이 가지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만회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로 팽창했음을 알렸다.²²⁾ 린(T. C. Lin)은 아무르 문제를 소개하며, 극동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러시아제국이 중국진출을 시도했음을 양국 사이의 외교협상을 중심으로 연구했다.²³⁾ 렌센(G. L. Lensen)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이훈조약을 주도한 무라비요프가 능동적인 극동정책의 시행에 매진했음을 조명했다.²⁴⁾ 또한 페인(S. C. M. Paine)은 아이훈조약을 전통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 관계가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높게 평가한 바 있다.²⁵⁾ 베신(Mark Bassin)은 아무르 강과 아무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제국이 아이훈조약 이후 태평양에서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동아시아 팽창이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²⁶⁾

반면 러시아 측의 연구는 아이훈·베이징 두 조약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영토 확장이 러시아제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아닌 영국과 같은 해양세력에게 러시아의 이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21) Vladimir Zenone Volpicelli, *Russia on The Pacific And The Siberian Railway(1899)*, Kessinger Publishing, 2010.

22) A.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석화정 옮김, 지식산업사, 2002.; Andrew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Univ. of California, 1958.

23) T. C. Lin, "The Amur Frontier Ques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860",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3, No. 1, 1934.

24) George Alexander Lensen, *The Russian push toward Japan, Russo-Japanese Relations, 1697-187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25) S. C. M. Paine, *Imperial Rivals China, Russia, and Their Disputed Frontier*, Routledge, 1996.

26) Mark Bassin, *Imperial Visions Nationalist Imagination and Geographical Expansion in the Russian Far East, 1840-18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없는 선택이었다고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카레바(И. Л. Экарева)는 아이훈조약과 베이징조약이 극동지역의 러시아 식민지 개척이 가능하게 만들었음을 소개하고, 비테(Витте)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의 팽창을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트카첸코는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에서 러시아가 공인받은 땅이 만주족과 청나라에 예속된 적이 없었으며, 이후 국경분쟁에서 러시아제국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²⁸⁾ S. M. 두다료노프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가들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이 서구열강의 동아시아침탈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이권을 보호하는 일관된 과정 중 하나였으며, 오히려 정당한 러시아의 권리를 되찾는 측면에서 아이훈조약이 불만족스러웠기에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²⁹⁾ 바르벤코(Я. А. Барбенко)는 러시아제국의 아이훈조약 이전 1853-1858년 사이에 아무르 지역에 행정적 접근을 소개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전부터 이미 러시아제국이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편입을 시도했음을 밝혔다.³⁰⁾

3. 연구방향

19세기 중엽 러시아제국의 팽창에 대해서는 상술한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러시아제국의 팽창과 부동항획득, 그리고 태평양으로의 진출이라는 요소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훈조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이미 이 지역에 부동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러시아제국이 인지하고

27) И. Л. Экарева, “Из Истории колонизации России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естник Челяб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Vol. 139, 2009.

28)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성종환 옮김, 동북아 역사재단, 2010.

29) S. M. 두다료니크 외 23인,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양승조 옮김, 진인진, 2018.

30) Я. А. Барбенко, “Разрешение Амурского вопроса: сначала присоединить, затем легитимировать”, *Россия и АТР* Vol. 104, No. 2, 2019.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아무르 유역으로의 팽창이 부동항 획득과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특히 아무르 강의 지정학적인 가치에 주목한 연구조차도,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팽창의 직접적인 동기로 아무르 강의 중요성이 작용했는지를 주목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러시아제국은 부동항 이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아시아에 진출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직관적인 답변은 아이훈조약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아이훈조약의 일부를 우선 살펴보겠다.

1조. 아르군에서 아무르 강의 하구까지 강의 좌안은 러시아의 영토이며 우수리강에서 바다에 이르는 지역은 두 국가 사이의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러·청 양국의 공동소유이다. 아무르 강, 송화강, 우수리강은 러시아와 청나라 선박만이 항해할 수 있으며, 다른 외국 선박의 항해는 금지된다. 제야강에서 호르몰진(Хормолдзинь)까지의 아무르 강 좌안에 거주하던 만주인들은 옛 주택을 영원히 보유하고 러시아는 어떠한 억압을 하지 않는다.³¹⁾

2조. 양국의 상호 우호를 위해, 우수리강, 아무르 강, 송화강 강변에 양 국민 사이의 상호 무역을 허용하며, 양국은 양국 상인의 무역활동을 촉진한다.³²⁾

31) “Левый берег реки Амура, начиная от реки Аргуни до морского устья р. Амура, да будет владением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а правый берег, считая вниз по течению до р. Усури, владением дай ц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т реки Усури далее до моря находящиеся места и земли, впредь до определения по сим местам границы между дву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как ныне да будут в общем владении дай цинского 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 По рекам Амуру, Сунгари и Усури могут плавать только суда дай цинского 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 всех же прочих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судам по сим рекам плавать не должно. Находящихся по левому берегу р. Амура от р. Зеи на юг, до деревни Хормолдзинь, маньчжурских жителей оставить вечно на прежних местах их жительства, под ведением маньчжур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 тем, чтобы русские жители обид и притеснений им не делали.”

32) “Для взаимной дружбы подданных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дозволяется взаимная торговля проживающим по рекам Усури, Амуру и Сунгари подданным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 а начальствующие должны взаимно

(...)

아이훈조약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동항이 아닌 아무르 강과 그 지류들에서의 항해, 그리고 유역에서의 상업 활동이다. 이를 아무르 강 좌안에서 부동항이 없다는 사실을 러시아제국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앞서 서술한 문제 제기를 유념해서 살펴본다면, 1858년에 영토 확장의 주안점이 부동항획득과는 거리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 제국의 아무르 유역점유는 어떤 배경과 목적을 두고 시행될 수 있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러시아제국의 동아시아 팽창에서 아무르 강의 활용과 그 유역의 점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연구하겠다. 특히 수로로서의 아무르 강이 가지는 가치에 주목해 아무르 유역의 확보가 단순히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부동항을 향한 교두보의 역할이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러시아제국이 아무르 유역에 처음 출현하던 17~18세기의 역사적 배경과 19세기에 러시아제국에게 새로운 수로(水路)로 아무르 강의 필요성이 어떤 맥락에서 대두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대두된 수로의 필요성에 아무르 강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러시아제국이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찾아보고 그것이 러시아제국의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겠다. IV장에서는 앞서 확인된 아무르수로를 러시아제국이 직접 이용한 사례와 공식적인 점유과정을 연구하겠다. 결론에서는 서술한 연구를 정리해 러시아제국의 동아시아 팽창에서 아무르 강과 그 유역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탐구하겠다. 또한 그 중요성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탄생에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밝히겠다.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вать на обоих берегах торгующим людям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아이훈조약의 전문은 다음을 참조, Е. А. Адамова и И. В. Козьменко, 앞의 책, pp.45~47.

II. 러시아제국의 아мур 진출 배경

1. 19세기 이전 러·청의 전통적인 관계 속 아мур 강



그림 1. 아мур 유역의 지리적 범위와 주요 수계

아мур 강은 시베리아에서 태평양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이자, 세계에서 8번째로 긴 강으로 중국에서는 헤이룽장(黑龍江)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아мур 강은 바이칼호수 인근에서 발원해 지류인 실카 강(Река Шилка), 오논 강(Река Онон), 아르군 강(Река Аргунь), 제야 강(Река Зейя), 우수리 강(Река Уссури), 쑹화장(松花江) 등과 합쳐져 굽이치며 동쪽으로 흐른다. 한편 아мур 강의 하구는 사할린 섬을 마주 보고 있는데 아시아대륙과 사할린이 마주하는 그 사이의 좁은 해협을 아мур만(Амурский лиман) 혹은 타타르 해협(Татарский пролив)이라 부른다.³³⁾ 기후적으로, 광활한 지역 전부를 통일해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아мур 유역은 일반적으로 겨울

33) Victor Vladimirovich Zatsepine, *Beyond the Black Dragon River: Encounters and Decline of the Qing and Russian Empires: 1860-1917*, Thesis (Ph. 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Canada), 2006, pp.27~34.

은 춥고 건조하며 여름은 덥고 습하다.³⁴⁾ 특히 추운 겨울로 인해 아무르 강은 다른 시베리아의 강들처럼 겨울에는 얼어붙어 항행이 제한된다.³⁵⁾ 이런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아무르 강은 중국과 러시아의 자연 국경이며 아무르 강은 중국의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러시아의 아무르주(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라는 행정구역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두 나라 사이를 흐르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무르 강이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의 전략거점으로 주목받은 것은 아니다. 본래 아무르 유역에는 부랴트, 몽골, 퉁구스어를 사용하는 원주민이 거주했다.³⁶⁾ 이들은 주로 유목과 수렵을 병행했지만, 일부는 농업에 종사했으며 그 생산물을 거래하기도 했다.³⁷⁾ 이런 생활을 하던 원주민의 상당수가 아무르 강 중류와 하류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³⁸⁾ 그러나 이들 원주민 세력은 근대적인 국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점차 아무르 강 유역에 진입한 러시아와 중국세력에 의해 예속화되었으며 많은 원주민이 근대 시기에 각 국가의 주류문화에 동화되었다.³⁹⁾

한편 지역에서 처음 국가의 행정력을 투사하려고 시도한 세력은 중국의 왕조들이었다. 원나라는 아무르 강으로 흘러드는 암군강의 하구에 동정원사부(東征元帥府)를 설치했다.⁴⁰⁾ 이후 명나라 때에는 영락제에 의해 노아

34) 강명구, 「러시아 아무르주 농업 현황」, 『세계농업』 155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35) 영국 해군 정보국이 1923년 발행한 *A Handbook of Siberia and Arctic Russia*에 따르면 20세기 초 아무르 강 상류의 알바진은 11월 18일부터 결빙되어 5월 16일에 해빙되었다. 중류의 블라고베센스크의 경우 11월 25일부터 결빙되어 5월 12일에 해빙이 되었다. 하류의 니콜라옙스크의 경우 11월 25일부터 결빙되며 평균적으로 6월1일에야 해빙되었다. 선박 항해의 경우, 강이 완전히 해빙되어야만 가능했다. Great Britain Naval Intelligence Division, *A Handbook of Siberia and Arctic Russia : Volume 1: General*, Nabu Press, 2010, pp42~43.

36) 제임스 포사이스,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정재겸 옮김, 솔출판사, 2009, pp.110~113.

37) S.M. 두다료니크 외 23인, 앞의 책, pp.106~107.

38) 제임스 포사이스, 앞의 책, pp.116~117.

39) S.M. 두다료니크 외 23인, 앞의 책, pp.117~133.

40) 이훈, 「17세기 중엽 청-러시아의 충돌과 흑룡강 유역의 부족민」, 『열상고전연

간도사(奴兒干都司)가 설치되었다. 노아간도사는 명나라 영락제(永樂帝)부터 선덕제(宣德帝)시기까지 아무르 강 하구에 존재했으며,⁴¹⁾ 명나라의 만주 및 요동지역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기구였다. 비록 노아간도사가 실제 행정·사법기구였는지, 아니면 임시적인 초무기구였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⁴²⁾ 노아간도사의 존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세력이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이 지역에 관심을 보였고 또 행정적으로 통제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만주에서 기원한 청나라의 경우는 한족 정부였던 명나라보다 아무르 유역과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1616년 청 태조 천명제(太祖 天命帝)가 처음 아무르 강 유역의 원주민 집단을 공격했다.⁴³⁾ 이후 집권한 청 태종 숭덕제(太宗 崇德帝)는 더욱 적극적으로 흑룡강 유역의 원주민 집단을 공격했다. 이들 만주족이 아무르 유역의 원주민을 공격한 이유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있다. 이 시기가 명·청 사이의 전쟁이 극에 달한 시기였던 만큼, 당시 청나라는 인력과 물자에서 항상 부족함에 시달렸고 만주족 정부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아무르 강 인근의 원주민을 복속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⁴⁴⁾ 숭덕제는 3차례에 걸쳐 아무르강유역 원주민들을 향한 원정을 했으며 상당량의 인구 및 물자를 약탈했다.⁴⁵⁾ 또한 다호르족⁴⁶⁾을 포함한 일부 소수민족이 청나라에 복속되었

구』 제65집, 2018, p.174.

41) 남의현, 「명(明)의 만주지역 영토인식에 관한 연구」, 『간도학보』 Vol. 2 No. 1, 2019, p.83.

42) 노아간도사를 연구한 남의현에 따르면 중국학계는 명나라가 노아간도사를 통해 지역의 여진족을 포함한 원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할 때마다 군사 행동을 위해 운용된 임시초무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노아간도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남의현, 「15세기 명(明)의 여진지역(女眞地域) 진출시도(進出試圖)와 여진(女眞)의 성장(成長) -노아간도사(奴兒干都司)와 건주여진(建州女眞)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No. 26, 2006.; 「명대 遼東 接境地帶의 형성과 변화 : 遼東八站과 女眞衛所(羈縻衛)의 성격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No. 51, 2020.을 참고했다.

43) 이훈, 앞의 글, p.177.

44) 조병학, 「후금(淸)의 흑룡강 주변 部族에 대한 平定과정 및 복속 정책」, 『몽골학』 No. 17, 2004, pp.153~156.

으며, 이후 러-청의 충돌에서도 청나라 측으로 참여하게 되었다.⁴⁷⁾ 그러나 청의 입관(入關)과 인구이동, 그리고 청나라의 주된 전장이 중국의 강남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아무르 유역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다.⁴⁸⁾

반면에 러시아의 아무르 유역진출은 중국보다 늦은 17세기의 일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세력의 시베리아 진입이 16세기 말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러시아는 매우 빠르게 동아시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확장배경에는 모피가 있다. 모피는 당시 러시아세력의 동진(東進)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⁴⁹⁾ 러시아인들은 모피 동물을 찾아 시베리아 전역을 횡단해 오흐츠크 해까지 도달했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통제했다.⁵⁰⁾ 러시아세력에 복속된 원주민들은 일종의 세금 개념으로 야사크(ясак)를 내야만 했는데, 이들이 납세하는 야사크는 대부분 모피와 관련된 물품들이었다. 한편 월동과 모피사냥의 거점으로 요츠크에는 거점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1597년에 톰스크(Томск) 건설을 시작으로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 야쿠츠크(Якутск) 등이 건설되었다.⁵¹⁾ 이 도시들은 모두 강

45) 조병학, 앞의 글, pp.158~162.

46) 이들 민족은 몽골어를 쓰며 아무르 강 중·상류에 살던 수렵·유목 원주민의 한 계통이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다호르(達斡爾), 러시아에서는 다우르(даурь)라 불리우며 본고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해 상대적으로 중국측에 속한 원주민은 다호르, 러시아측에 속한 원주민은 다우르라 지칭하겠다.

47) 최원오, 「나선정벌기(羅禪征伐期) 흑룡강(黑龍江) 유역한 소수민족의 삶과 대웅 -다호르故事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Vol. 65, 2018, p.61.

48) 이훈, 앞의 글, p.186.

49) 백해의 아르한겔스크에서 이루어진 대 서구 무역에서 1642년 모피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47%에 이르렀다. 이렇듯 많은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피의 확보는 곧 러시아의 수입과 직결되는 사안이었으며, 이는 곧 많은 모피자원을 얻을 수 있었던 시베리아로의 확장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아르한겔스크에서 이루어진 백해에서의 러시아와 서구사이의 무역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지배, 「16-18세기 초 러시아 대서구 무역의 특징:아르한겔스크 무역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Vol. 120, 2015.

50) 정세진, 「러시아 제국의 시베리아 확장: 제국의 정복 및 시베리아 이미지」, 『노어노문학』 Vol. 26 No. 2, 2014, p.237.

51) 계승범, 「17세기 중반 나선정벌의 추이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사학연구』 No. 110, 2013, p.211.

유역에 건설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훗날 동시베리아의 주요 거점으로 러시아의 팽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은 주로 내륙수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시베리아가 가진 지형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시베리아는 거대한 크기와 지형·기후적 특징으로 인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기 이전까지 육로교통이 매우 취약했다.⁵²⁾ 그러나 열악한 도로와는 별개로 시베리아에는 수로로 활용할 수 있는 큰 강이 다수 있다. 특히 이들 강은 겨울에는 썰매 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가지고 있었다.⁵³⁾ 무엇보다 이러한 강을 활용한 수로의 가장 큰 장점은 도로와 달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이 요소는 국가 주도의 팽창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소규모집단이었던 러시아인들이 수로를 이용하는 데 육로보다 유리하게 작용했다. 동진(東進)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진입하게 된 아무르 강은 수량이 풍부하고, 유역이 넓으며 통하는 지류가 많아 수로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아무르 유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세력의 진출 역시 이러한 수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러시아세력의 아무르 유역진입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소, ‘모피’와 ‘수로’를 배경으로 한다. 우선 아무르 강과 주변 유역은 강력한 국가의 출현이 늦었던 만큼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보호되어 있었고, 자연히 모피동물도 풍부했다.⁵⁴⁾ 이때 드미트리 코필로프(Дмитрий Копылов)가 이끄는 카자

52) 이러한 육로교통의 약점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개통 이전까지 시베리아의 활용과 항상 연결되는 문제였다. 가령 1860년 베이징조약이후 러시아제국 행정부는 새로 획득한 우수리 강변의 영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러시아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새 영토 이주를 장려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아무르 유역의 블라고베셴스크(Благовещенск)까지 보통 2년 이상이 걸렸으며 심각한 경우는 약 10년이 걸리기도 했다. 단, 유목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집단에 가까웠던 카자크집단과 19세기의 농민가구의 이주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양승조,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지역 식민정책-유즈노우수리 지역 식민이주 정책을 중심으로」, 『史叢』 No. 87, 2016, pp.293~298.

53) 시베리아의 내륙수로를 활용한 러시아제국의 시베리아 동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심현용, 「러시아 동진의 군사적 성격과 통치구조(16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중소연구』 27권 2호, 2003.을

54) 이훈, 앞의 글, p.174.

크 부대가 오호츠크 원주민으로부터 치르콜(Чиркол)⁵⁵⁾하류에 은산이 있다는 소문을 알게 되었다.⁵⁶⁾ 마지막으로 아무르 유역은 동시베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다.⁵⁷⁾ 이러한 요소들은 특히 수로를 통해 아무르강으로 진입하기 유리한 야쿠츠크의 러시아인들을 자극했고 마침내 아무르 유역으로의 진출의지를 불러일으켰다. 먼저 바실리 포야르코프(Василий Поярков)가 레나강을 따라 알단, 제야강을 거쳐 아무르 강에 진입했다. 이후 그는 타타르 해협을 거쳐 오호츠크 해로 빠져나왔다.⁵⁸⁾ 다음에는 예로페이 하바로프(Эрофей Хабаров)가 레나강을 거슬러 올료크마 강(Река Олёкма)으로 이동, 아무르 강 유역으로 진입했다.⁵⁹⁾ 이들은 다른 시베리아의 경우에서처럼 알바진과 하바롭스크 등의 요새를 건설 거점으로 삼았다.

러시아세력의 아무르 강 유역 출현은 곧 이미 지역을 선점하고 있던 청나라와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명의 잔존세력인 남명(南明)정부와 투쟁을 벌이고 있던 청나라는 아무르 유역의 소요에 집중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국제적인 요소가 겹치면서, 아무르 유역에서는 지역적인 수준의 산발적인 교전만 일어났다.⁶⁰⁾ 그리고 이런 소규모 교전에서는

55) 아무르 강은 크고 지류가 많기에 다양한 명칭이 있으며, 치르콜은 아무르 상류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에 의해 아무르 강을 지칭하며 아무르, 실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된 표현이다. 발레리에 따르면 코펠로프가 원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치르콜강의 존재를 처음 인식했다고 한다. Павлик Валерий, “Амур – слово даурское”, *Долгий путь на Амур. Ерофей Хабаров и его «Войско»*, Словесница Искусств, <http://www.slovoart.ru/node/332>, (2021년 1월 19일 검색).

56) S.M. 두다료니크 외 23인, 앞의 책, p.57.

57) 제임스 포사이스, 앞의 책, p.116.

58) 이때 포야르코프는 아무르 강이 태평양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혔을 뿐 아니라 원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사할린이 섬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항해성공은 후대의 정책적인 결정에 이용되지 못했다. Б. П. Полевой, “К истории открытия Татарского пролива”,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Востока VII*, 1968, p.70.

59) 제임스 포사이스, 앞의 책, pp.118~119.

60) 김경록, 「17세기 중반 동북아 국제정세와 조선의 나선정벌」, 『열상고전연구』 제67집, 2018, p.28.

러시아가 우세를 점했다.⁶¹⁾ 이에 자극을 받은 청나라가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고 조선도 청나라의 부탁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이 일련의 군사적 충돌이 한국에는 주로 ‘나선정벌’이라고 알려진 1652년부터 1658년 사이의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있던 국경분쟁이다.⁶²⁾ 이 일련의 국경분쟁에서 청나라는 군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군사적 충돌이 끝나고 두 나라는 이러한 분쟁을 끝내기 위해 외교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1689년의 네르친스크조약(Нерчинский договор)⁶³⁾과 1727년의 카흐타조약(Кяхтинский договор)이다. 두 조약의 체결과 그로 인한 양국 친선관계의 성립은 정치·외교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두 제국의 긴 외교협상의 결과에서 아무르 강과 주변 유역 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을 정리하자면 크게 2가지였다. 첫째로 군사적 충돌에 의한 패배와 그 결과로 러시아제국의 의도와는 달리 상당한 영역을 청나라에 내어주는 국경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⁶⁴⁾ 둘째로 친선의 결과로 양국 사이에 국경무역이 개시되고, 제한된 인원이나마 베이징에 대상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⁶⁵⁾ 이

61) 박지배,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역사연구』 제 240집, 2018, p.652.

62) 나선정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두 국가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서술된 일련의 전투의 진행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계승범, 「러시아 자료로 본 1650년대 흑룡강원정(나선정벌)」, 『열상고전연구』 제65집, 2018.

63) 네르친스크조약의 적법성을 두고 러시아 내부에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협상을 주도한 섭정 소피야(Сóфья Алексеевна Ромáнова)가 이후 표트르 대제(Пётр Алексеевич Романов)에 의해 축출되면서 네르친스크조약을 포함한 그녀의 정치적 행위가 모두 반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64) 정확한 국경선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국이 원래 요구했던 아무르 강과 알바진 요새를 기점으로 하는 국경선의 정립에는 실패했다. 국경은 아르군강, 고르비차 강, 산맥으로 확정되었다. 네르친스크조약과 카흐타조약 과정에서의 국경 형성은 다음을 참고. 박지배, 「러시아 대중국 국경의 형성과 접경성:네르친스크-카흐타 국경 체제」, 『역사문화연구』 제71집, 2019.; 한편 이에 대해 러시아 연구자인 트카첸코는 아무르 강 좌안의 영토를 만주족 관리들이 사실상 방치한 점, 이후 지도 제작이나 국경 설명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네르친스크조약이 아르군 강 일대에 상당히 좁은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트카첸코, 앞의 책, pp.26~27.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친선·교류의 중심지로 몽골초원지대에 있는 카흐타(Кяхта)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제국은 카흐타를 중심으로 하는 대청(對淸)무역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⁶⁶⁾ 1775년 기준으로 카흐타에서의 무역은 러시아 전체 무역에서 8.3%를 차지했으며, 러시아제국 전체 관세 수입의 20~38%에 달하는 관세수익을 올렸다.⁶⁷⁾

이러한 러·청 양 제국의 친선관계 형성으로 러시아세력은 사실상 아무르강 유역에서 축출되었으며 동시에 지역으로의 팽창 동기도 사라졌다. 이는 다양한 요소에 근거했다. 러시아제국이 아무르 유역으로 진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상품자원인 모피의 확보였다. 이때 모피는 18세기에 카흐타지역의 국경무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었고⁶⁸⁾, 그 수요 역시 꾸준했다. 그러나 북태평양을 접한 아시아·아메리카 대륙의 연안에서 안정적인 모피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세력은 아무르 유역이 아닌 태평양 연안으로 진출했다.⁶⁹⁾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아메리카 회사(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компания)의 출현으로 탄력을 받았다.⁷⁰⁾ 또한 국경무역과 양국 친선의 중심지로 카흐타와 몽골초원이 중

65) 김용구, 앞의 책, p.74.

66) 18세기 초반 카흐타에서 진행된 무역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로,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두었는지는 사료의 부족으로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르쯔는 국경에서 러·중 사이의 국경무역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남겼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Б. Г. Курц,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монополия в торговле России с Китаем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VIII ст.*, Институт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СССР), 1929. 또한 18세기 중후반 러·청무역의 양상 및 그 규모에 대해서는 포우스트가 자세히 정리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C. M. Foust, *Muscovite and Mandari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2.

67) S.M. 두다료니크 외 23인, 앞의 책, p.77.

68) John. J. Stephan, *The Russian Far East - A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p.33~37.

69) 박원용, 「러시아 역사에서 해양 공간 다시보기」, 『대구사학』 137권, 2019, pp.259~262.

70) 러시아제국 탐험가들의 태평양 항해의 결과로 러시아제국은 알래스카에 상당한 영토를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러시아-아메리카 회사는 지역에서 산출하는 물자와 영토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했다. 러시아-아메리카 회사와 러시아제국의 식민지로의 아메리카에 대한 자세한

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중심부와 서부시베리아에서 몽골초원을 관통하는 초원길이 중요해졌다.⁷¹⁾ 반면에 아무르 유역의 수로는 카흐타보다 러시아의 중심부와와의 거리가 더 멀었고, 이미 지역이 청나라의 영역이 된 만큼 내륙수로로의 가치도 없어지게 되면서 교통로로의 전략적 가치가 사라졌다.

이처럼 아무르 유역으로의 팽창에 대한 이점이 적어진 상태에서 러시아 제국이 만약 아무르 유역으로 진출하려고 했다면, 러시아제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청나라와의 친선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러시아제국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무르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런 상호 친선의 전통관계가 네르친스크-카흐타조약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러시아제국에 아무르 강 유역은 관심 밖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그림 2. 1734년 청나라의 영역을 표현한 지도에
묘사된 동북국경 지역⁷²⁾,

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1723.

설명은 다음을 참조. Н. Н. Болховитинова(ред.),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1732-1867,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9.

71) Martha Avery, *The Tea Road: China and Russia Meet Across the Steppe*, China Intercontinental Press, 2004, pp.13~17.

2. 19세기 아무르 수로에 대한 인식 전환 배경

18세기 내내 아무르 유역은 청나라가 우위를 점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는 러·청의 카흐타무역으로 대표되는 친선 관계로 인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세기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제국이 아무르 강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바뀌기 시작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겠다.

우선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은 카흐타에서 이루어지던 러시아와 청나라의 국경무역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8세기 러시아제국의 가장 중요한 대중(對中) 수출품은 모피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수출품으로의 모피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카흐타에서 판매되는 러시아제국의 전체수출품 중 모피의 비중은 1768년부터 1785년 사이에는 85%로 압도적인 수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품에서 모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게 되었다. 전체무역품에서 모피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790년에 70%, 1824년부터 1828년의 시점에는 약 50%까지 감소했고, 1830년대에는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줄었다.⁷³⁾ 기본적으로 모피비중의 감소는 카흐타에서의 무역액 총액이 커졌기 때문이었다.⁷⁴⁾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모피수출액은 1826년 260만 루블 수준에서 1830년 310만 루블, 1835년 420만 루블로 정점에 이르렀지만, 이후로는 계속 감소했다.⁷⁵⁾ 모피무역의 약화에 대해 가장 유명한 설명은 모피 동물 남획으로

72) 아무르 강과 주변 지류가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과 대략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이 섬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73) 모피판매비중과 모피판매액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 M. Foust, 앞의 책, pp.332~334.; В. Н. Разгон, *Сибирское купечество в XVIII -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IX в. : Региональный аспек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традиционного типа*, Барнаул, 1999.

74) 1854년에 러시아의 카흐타 수출은 1825년 이후 6배로 증가하였고 수입도 7배로 증가하였다. 김용구, 앞의 책, p.76.

75) В.Н. Разгон, 앞의 글, pp.372~402.

인한 서식지 파괴로 모피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⁷⁶⁾ 한편으로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기후가 점차 온난해지고 모피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⁷⁷⁾

국경무역에서 모피를 대체한 수출품은 주로 러시아산 면직물이었다. 19세기 러시아 산업의 핵심은 농업이었고, 공업은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뒤져있었다.⁷⁸⁾ 그럼에도 면직물공업에서만은 러시아는 나름 선전했으며⁷⁹⁾ 면직물 생산품의 상당수가 수출되었다. 1829년 러시아산 면직물의 2%만이 청나라로 수출되었지만, 1850년에는 그 비중이 절반에⁸⁰⁾ 이르렀다.⁸¹⁾ 그러나 점차 러시아산 면직물의 수요마저 감소하기

76) 러시아인들의 북태평양 진출과 그로 인한 동물남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Ryan Tucker Jones, *Empire of Extinction: Russians and the North Pacific's Strange Beasts of the Sea, 1741-1867*,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77) 러·청국경에서의 모피판매와 소비하기를 연결시켜 모피상품의 수요·공급 추이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당시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있었다는 연구가 누적되어 있고, 기후가 모피소비와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이를 연결해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 당시 기후조건과 그로 인한 환경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준호, 「1623~1800년 서울지역의 기상기후 환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6; 김문기, 「청어, 대구, 명태: 소비기와 한류성어류의 박물학」, 『대구사학』 115권, 2014.

78) 1750년을 기준으로 러시아는 41개의 용광로를 부유하고 있었으며 거기서 약 200만 뿌드(пуд)의 선철을 생산했던 반면 영국은 30만뿌드의 선철을 생산하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1800년에 러시아가 990만뿌드의 선철을, 영국이 950만뿌드의 선철을 생산하면서 따라잡히게 된다. 이후 러시아의 성장이 점차 지체되고, 서유럽 열강들의 철 생산이 산업혁명으로 급증하면서 1830년 세계 금속 공업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던 러시아는 1850년에는 4%에 불과하게 된다. 따지야나 미하일로브나 켄모쉬나 지음, 『러시아 경제사』, 이재영 옮김, 한길사, 2008, p127;p153.

79) 예카테리나대제 시절에 특히 발전했던 러시아의 면직물공업은 다른 공업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했다. 그 결과 1850년대 러시아는 면직물 생산에서 세계 5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지야나 미하일로브나, 앞의 책, p.153.

80) О. В. Орлик, А. Н. Сытин, Г. А. Кузнецова и др, Истори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19век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9, p.270.

81) 그러나 카흐타에서 판매되는 섬유의 상당수가 프로이센과 폴란드제였으며 이들 면직물은 일정 정도 러시아 면직물의 수요를 대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chal Wanner, "Russian-Chinese Trade in Kyakhta - Trade Development and Volume Indicators 1727 - 1861", *Prague Papers on*

시작하면서 러시아 면직물은 손해를 보고 팔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⁸²⁾

한편 러시아제국의 가장 중요한 수입품은 차(茶)였다. 1792년 50만 루블에 불과했던 차 수입은 10년 만에 180만 루블로 성장했다. 이후 차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1831년부터 1840년까지 수입된 차의 가격만 620만 루블에 달했다.⁸³⁾ 18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대상을 통한 중국 차의 수송은 동시대의 해상운송 이상의 경쟁력이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상운송을 통해 운반되는 차가 습기와 열기에 손상되는 반면, 낙타의 등과 사막의 온도변화는 오히려 차를 숙성시킨다는 점이었다.⁸⁴⁾ 그리고 러시아제국은 차 수입에 관세 부여를 부여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⁸⁵⁾ 그러나 면직물공업과 마찬가지로 카흐타를 통한 차 무역 역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카흐타에서 러시아가 거두는 이익의 감소, 특히 차 무역 감소의 배경에는 중국에서의 영국의 성공에 있었다. 1861년 카흐타에서 무역을 하던 상인인 노즈코프(И. А. Носков)는 영국의 성공을 두고 이렇게 서술했다.

1차 영-청전쟁이 끝난 후, 중국 남부항구에서 차가 대량으로 수출될 때, 영국 소비량 초과분의 차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차의 소비가 많은 러시아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차들은 수입금지에도 불구하고 밀수되었으며 (....) 카흐타는 1차 영-청전쟁으로 영국의 유럽으로 향하는 차 수입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줄 것을 인지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⁸⁶⁾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s 1, 2016.

82) 김용구, 앞의 책, p.77.

83) А. К. Стариций, *Материалы для описания русских рек и истории улучшения их судоходных условий. Выпуск 50. Река Селенга в Забайкальской области*, Тип. М-ва путей сообщ. (Т-ва И.Н. Кушнерев и Ко), 1913, pp.73~74.

84) Chinyun Lee, "From Kiachta to Vladivostok: Russian Merchants and the Tea Trade", *Region* Vol. 3 No. 2, 2014, pp.196~197.

85) 1858년부터 1861년 3년간 러시아제국이 거둬들인 차 관세의 평균은 5백46만 루블이었다. Коваль Мария Вячеславовна, "Погранична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ая торговля в XIX В",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Сери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no. 3, 2013, p.25.

영국과 러시아는 청나라라는 차 생산지에서 유럽으로 차를 수송하는 경쟁국인 동시에 그렇게 수입한 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다. 러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문제는 청나라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해지는 동시에 영국의 해상수송이 항해기술의 발전과 증기선의 출현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것에 비해 러시아의 육로수송은 그러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에 있었다. 아편전쟁 이전부터 영국은 중국 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773년부터 1783년까지 광저우의 차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던 비중은 29%였으나, 1790년대 영국의 비중은 77%에 이른다.⁸⁷⁾ 이후로도 영국의 차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아편전쟁으로 최혜국대우와 함께 파격적인 관세 혜택을 얻으면서⁸⁸⁾ 영국은 중국과의 차 무역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고속범선인 클리퍼선(clipper)의 탄생과 투입으로 희망봉을 도는 항로의 소요 시간이 약 100일로 단축되어졌다.⁸⁹⁾ 관세 혜택과 해상운송기술의 발전으로 영국은 차의 해운 수송 운임을 육로

86) И. А. Носков, *Кяхта: О кяхтинской торговле чаем*, 1861, “Известно, что по окончании первой войны Англии с Китаем, когда начался вывоз из южных портов Китая чая громадными массами, тогда избыток его от потребления в Англии, стал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в другие стороны и, разумеетс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был направлен в Россию, где чай потребляется, после Англии, гораздо более, чем в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он стал водворяться в Россию контрабандою,(....) В Кяхте знали и следили за ходом первой войны Англии с Китаем и понимали, что водворение англичан в Китай с своими изделиями и вывоз оттуда в громадном количестве чаев в Европу должны неминуемо отразиться на торговле нашей с Китаем, но мер противу этого не принимали да и не могли ничего сделать.”.

87) 박지배, 「18~19세기 전반 근대세계체제 내에서 영국의 대중국 차 무역이 갖는 의미」, 『역사학보』 No. 224, 2014, p.351.

88) 난징조약과 몇 개의 보완조약으로 청나라는 협정관세율, 영사재판권, 편무적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야 했다. 이때 중국의 수입관세는 5%로 고정되었다. 강진아, 「동아시아의 개항: 난징조약에서 강화도조약까지」, 『현대사광장』 7권, 2016, p.61.

89) 손연숙, 「영국의 식민지정책이 세계의 차문화사에 미친 영향」, 『차문학·산업학』 Vol. 4 No. 1, 2008, p.10.

운임의 5%수준의 가격으로 낮출 수 있었다.⁹⁰⁾ 노즈코프는 폴란드와 모스크바 등에서 영국산 차가 카흐타에서 수입한 차보다 값싸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⁹¹⁾ 더욱이 왕샤조약(望廈條約)과 황푸조약(黃埔條約)을 통해 미국과 프랑스마저 최혜국 대우와 고정관세율을 획득하면서 러시아가 중국 시장에서 가지는 입지는 더 좁아졌다.

카흐타에서 이루어지는 국경무역의 약화는 평범한 변경지역의 경제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이 당시 러시아제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과 산업에 걸친 전반적인 경제 수준에서 뒤떨어졌었다. 특히 조국전쟁(대프랑스전쟁)에서의 막대한 피해, 지지부진한 산업화, 그리고 적극적인 해외개입의⁹²⁾ 영향으로 1853년에 이미 5,700만 루블의 빚을 지고 있던 러시아정부는 3년 후인 56년에 크림전쟁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3억 700만 루블로 늘어났으며 인플레이션은 연간 50%까지 증가했다.⁹³⁾ 더욱이 해외무역에서 영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해졌지만, 반대로 무역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일로였다.⁹⁴⁾ 따라서 카흐타무역의 쇠퇴는 당시 재정압박에 시

90) 민경현, 앞의 글, 1999, p.152.

91) И. А. Носков, 앞의 글, Потом чай ная контрабанда стала год от году увеличиваться и приняла уже такие размеры, что в какие-нибудь 10 лет все жители западных губерний, царства польского и даже главней ши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стали довольствоваться контрабандным чаем, покупая его тай но или явно чрез евреев или же из магазинов, лавок и лавочек в подмешанном виде, вместо кяхтинского чая. Этот переворот в чай ной торговле уронил, во- первых, достоинство чая в России; вообще указал потребителям, что есть другой чай, кроме кяхтинского, и что его можно иметь гораздо дешевле, так как он, будучи избавлен от сухопутной перевозки и пошлины, обходился дешевле кяхтинского на 1 р.

92) 19세기 전반기에 러시아제국은 유럽의 헌병을 자처하며 빈체제의 수호와 혁명 세력의 탄압을 주도했다. 특히 1848년 헝가리 봉기에는 오스트리아제국을 위해 15만의 병력을 투입해 혁명을 진압했었다. 이밖에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19세기 러시아제국의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avid R. Stone, *A Military History of Russia: From Ivan the Terrible to the War in Chechnya*, Praeger, 2006, p.110~126.

93) 따지야나 미하일로브나 켄모쉬나, 앞의 책, p.161.

94) 박지배, 「19세기 1/4분기 해외무역으로 본 러시아의 경제 상황」, 『슬라브 연구』 제 31권 1호, 2015, pp.32~35.

달리는 러시아제국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고 카흐타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 위원회를 창설했다.⁹⁵⁾

그러나 근본적으로 카흐타무역의 쇠퇴는 러시아제국의 국내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런 내부적인 해결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카흐타 국경무역 쇠퇴의 핵심은 중국에서의 영국의 성공이었다.⁹⁶⁾ 그리고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조선업(造船業)의 발전과 항해기술의 성장으로 해상운송의 효율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에 있다.⁹⁷⁾ 그러나 러시아제국이 주도하던 카흐타무역은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에서 기능하는 육로를 통한 국경무역이었다. 따라서 운송수단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러시아제국은 경쟁자인 영국 해상무역을 효율의 측면에서 절대 이길 수 없었다. 이렇듯 육로무역의 한계가 드러나자 러시아제국은 다른 서구열강들처럼 청나라와 개항장을 통한 해상으로의 불평등한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러시아제국은 1848년부터 세 차례나 청나라가 열강에 개항한 중국 남부의 5개 항구⁹⁸⁾에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청나라는 이를 거부했다.⁹⁹⁾

95) A. Сгивнев, *Амурский экспедиция*, Москва. 1978, p214. 민경현, 앞의 글, 1999, p.151에서 재인용.

96) 난징조약에 의거한 합법적인 아편수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밀수와 탈세 등의 방법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성은 어디까지나 폭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다. 1·2차 아편전쟁 사이에 영국의 아편무역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方用弼, 「阿片戰爭以後의 清英關係 (1842~51): 通商과 關稅問題를 中心으로」, 『人文論叢』 Vol.16, 1988.

97) 특히 주목할 것이 바로 증기기관이 항해술과 조선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초창기의 증기기관은 엔진의 효율이 낮고, 따라서 증기기관을 외항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증기기관은 초창기 범선의 보조동력으로 기능하거나, 주로 연안항해용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증기기관의 효율이 증가하고, 증기선을 사용하는 유럽의 식민제국이 세계각지에 거점을 건설하면서, 안정적인 석탄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선이 점차 해운 및 해군의 주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해운의 관점에서 증기선 사용의 발전과정 및 적용과정을 찾는다면 다음을 참조. 페일 어니스트 지음, 『서양 해운사』, 김성준 옮김, 해안, 2004.; 해군선박의 변화의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제임스 조지, 『군함의 역사』, 허홍범 옮김, 韓國海洋戰略研究所, 2004.

98) 광저우(廣州), 샤먼(廈門), 푸저우(福州), 닝보(寧波), 상하이(上海).

이때 러시아제국은 다른 열강에 비해 동아시아로의 진출에서 해상을 이용할 때 여러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큰 약점은 러시아제국의 중심부가 육로로는 다른 서구열강보다 동아시아와 가깝지만, 해로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멀다는 점이었다. 특히 이는 단순 지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러시아가 소유한 항구의 대부분이 부동항이 아니며, 그나마도 대양으로 나가는 항로가 좁고 닫힌 해협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극복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약점이었다.¹⁰⁰⁾ 만약 무역이 성사되더라도 경쟁국인 영국과 프랑스와의 비교 우위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더욱이 중국 남부 개항장으로의 접근마저 차단되면서, 러시아제국은 기존의 육로무역을 대체하면서 다른 서구열강이 이용하는 해로만큼이나 효율적인 무역로를 찾으려고 했다.

한편 동아시아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의 필요성은 단순히 무역로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았다. 빈체제가 끝나갈 무렵부터 러시아제국과 영국은 ‘그레이트 게임’이라 불리는 세계구급인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¹⁰¹⁾ 러시아제국의 입장에서 문제는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이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중심부와는 너무 멀지만, 영국과 같은 해상제국은 해양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영국은 이미 아편전쟁을 통해 해군

99) 최문형, 앞의 책, 2009, pp.62~63.

100) 19세기 러시아제국의 해양중심지는 발트해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흑해의 세바스토폴(Севастополь)과 오데사(Одесса)였다. 이중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부동항이 아니고, 또한 발트해에서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외레순 해협(Øresund), 스토레벨트 해협(Storebælt), 그리고 릴레벨트 해협(Lillebælt)이라는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중심지인 오데사와 흑해함대의 중심지였던 세바스토폴은 부동항이지만 흑해의 출구가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인 이스탄불을 관통하는 아주 좁은 보스포루스 해협(Bogaziçi)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101) 영국과 러시아제국 사이의 대립은 두 국가의 세력권을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다. 그중에서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있었던 대립, 이른바 ‘동방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A. L. Macfie, *Eastern Question, 1774-1923*, Longman, 1996.;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진 두 제국의 대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피터 홉커크, 『그레이트 게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숨겨진 전쟁』, 정영목 옮김, 사계절, 2008.

을 동아시아에 파견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¹⁰²⁾ 반면 러시아제국은 1830년을 시작으로 해군력에 특별한 보충이 없었고, 해군의 활용과 증강은 국가전략에서도 사실상 배제된 상태였다.¹⁰³⁾ 당연히 유럽 러시아로부터 해양을 통한 북태평양지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러시아령 아메리카는 영국령 캐나다와 맞닿아있고, 식민지 내에서는 러시아인들의 통치에 저항하는 원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었으며 지역을 통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러시아인 인구는 너무 적었다.¹⁰⁴⁾ 여기에 더해 안 그래도 적은 인구는 러시아제국 상인들의 모피남획과 전염병유행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¹⁰⁵⁾ 이런 상황은 캄차카(Камчатская) 역시 마찬가지였다. 1840년 캄차카의 중심 도시였던 페트로파블롭스크의 확인된 인구는 남성 454명, 여성 187명으로 합쳐서 641명밖에 되지 않았다.¹⁰⁶⁾ 여기에 더해 오토츠크 해에서 영·미 포경선들의 활동은 갈수록 증가했지만 러시아제국은 해군력의 부재로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¹⁰⁷⁾ 이때 오토츠크 해를 경비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오토츠크 전대(Охотская флотилия)는

102) 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보낸 1차 파견대만 15척의 병영선, 4척의 증기 견보트, 25척의 소형선박이 파견되었다. J. D. Spence, *The Search for Modern China*, W. W. Norton & Company, 1990, pp.153~155.

103) В. С. Геманов,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го флота*, Янтарный сказ, 2009, pp.175~177.

104) 1822년 아메리카의 러시아식민지에서 확인된 인구는 8286명에 불과했고, 이중 러시아인은 44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러시아령 아메리카가 너무 넓고, 행정력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인구가 많다는 사실 역시 참고해야 한다. Доклад Комитета. — Ч. 1. — С. 127. Н. Н. Болховитинов, 앞의 책, pp.12~13.에서 재인용.

105) А. В. Гринёв, “Торгово-промысло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ии в 1825-1840 гг.”,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1732-1867*,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9. p.53.

106)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таблицы о состоянии го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 Великого княжества Финляндского и Царства Польского*, Сове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1842, p.50.

107)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В начале 1840-х годов в Охотском, Беринговом и Камчатском морях появляются целые флоты отважных и дерзких китобоев и вывозят каждый год из наших морей на десятки миллионов пиастров произведений китового промысла.

문서상으로는 존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떤 활동도 하지 못했다.

만약 영국이 청나라에게 한 것처럼 해상을 통해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을 공격해온다면 러시아제국은 이를 자체적으로 막을 수도, 유럽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러시아령 아메리카의 경우 자체적인 농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외부에서의 보급이 필수적이었다.¹⁰⁸⁾ 따라서 러시아제국이 이 지역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존하고자 한다면, 북태평양 연안의 식민지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안전한 보급로가 필요했다. 특히 해양으로부터 유럽 러시아의 핵심부와 격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러시아제국의 가상적국, 특히 위협적인 해상제국으로부터 차단되지 않는 안전한 보급로가 필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19세기 러시아제국에 필요한 길은 너무 먼 유럽 러시아의 핵심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며, 북태평양의 러시아 식민지와 동아시아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었다. 동시에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교통로는 효율적인 무역로이면서 러시아제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급로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특히 운송효율에 한계가 있는 육로가 아닌 새로운 길이어야 했다. 그 점에서 이르쿠츠크를 포함하는 동시베리아 지역은 이 새로운 길의 출발지로 선택되는데 최고의 입지였다. 동시베리아는 1822년 입안된 법안으로 이미 시베리아에는 동시베리아 군정주(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е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ство)가 만들어졌다.¹⁰⁹⁾ 지역은 빠르게 성장했는데 1840년에 이미 이르쿠츠크의 인구만 16773명이었고, 예니세이주에 등록된 거주인구는 2만에 달했다.¹¹⁰⁾ 또한 동시베리아는 카흐타무역

108) Джеймс Р, “Проблема снабж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1732-1867*,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9, pp.238~260.

109) 동시베리아 군정주 설치의 기반이 된 법안은 《시베리아 구베르니아의 행정 기관(Учреждение для управления Сибирских губерний)과 일련의 특별부칙들-규약들,》이다. S.M. 두다료니크 외 23인, 앞의 책, pp.86~87.

110)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таблицы о состоянии го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Великого княжества Финляндского и Царства Польского*, Сове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1842, p10.

의 중심지로 이미 상당한 상업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었고,¹¹¹⁾ 시베리아 내륙 깊숙이 있어 서구 해양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다.

이르쿠츠크를 중심으로 하는 동시베리아 지역이 새로운 교통로의 출발지로 유력해지면서, 이전 세기에 러시아인들이 동시베리아에 처음 진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인접한 아무르 강과 그 유역이 교통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 세기와 비교해 러시아인들이 아무르 강에 기대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6세기의 러시아인들이 아무르 강에 진입한 이유는 시베리아 내륙수로의 연장선에서, 모피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러시아제국은 시베리아의 내륙수로가 아닌, 동아시아와 북태평양 연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로를 기대했다. 이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경제적인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도 포함되어 있었다.¹¹²⁾

111) 특히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의 파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 이는 러시아제국의 많은 자유주의자 등이 유형이라는 명목으로 끌려갔으며, 문화·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르쿠츠크의 도시적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기계형, 「러시아제국의 정체성 구축하기-시베리아의 도시, 건축, 경관」,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No. 49, 2015.

112) John J, Stephan, 앞의 책, p.41.

III.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탐사

1. 아무르 강 하구 탐색

아무르 강이 러시아제국이 원했던 교통로로 기능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만 했다. 첫 번째는 아무르 강의 하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아야 했다. 만약 아무르 강이 시베리아의 다른 강처럼 북극해로 빠져나간다면, 러시아제국이 기대했던 동아시아로의 교통로로 기능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할린이 섬인지 반도인지를 밝히는 작업이었다. 아무르 강의 하구가 태평양으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할린이 아시아 대륙에 연결된 반도고 하구의 위치가 사할린이라는 반도에 막혀있다면 아무르 강을 이용해 바다로 향하는 항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르 강이 근대적인 항해가 가능한 수로인지의 여부였다. 이는 아무르 강이 근대적인 선박이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량이 풍부하고, 강폭이 넓은지의 여부와 수심을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했다. 만약 아무르 강이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근대적인 의미의 수로로 기능할 수 없었다. 러시아제국은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며, 19세기 러시아제국은 바로 이러한 요소 때문에 아무르 강 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17세기에 아무르 강으로 처음 진입한 러시아인인 포야르코프는 이미 아무르 강으로 진입해 타타르 해협을 빠져나와 오호츠크 해로 항해했었다.¹¹³⁾ 이후로도 타타르 해협 인근을 항해했던 러시아인들은 아무르 강의 하구의 위치와 사할린이 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¹¹⁴⁾ 당연히 지역 원주민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네르친스크조약의 성립으로 러시아인들의 관심에서 아무르 강과 그 유역이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지리적인 지식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18세기 내내

113) Б. П. Полевой, 앞의 글, p.70.

114) Б. П. Полевой, 앞의 글, pp.70~75.

러시아인들은 아무르 강으로 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아무르 강 유역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지리적인 지식도 점차 사라졌다. 따라서 19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아무르 강은 러시아인들의 인식에서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상상과 인식들이 혼재되어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에는 러시아인들의 관심 부족과 함께 다른 서구권 항해사들의 탐험실패가 큰 영향을 주었다.¹¹⁵⁾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당시 거의 모든 유럽의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혼란이었다.¹¹⁶⁾

115) 대표적으로 18세기에 타타르 해협 인근을 항해한 가장 유명한 서구권의 항해사는 프랑스의 라페루즈백작(Jean-François de Galaup, comte de Lapérouse)이다. 그는 1785년 브르타뉴(Bretagne)의 브레스트(Brest)에서 출항해 남미대륙을 돌아 동아시아에 도달했다. 이때 그의 탐사대는 제주도를 측량하기도 했고, 동해에서 일본 서해안을 따라 북상해 타타르 해협으로 진입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타타르 해협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날씨가 나뻑으며 썰물이 겹쳐 해협을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라페루즈는 사할린과 아시아 대륙이 이어져 있으며 이를 배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할린 섬 남단을 거쳐 페트로파블롭스크로 나아갔다. 타타르 해협의 통과를 실패한 시점에 피항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만이다. 라페루즈 백작의 타타르 해협에서의 항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장-프랑수아 갈로 드 라페루즈,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 국립해양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연구소 옮김, 예맥, 2016.; Tessa Morris Suzuki, "The telescope and The tinderbox-Rediscovering Lapérouse in the North Pacific", *East Asian History No. 39*, 2014.; 라페루즈보다 더 후대에 이뤄진 탐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잉글랜드의 브로튼이 지휘한 항해다. 1797년 로버트 브로튼 함장이 지휘하는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가 북서태평양연안 조사의 임무를 가지고 타타르 해협과 동아시아 인근을 탐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브로튼 함장의 탐사단 역시 타타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때도 브로튼 함장이 우려한 것은 해협의 수심이 낮고, 모래톱에 선박이 걸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동행한 채프만은 본인들의 선박이 소형이라 모래톱을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브로튼에 의해 무시당했다. 브로튼 함장이 주도한 북태평양의 탐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낙현, 홍옥숙, 「브로튼 함장의 북태평양 탐사항해(1795-1798)와 그 의의」, 『해양도시문화교섭학』 제18호, 2018.

116) 주의할 점은 영국과 프랑스 항해사들은 해협 횡단에 실패한 것이지, 타타르 해협이 지리적인 의미에서 해협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836년 프랑스 파리에서 피케(C. Picque)가 발간한 중국전도(全圖)에는 사할린은 섬으로, 타타르 해협은 막혀있는 바다가 아닌 해협(Manche de Tatarie)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즉 라페루즈와 브로튼의 항해이후 나타나는 영국과 프랑스의 오해는 타타르 해협의 수심이 모래톱에 의해 밀물과 썰



그림 3-1. 1723년 프랑스 지도에 그려진 동해북부,
Guillaume de Lisle, “Carte d’Asie”,
1723.



그림 3-2 프랑스 라페루즈 백작의
해협 횡단 시도와 실패,
comte de La Pérouse, 1799.

19세기에 처음 아무르 강을 탐사한 러시아인은 크루젠슈테른이었다. 러시아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사이기도 한 그의 항해 목표는 북태평양에서 미국과 에도막부와의 무역에 대한 협력과 함께 지리지형의 조사였는데 특히 북태평양 일대의 조사가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¹¹⁷⁾ 비록 최초의 함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1803년 7월에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곧 출항했다.¹¹⁸⁾ 이후 남미와 하와이 등을 거쳐 페트로파블롭스크에 도착했다. 페트로파블롭스크에서 정비를 한 이들 탐사단이 타타르 해협으로 진입한 것은 1805년 8월 12일이었다.¹¹⁹⁾ 출발지가 달랐기 때문에 크루젠슈테른의 항해는 다른 유럽의 탐사단과 다른 점이 있었다. 다른 항해가 일본 서해안을 따라 타타르 해협의 남쪽에서 진입을 시도했다면, 크루젠슈테른은 타타르 해협의 북쪽으로부터 다가왔다. 타타르 해협 인근에서 크루젠슈테른은 아무르 강의 하구가 근처에 있다고 믿었고 마침내 하구와 해협을 탐사하고자 남진했다. 그러나 수심이 7~8m에 불과했고, 조류와 바람이 강해 해협으로

물을 가리지 않고 함선으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지, 이 부분이 완전한 지협(地峽)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117) Е. В. Мезенцев, “Из предыстории организации первой кругосветной экспедиции русского флота в конце”, *Советские архивы*. No. 1. - С, 1987. pp.73-76.

118) В. М. Пасецкий, *Иван Фёдорович Крузенштерн*, Наука, 1974, p.34.

119) В. М. Пасецкий, 앞의 책, p.72.

진입하는데 실패했다.¹²⁰⁾ 크루젠슈테른은 이때 타타르 해협은 존재하지 않고, 사할린은 육지로 아시아대륙과 이어진 반도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이미 이전의 유럽 항해사들이 해협 진입에 실패한 점이 작용했다.¹²¹⁾ 여기에 더해 해협의 염도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사실이 크루젠슈테른의 결심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¹²²⁾ 그러나 그 역시 그의 판단이 정밀하지는 않다고 말하며 이후 다시 탐사대를 파견해 지형을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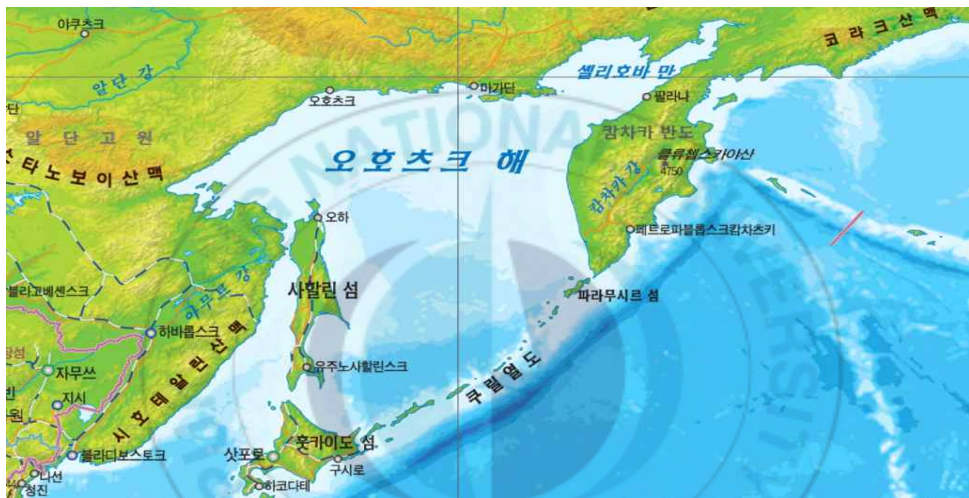


그림 4. 오호츠크 해 연안의 모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크루젠슈테른이 타타르 해협과 아무르 강 하구의 발견에 실패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러시아제국에서는 아무르 강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과

120) В. М. Пасецкий, 앞의 책, pp.72-73.

121) 크루젠슈테른은 앞서 다른 탐험가들이 해협 통과의 실패를 바탕으로 해협이 없다고 결론지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본인의 항해가 앞서 항해자들과 같은 문제를 겪어 해협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122) 크루젠슈테른은 해협이 존재한다면 남풍의 존재로 해협에서 끊임없이 바닷물이 유입될 것이며, 근처에 거대한 강이 있더라도 바다의 염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본인이 있는 수역은 염도가 낮았고, 이미 아무르 강의 하구가 근처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타타르 해협이 아닌 반도로 이어진 타타르만이라 인근에서 염수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3) В. М. Пасецкий, 앞의 책, p.73.

부정이 뒤섞여있었다. 이후 아무르 강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탐사는 미텐도로프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때 미텐도로프의 아무르 강 항해는 다른 탐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크루젠슈테른과 같은 다른 서구 항해사들은 국가주도의 항해사업의 일환으로 아무르 강 하구와 사할린 일대를 조사했었다. 반면 미텐도로프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의 지원을 받은 과학 탐사를 목적으로 했다.¹²⁴⁾ 이때 미텐도로프는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다. 미텐도로프는 동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의 범위를 측정하는 한편 지역의 식생을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아무르강과 제야강 사이의 고원(Амурско-Зейское плато), 산타르스키예섬(Шантарские острова)에 대한 최초의 지질·생물학적 연구를 시행했다.¹²⁵⁾ 하지만 미텐도로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교통로로서의 아무르 강의 가치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미흡했다. 결과적으로 미텐도로프의 탐사대 역시 아무르 강과 태평양이 이어지는 하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미텐도로프는 여러 지류들을 거쳐 아무르 강 본류를 항해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이르쿠츠크로 복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 중·상류를 수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밖에도 아무르 강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탐사는 계속되었다. 러시아국경 표시판을 설치하기 위해 아무르 강의 지류인 고르비차 강¹²⁶⁾을 항해해 알바진까지 갔던 라디첸스키(M. V. Ladyzhenskii)는 지역의 점령을 건의했었다.¹²⁷⁾ 또한 러시아-아메리카 회사에서 파견된 가브릴로프는 아무르 강의 하구를 탐색할 임무를 받았다. 크루젠슈테른과 마찬가지로 가브릴로프

124) Erki Tammiksaar, Ian Stone, "Alexander von Middendorff and his expedition to Siberia (1842 - 1845)", *Polar Record* Vol. 43 No. 3, 2007, pp.196 ~ 198.

125) 미텐도로프의 항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Магидович Иосиф,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ткрытий Т. 4.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нового времени XIX - начало XX в*, Просвещение, 1987.

126) 네르친스크조약에서 국경선으로 정해졌던 고르비차(케르바치)강으로 지금의 아마자르강(река Амазар)이다.

127) 김용구, 앞의 책, pp.81 ~ 82.

는 다시 타타르 해협을 북쪽에서 아무르 강의 하구와 타타르 해협의 존재를 조사했다. 그러나 그 역시 임무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이전의 항해와 마찬가지로 모래톱에 의해 해협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¹²⁸⁾ 가브릴로프는 자신의 항해에 대한 보고서에 아무르 강은 항해가 불가능하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서술했다.¹²⁹⁾ 반면에 일본의 마미야 린조(間宮林藏)는 원주민들의 조언을 활용해 사할린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넜다. 그의 항해성공의 성과는 1823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선박을 타고 내항했던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에 의해 유럽에도 소개되었다.¹³⁰⁾ 다만 이들이 사용한 선박은 원주민이 사용하던 작은 선박에 가까웠고, 더욱이 유럽에 소개되었다고는 하나 지리학에 관심이 많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19세기 전반기 내내 아무르 강과 타타르 해협은 탐사의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무르 강이 교통로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였다. 다만 항해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고, 점차 항해도의 불확실한 많은 부분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브릴로프의 탐사도 실패하면서 러시아제국의 국내에서는 아무르 강에 대한 탐사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더 이상의 탐사를 반대하는 정치인들 역시 존재했다. 이러한 반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이 당시 총리였던¹³¹⁾ 네셀로데(Нессельроде Карл Васильевич)였다. 1846년 12월 15

128) 가브릴로프는 외무부훈령에 대한 응답으로 “퇴적된 모래로 인해 항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측된다.(якобы от наносных песков плавание не только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но и невозможно даже для прохода самых малых судов)”라고 항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1847년 1월 29일 그의 처남에게 강어귀의 북부에서 소형보트를 통해 측량을 했으나 항해가 가능한 통로를 찾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А. И. Алексеев, *Освоение русскими людь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до конца XIX века*, Наука, 1982, p.52.

129) 김용구, 앞의 책, p.81.

130) 마미야 린조의 사할린, 아무르 강 탐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B. L. Walker, “Mamiya Rinzō and the Japanese exploration of Sakhalin Island: cartography and empir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33, Iss. 2, 2006.

일 네셀로드의 “아무르 강을 쓸모없는 강으로 두라”¹³²⁾는 결의안을 아무르 문제를 논의하던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주도했다.¹³³⁾ 이러한 연장에서 1843년에 네셀로데는 오토츠크 연안의 탐사와 일본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했던 푸타틴의 항해를 막았다.¹³⁴⁾

네셀로데를 비롯한 제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아무르 유역의 탐사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결국 계속된 탐사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각 탐사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 그러한 비용은 러시아-아메리카 회사의 재정문제와도 직접 연결된 문제였다. 제국의 수뇌부들은 그러한 탐사가 아무르 강의 하구를 찾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무르 유역과 하구가 원래 교통로로 이용할 수 없는 지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시작했다. 만약 이러한 아무르 강이 경제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가브리엘로프의 보고서를 신뢰한다면 더는 비용을 들여 아무르 강을 탐사하는 것은 경제적인 낭비였다.¹³⁵⁾ 특히 네셀로데는 동아시아보다 동유럽, 특히 흑해에서 영국이 러시아제국의 오스만제국에 대한 압박을 빌미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¹³⁶⁾ 그가 보기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아무르 유역

131) 네셀로데는 1844년부터 1856년까지 러시아제국의 외무장관 겸 총리였으며 외무장관을 사임하고 1862년까지는 총리직만 수행한다. 다만 러시아제국의 총리직(Канцлер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은 외무장관직과 함께 수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요 업무가 외무장관의 업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총리직은 종종 명예직이었다.

132)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Это выдумка Тихменева -- государь никогда въ 1847 г. Муравьеву этого не говорилъ, что ясно доказывается резолюціею Его Величества, сдѣланной на докладѣ гр. Несельроде 15 декабря 1846 г.: "Оставить вопросъ объ Амурѣ, какъ о рѣкѣ бесполезной для Россіи".

133) 백준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서 네셀로데의 발언을 지지한 사람은 재정장관 브로첸코(Фёдор Павлович Вронченко), 동시베리아 총독 고르차코프(Пётр Дмитриевич Горчаков)였다. 백준기, 『유라시아 제국의 탄생 - 유라시아 외교의 기원』, 홍문관, 2014, p.554. 그러나 이때 고르차코프는 동시베리아 총독이 아닌 서시베리아 총독이다. 무라비요프 이전 동시베리아 총독은 야코블레비치치(руперт Вильгельм Яковлевич)이다.

134) А. И. Алексеев, *Любовь, Амур, счастье*, КамчатГТУ, 2003, p.38.

135) 백준기, 앞의 책, p.554.

136) T. C. Lin, 앞의 글, p.7.

에서의 탐사는 그 자체로 청나라를 자극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¹³⁷⁾ 이는 여전히 막대한 이익을 남겨주던 국경무역의 중단을 유발할 수 있었고 네셀로데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¹³⁸⁾ 그의 판단에 제국의 모든 전략적인 시선을 동유럽으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면전쟁을 강요할 수도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꺼린 것이었다.

이렇듯 아무르 강에 대한 러시아제국의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다시 아무르 강과 타타르 해협에 대한 탐사를 시도한 인물이 바로 러시아제국 해군 장교였던 네벨스코이였다. 네벨스코이는 진작부터 지리적 발견에 관심이 많았다. 네벨스코이의 입장에서 행운은 그가 리트케 제독(Фёдор Петрович Литке) 휘하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1826년부터 2년간 러시아의 세계 일주를 주도했던 리트케는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 Павлович)의 5남 콘스탄틴 대공(Константин Николаевич)의 후견인이었다. 니콜라이 1세는 콘스탄틴을 해군전문가로 육성하고자 했고 리트케에게 아들의 교육을 위임했으며 덕분에 리트케는 콘스탄틴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한편 리트케는 그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구성원이었으며 무엇보다 1845년에 설립한 러시아 지리학회(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의 창단 단원이었다.¹³⁹⁾ 네벨스코이는 콘스탄틴 대공과 리트케 제독과 같은 배¹⁴⁰⁾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

137) 백준기, 앞의 책, p.555.

138) 김용구, 앞의 책, p.82.

139) 초창기 러시아 지리학회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를 참조 П. П. Семенов, *История полувек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1845-1895/ Ч. 1. ОТД. 1-3*, Тип. В. Безобразова и К°, 1896.

140) 네벨스코이 본인은 콘스탄틴 대공의 요청과 리트케 제독의 추천의 따라 호위함인 “벨로나”함과 “아브로라”함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저술했다.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По ходатайству Августѣйшаго Генераль-адмирала, Государя Великаго Князя Константина Николаевича и рекомендаціи Ф. П. Литке и Ф. С. Лутковскаго {Я имѣлъ счастье служить съ Его Императорскимъ Высочествомъ съ 1836 по 1846 г. на фрегатахъ “Беллона” и “Аврора” и корабль

다.¹⁴¹⁾ 특히 콘스탄쩨와 네벨스코이는 1844년에 콘스탄쩨 대공이 아르한겔스크에서 건조되어 크론슈타트로 인수되는 선박인 잉게르라만드(Ингерманланд)의 인수원으로 총책을 맡고, 네벨스코이가 이 인수의 보조 겸 실질적 총책의 역할을 맡으면서 더 가까워 졌다.¹⁴²⁾ 이 과정에서 네벨스코이는 지볼트의 기록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일본 항해사들이 사할린에서 아시아로 배를 타고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¹⁴³⁾ 이 시기를 전후하여 네벨스코이는 러시아제국과 여러 서구권 항해자들이 탐사한 자료를 모으는 한편 그 자료를 토대로 아무르 유역 하구의 항해조건을 공부했다.¹⁴⁴⁾ 이후 네벨스코이는 본인이 아무르 강의 하구를 탐색할 수 있음을 자신하게 되었다. 이후 1846년 해군 중령(2급 함장Капитан 2-го ранга)으로 승진하면서 소함대를 지휘할 자격을 갖추었다. 이후 네벨스코이는 북태평양으로 출항하는 운송선 바이칼함(Бай кал)의 함장직에 지원했다.¹⁴⁵⁾

1847년 12월 네벨스코이는 마침내 바이칼함의 함장으로 임명되었다. 함장으로의 네벨스코이의 첫 임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로 보급품을 수송하는 것이었다.¹⁴⁶⁾ 출항을 기다리던 시기에 네벨스코이는 당시 동시베리아 총독으로 임명된 무라비요프를 만났다.¹⁴⁷⁾ 이때 무라비요

"Ингерманландъ"; въ продолженіе этого времени, 7 лѣтъ былъ постоянно вахтеннымъ лейтенантомъ Его Высочества. При вооруженіи корабля "Ингерманландъ", въ Архангельскѣ, былъ помощникомъ Его Высочества, какъ старшаго офицера.

141)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2003, p.26.

142)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2003, p.28.

143)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2003, p.27.

144) 네벨스코이의 저서 『1849-55년의 아무르와 우수리지역에서의 러시아 해군장교의 공훈』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네벨스코이가 수집한, 아무르 강 유역과 타타르 해협에서의 항해에 관한 자료 및 그에 대한 설명이다.

145) 최문형, 앞의 책, p.65.

146)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Этотъ транспортъ назначался на службу въ Охотскъ и на немъ приказано было отправить изъ С.-Петербурга и Кронштадта различные коммисаріатскіе, кораблестроительные и артиллерійскіе запасы и матеріалы для нашихъ сибирскихъ портовъ: охотскаго и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го. Такова была цѣль отправленія транспорта "Бай калъ", выходъ котораго изъ Кронштадта въ море предполагался не ранѣе осени 1848 г.

프는 네벨스코이에게 러시아제국이 아무르 강을 점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⁸⁾ 네벨스코이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강 하구에 대한 조사가 절실하며 자신은 아무르 강이 교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다면서 무라비요프의 생각을 지지함을 밝혔다.¹⁴⁹⁾ 무라비요프와의 대화를 통해 자극받은 네벨스코이는 해군장관 멘쉬코프(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меншиков)대공에게 아무르 강 하구 탐사를 위한 목적으로 바이칼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거부당하고 본래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받았다.¹⁵⁰⁾ 그러나 무라비요프와 네벨스코이는 멘쉬코프에게 아무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멘쉬코프를 설득했다. 결국 멘쉬코프는 이들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바이칼함의 임무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오흐츠크 해를 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도록 차르에게 건의했다.¹⁵¹⁾

147) 무라비요프가 동시베리아 총독으로 임명된 1847년 9월 5일이지만 그의 직위가 정식으로 승인된 시기는 1849년 12월 6일이다. 따라서 무라비요프는 1847년 12월에는 정식승인을 받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무라비요프의 동시베리아 총독 임기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B. В. Грызлова, *Губерни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стория и руководители 1708-1917*, Объединенная редакция МВД России, 2003, p.25.

148) 가브릴로프의 아무르 강으로의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네셀로데를 포함한 최고위의 정부각료 일부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무라비요프는 아무르 강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가브릴로프의 보고와, 그에 따른 결의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149)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Поэтому я полагаю, что тщательное изслѣдованіе ея устья и лимана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настоятельною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Сверхъ того, если Сахалинъ соединяется съ матерымъ берегомъ отмелью, покрывающеюся водою только при приливахъ, какъ показывается на всѣхъ морскихъ картахъ, составленныхъ по упомянутымъ описямъ, т. е. если входъ въ амурскій лиманъ изъ Татарскаго залива недоступенъ, то э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еще болѣе должно убѣждать насъ, что изъ р. Амуръ долженъ существовать выходъ съ достаточною глубиною. Выслушавъ со вниманіемъ мои доводы, Н. Н. Муравьевъ, изъявляя полное сочувствіе къ моему предложенію, выразилъ, что онъ съ своей стороны постарается употребить всѣ средства къ его осуществленію.

150)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p.61.

151)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2003, pp.41~41.



그림 5-1. 네벨스코이, *Всемирная иллюстрация : журнал*
— 1876. — Т. 15. — № 384. — С. 365.
그림 5-2. 무라비요프, *Иркут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м. В. П. Сукачева.*

1848년 8월 21일 네벨스코이를 함장으로 하는 배수량 250톤의 바이칼함이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¹⁵²⁾를 떠나 1849년 5월 12일에 페트로파블롭스크에 도착했다.¹⁵³⁾ 바이칼함이 캄차카로 가는 도중인 1849년 1월 29일에 멘쉬코프가 차르 니콜라이 1세에게 건의한 탐사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¹⁵⁴⁾ 동시에 무라비요프는 네벨스코이에게 아무르 강 탐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¹⁵⁵⁾

1) 페트로파블롭스크에서 사할린 북쪽으로 이동해, 반도 지역에 선박을 위한 피항지 또는 최소한 정박지가 없는지 면밀히 탐사하십시오.¹⁵⁶⁾

152)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속해 있는 구역이자 러시아제국부터 이어지는 해군기지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접하는 핀란드 만에 있는 섬에 있다.

153) 최문형, 앞의 책, p.65.

154)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2003, p.46.

155) 서술한 지침은 네벨스코이의 회고에 기록된 일종의 요약으로, 실제 지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56)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Изъ Петропавловска слѣдовать къ сѣверной части Сахалина, тщательно осмотрѣть, не имѣются ли въ этой части полуострова закрытой для мореходныхъ судовъ гавани или, но край ней мѣръ, рей да.

2) 북쪽에서 아무르 강 하구로 들어가는 출입구, 아무르 강 하구 근처의 상태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하구를 보호할 수 있는 골로바체과 콧¹⁵⁷⁾ 또는 롬베르가 콧주변을 명확히 하십시오.¹⁵⁸⁾

3) 강 하구의 상태를 살펴보고, 근처에 강의 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아무르 만과 그 위의 강 부분을 조사하십시오.¹⁵⁹⁾

4) 아무르 강과 그 하구에 있는 만의 지리적·통계적 용어를 사용해 묘사하십시오.¹⁶⁰⁾

5) 만 남쪽의 상태를 명확히 하는 일; 사할린을 반도로 믿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사할린과 대륙을 가르는 해협을 조사하고, 남쪽에서 하구의 입구를 방어하기에 유리한 장소를 찾으십시오.¹⁶¹⁾

6) 오흐츠크 해와 콘스탄티노플만의 남서쪽 주변을 탐사하고, 이 지역을 오흐츠크 해에서의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정확한(즉, 단순히 지도에 표시) 결과를 이끌어내십시오.¹⁶²⁾

157) 현재의 탐라보곶(мыс Тамлаво).

158)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Определить съ сѣвера подходъ и входъ въ лиманъ р. Амуръ, состояніе амурскаго лимана и нѣтъли въ окрестностяхъ мыса Головачева, или Ромберга, мѣста, гдѣ можнобы было защититъ лиманъ съ сѣвера.

159)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Обслѣдовать устье р. Амуръ и далѣ самую рѣку, гдѣ она течетъ въ опредѣленныхъ своихъ берегахъ и тѣмъ опредѣлить состояніе входа въ рѣку изъ лимана и самой рѣки; кромѣ того узнать нѣтъли при ея устьѣ въ лиманъ или близъ его, въ самой рѣкѣ, мѣста, гдѣбы можно было защититъ входъ въ нее.

160)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Описать берега рѣки Амуръ и ея лимана, близъ устья, въ географическомъ и статистическомъ отношеніи.

161)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Определить состояніе южной части лимана: справедливоли убѣжденіе, что Сахалинъ полуостровъ; если это убѣжденіе ошибочно, то изслѣдовать проливъ, отдѣляющій Сахалинъ отъ материка, а также изслѣдовать, нѣтъли тутъ мѣста, удобнаго для защиты входа въ лиманъ съ юга.

162)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Обслѣдовать юго-восточный берегъ Охотскаго моря и Константнновскаго залива и привести эти мѣста въ ясность и опредѣленность, необходимую для безопаснаго плаванія судовъ въ Охотскомъ морѣ.

7) 아무르 만에서의 상술한 연구는 노선(櫓船)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송선은 콜로바체와 곳 인근에 묘박해야 합니다. 군용·상업용 러시아 선기(船旗)를 수송선이나 노선에 게양해서는 안 됩니다.¹⁶³⁾

8) 연구결과는 가능한 빨리 해양장관인 멘시코프 대공(황제폐하께 전달하고자), 그리고 동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귀관의 임무와 그 결과는 비밀이 유지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¹⁶⁴⁾

9) 9월 15일 즈음에 오흐츠크에 도착하고, 수송선을 타고 시베리아를 거쳐 장교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복귀하십시오.¹⁶⁵⁾

지령은 사할린 근처에서의 항해를 위한 지리적 조사와 아무르 강, 타타르 해협 위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무라비요프는 탐사 선박에 선기를 게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데, 이는 혹시라도 있을 외국세력, 특히 청나라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지시로 보인다.¹⁶⁶⁾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황제와 제국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라비요프가 탐사의 강행을 위해 내린 비공식적인 지시사항이었다.¹⁶⁷⁾ 따라서 네벨스코

163)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Упомянутыя изслѣдованія въ амурскомъ лиманѣ производить на гребныхъ судахъ, транспортъ же долженъ оставаться на якорѣ близъ мыса Головачева; какъ на транспортѣ, такъ и на гребныхъ судахъ не должно быть поднимемо ни военнаго, ни коммерческаго русскаго флага.

164)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О результатахъ этихъ изслѣдованій, при первомъ случаѣ, сколько возможно поспѣшить донести секретно начальнику главнаго морскаго штаба князю Меншикову на Высочайшее возврѣніе, и генералъ-губернатору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Н. Н. Муравьеву, ибо это данное вамъ порученіе и слѣдствія онаго должны оставаться безъ огласки.

165)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Стараться быть въ Охотскѣ благовременно (т. е. около 15 сентября) и оттуда, по сдачѣ транспорта, возвратиться со всѣми офицерами въ Петербургъ, берегомъ.

166) 여기에는 1842년 미텐도로프의 보고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미텐도로프는 “중국이 아무르 유역에 대한 국경시찰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만주족들이 아무르 유역에 거주”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아무르 유역이 아무르 강 중·상류이었고, 네벨스코이의 목적은 아무르 강 하구 탐사에 있었다. 백준기, 앞의 책, p.556.

이가 무라비요프의 지시에 따라 국경지대인 아무르 강 하구를 조사한다면 이는 1846년 가브릴로프의 실패로 인해 내려진 아무르 강을 쓸모없는 강으로 두라'는 특별위원회의 결의를 전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무르 강 탐사를 목적으로 페트로파블롭스크에 온 네벨스코이는, 무라비요프의 지시사항을 토대로 탐사를 강행했다.

페트로파블롭스크로의 보급임무를 수행한 네벨스코이는 1849년 6월 1일에 항구를 떠나 아무르 강 하구와 타타르 해협을 탐사를 위해 사할린으로 출항했다.¹⁶⁸⁾ 6월 7일에는 제4 쿠릴 해협(4-й Курильский пролив)¹⁶⁹⁾ 해협을 통과한 네벨스코이는 북위 51도선을 따라 사할린으로 동진, 6월 11일 섬의 해안가에 도착했다. 이때부터 네벨스코이의 항해는 크루젠슈테른이 작성한 지도에 기초했는데, 주목할 사실은 그의 탐사가 철저히 무라비요프의 지시사항에 맞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사할린의 서해안에서 이렇게 할 피항지를 찾지 못한 바이칼함은 해안선을 따라 북상, 최북단인 엘

167) 이때 무라비요프가 네벨스코이에게 전달한 지침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항목을 담은 내용의 사본에 불과했고, 법령으로의 효력은 없는 상태였다.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2003, p.46.

168) 브로브코(П. Ф. Бровко)와 포노마레프(С. А. Пономарев)는 네벨스코이가 페트로파블롭스크를 5월 30일에 출항했다고 서술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П. Ф. Бровко, С. А. Пономарев, “Г.И. Невельской: Амур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и решение пограничного вопроса на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No. 6 (172),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13, p.258. 반면에 알렉세예프는 바이칼함이 6월 2일에 완전히 페트로파블롭스크를 출항했다고 서술했다.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2003, p.48. 다만 1849년의 네벨스코이의 항해보고서의 사본을 발견해 연구한 팔레보이(Б. П. Полевой)는 네벨스코이가 항해보고서에는 출항일을 5월 31일로 서술했고, 그의 회고록에는 5월 30일, 그리고 바이칼함의 항해일지에는 6월 1일 아침 5시 30분에 출항했다고 기록되어있음을 발견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Б. П. Полевой, “Подробный отчет Г. И. Невельского о его истор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1849 г. к о-ву Сахалин и устью Амура”,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Востока. Выпуск XIII.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бассейна Тихого океана. Книга 2*, 1972, p.120,&p.140. 따라서 본고에서는 항해일지의 기록을 활용해 6월 1일에 페트로파블롭스크를 출항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169) 쿠릴열도의 오토크탄(Онекотан) 섬과 파라무시르(Парамушир) 섬 사이에 있는 해협.

리자베스 곶¹⁷⁰⁾을 향해 나아갔다. 6월 17일에는 엘리자베스 곶을 통과했고, 곧 엘리자베스 곶과 마리아 곶 사이의 만¹⁷¹⁾에서 해안측량을 해 좌표를 구했다. 이때의 측량 좌표와 크루젠슈테른의 지도를 바탕으로 네벨스코이는 골로바체파 곶이 있는 사할린의 북동해안에서 8에서 15마일이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서진하다가 가브릴로프가 아무르하구라 착각해 속임수만(заливом Обмана)이라 불리던 바이칼 만(залив Байкал)을 6월 21일에 측량했다. 6월 23일 아무르 강 하구와 타타르 해협 탐사의 첫 번째 목적지라 할 수 있는 골로바체파 곶 근처에 도착, 근처에 묘박(錨泊)했다.¹⁷²⁾



그림 6. 1850년의 사할린과 아무르 강 하구 주요지명

골로바체파 곶에서 네벨스코이는 아무르 강의 하구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탐사하기 위해, 바이칼 함을 묘박한 상태로 작은 노선을 보내서 주변 지형을 살폈다. 이때 네벨스코이는 크루젠슈테른이 그랬던 것처럼 물의 염분이 낮아지고, 해류의 흐름이 빨라지는 것을 찾게 되었다. 따라서 네벨스코이는 아무르 강의 하구가 근처에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골로바체파 곶 인근의 사할린 해안에는 강의 하구로 보이는 지형이 없었고, 또한

170) Мыс Елизаветы, 사할린의 최북단에 있는 곶이다. 곶의 최북단은 북위 54.42, 동경 142.70에 위치해있다.

171) 현재의 세베르니 만(залив Северный).

172) 네벨스코이, 앞의 책, 1878, pp.79~84.

썰물과 모래톱으로 인해 선박진입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네벨스코이는 탐험의 방향을 아시아대륙의 해안선으로 옮겼다. 롬베르가 곳 인근 해안에 도착한 네벨스코이는 근처 고지에 멘쉬코프산(гора князя Меньшикова)¹⁷³⁾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시 아무르 강 하구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찾았다. 이때 남쪽으로 내려간 코자케비치 중위(П. В. Козакевич)가 테바흐 곳(мыс Тебах)¹⁷⁴⁾ 인근에서 강한 조류를 발견, 주변 고지대에 상륙해 테바흐 곳 서쪽에 약 8마일(약 15km)의 넓은 수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¹⁷⁵⁾ 동시에 사할린으로 파견한 탐사대가 지역 원주민들로부터 남쪽에 해협이 있으며 배를 타고 아무르 강으로 출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할린 섬'에서 아시아대륙으로 원주민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¹⁷⁶⁾

지역원주민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코자케비치를 포함한 탐사대의 정보를 토대로 네벨스코이는 테바흐 곳의 서쪽이 아무르 강 하구의 입구라고 판단했다.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기 때문에 네벨스코이는 테바흐 곳을 향해 다시 탐사대를 보냈다. 네벨스코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자케비치는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테바흐곳 인근의 아무르 강 하구 북해안을 조사했다.¹⁷⁷⁾ 이후 코자케비치의 보고를 들은 네벨스코이는 7월 15일 오전 6시에 탐사대를 이끌고¹⁷⁸⁾ 테바흐 곳을 넘어 아무르 강으로 추정되는 수로로 진입했다.¹⁷⁹⁾ 그날 밤까지 수심을 측정하면서 계속 강을 거슬러 오르던 탐사

173) 현재의 멘쉬코프 곳(мыс Меньшиков) 인근의 고지대.

174) 지금의 트네이바흐(Тней вах) 근처의 곳.

175) 네벨스코이, 앞의 책, 1878, pp.85~87.

176)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2003, p.54.

177) Б. П. Полевой, 앞의 글, 1972, p.123.

178)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2003, p.55.

179) 네벨스코이의 회고록에는 이 출항이 7월 10일에 있었다고 서술했다.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Для приведения в исполнение этого плана, которым бы я мог разрешить вышеупомянутый главный вопрос о степени доступности устья реки и её лимана для входа в них с моря, я 10 июля на трёх шлюпках с тремя офицерами, 반면에 네벨스코이의 보고서에는 7월 15일 출항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Б. П. Полевой, 앞의 글, 1972, p.124.

대는 원주민들이 쿠에그다(Куегда)라 부르는 콘스탄티노프스키 반도(Константинов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¹⁸⁰⁾ 부근에 이르렀다. 네벨스코이는 이곳이 아무르 강의 하구이며 또한 지역의 만과 반도가 항구의 입지조건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더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¹⁸¹⁾

아무르 강 하구의 위치를 발견한 네벨스코이에게 남은 임무는 사할린이 반도인지 섬인지의 여부, 즉 여러 항해를 통해 타타르만(灣)으로 알려진 타타르 해협¹⁸²⁾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었다. 아무르 강의 북쪽을 따라 강을 거슬러 오르던 네벨스코이의 작은 탐사선들은 이번에는 강의 남쪽을 따라 내려갔다. 회고록에 따르면 7월 13일에,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9일에 아무르 강 하구의 남쪽 경계라 할 수 있는 프라흐게 곶(Мыс Пронге)에 도착했다.¹⁸²⁾ 이후 프라흐게 곶을 출발해 동남쪽으로 나아갔다. 동남쪽으로 나아간 이들은 이전의 항해사들이 실패한 것과는 다르게 포기비 곶(Мыс Погиби)과 라자레바 곶(Мыс Лазарева)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데 성공했다.¹⁸³⁾ 이후에는 라페루즈와 브로튼이 도달했던 위치보다 더 남

180) 현재 니콜라옙스크 인근, 지명으로 콘스탄티노프카(Константиновка)가 남아있다.

181)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Слѣдую по этимъ глубинамъ, мы 11 числа обогнули мысъ Тебахъ и вошли въ р. Амуръ: къ вечеру того же числа, не теряя нити глубинъ и слѣдую подъ лѣвымъ берегомъ рѣки, достигли низменна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званнаго мною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имъ. Онъ тянулся поперекъ рѣки къ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му правому ея берегу, гдѣ находилась деревня Аломъ. Мѣстность эта, по изслѣдованію моему, оказалась удобною для береговой защиты.

182)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Утромъ, 13 іюля, мы перевалили отъ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а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дъ правый берегъ рѣки, къ мысу Мео и пошли вдоль него, къ мысу Пронге, южному входному въ рѣку мысу; тутъ мы слѣдовали по глубинамъ отъ 10 до 5 саж. 15 іюля отправились отъ мыса Пронге по лиману Амура къ югу, слѣдую по направленію юго-восточнаго его берега и не теряя нити глубинъ.

183) 이때 네벨스코이가 통과한 해협이 타타르 해협에서 가장 좁은 길목인 네벨스코이 해협(пролив Невельского)이다.

쪽인 북위 51도 40분까지 나아갔다가 1849년 8월 1일 저녁에 바이칼함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¹⁸⁴⁾ 이후 오흐츠크 해 연안과 해안 탐사 및 지도제작, 수심을 측량하고, 당시 오흐츠크 지역 거래소가 있던 아얀(Аян)으로 출발해 9월 8일에 도착했다.¹⁸⁵⁾

아얀에 도착한 네벨스코이는 무라비요프가 내린 지침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그가 조사한 내용을 요약해 다음과 같이 멘쉬코프 대공에게 보고했다.

페트로파블롭스크 항에서 보급임무를 달성하고, 남은 시간을 활용하고자, 1849년 5월 30일 본인은 페트로파블롭스크에서 사할린 동부 해안과 아무르 만으로 갔습니다. 만에서 머무르는 42일간, 우리는 전임자들이 이끌어냈던 지역에서의 잘못된 결론을 정리하고, 오흐츠크 해의 동남쪽 해안을 탐사했습니다. 우리는 밝혔습니다. 1) 사할린 섬, 대륙과 해협으로 4마일 떨어져 있으며 최소 깊이는 5싸젠¹⁸⁶⁾입니다. 2) 아무르 강의 하구는 북쪽에서는 오흐츠크 해 그리고 남쪽에서는 타타르 만(заливъ татарскаго залива)¹⁸⁷⁾ 뿐만 아니라 동해¹⁸⁸⁾와 오흐츠크 해를 향해선박을 통해 오갈 수 있습니다. 3) 오흐츠크 해의 남동해안가에는 니콜라이 만이라고 불리는 모든 바람으로부터 안전한 거대한 피항지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만에서의 경우는 충분한 조사 이후,

184) 바이칼함으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회고록과 보고서의 일자가 일치한다. Б. П. Полевой, 앞의 글, 1972, pp.124~125.;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Къ вечеру 1 августа 1849 г. мы возвратились на транспортъ послѣ 22 дневнаго плаванія, сопряженнаго съ постоян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и опасностями, ибо южные вѣтры, мгновенно свѣжѣя, разводили въ лиманскихъ каналахъ толчею и сулой, которыми заливало наши шлюпки такъ, что часто приходилось выбрасываться на ближайшій берегъ; а чтобы не прерывать нити глубинъ, по которымъ мы вышли изъ рѣки, мы принуждены были выжидать благопріятныхъ обстоятельствъ, возвращаться иногда назадъ, чтобы напасть на нихъ и тогда снова продолжать промѣры.

185)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pp.87~91.

186) 러시아제국시기의 길이단위로 니콜라스 1세 시기 1싸젠(1сажѣнь)은 영국식 7피트로, 미터로는 2.1336m이다.

187) 네벨스코이는 본인이 통과한 타타르 해협을 타타르 만(Татарскаго залива)으로 줄곧 호칭했다.

188) 원문에는 일본해(Японское море).

그 장소가 항구설립에는 불리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¹⁸⁹⁾

보고를 통해서도 보이듯이, 네벨스코이는 전임자들이 범했던 지리상의 오류를 거의 정확하게 수정했다.¹⁹⁰⁾ 그의 수정과 그 전임자들의 탐사를 통해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을 교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후 아무르 강의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러시아제국은 새로운 수로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르 강과 그 유역 문제가 동아시아 국가들, 그중에서도 청나라와의 외교문제가 깊게 얽혀있는 만큼 이후 러시아제국의 지역에 대한 정책은 큰 변화를 맞는다.

2. 탐사 영역의 확대와 탐사의 공인

앞서 서술한 것처럼 러시아제국은 19세기 전반부 내내 아무르 강을 탐사

189)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По сдачѣ груза въ петропавловскомъ портѣ, дабы не упустить остававшегося у меня свободнымъ времени, я 30 мая 1849 г. изъ Петропавловска направился къ восточному берегу Сахалина и въ амурскій лиманъ. Въ продолженіе 42-хъ дневнаго пребыванія нашего въ лиманъ намъ удалось съ Божією помощію разсѣять ошибочныя заключенія объ этихъ мѣстахъ знаменитыхъ моихъ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ъ и привести затѣмъ въ извѣстность весь юго-восточный берегъ Охотскаго моря. Нами открыто: 1) что Сахалинъ островъ, отдѣляющійся отъ материка проливомъ въ 4 мили шириною и имѣющимъ наименьшую глубину 5 сажень; 2) что входъ въ рѣку Амуръ съ сѣвера -- изъ Охотскаго моря и съ юга -- изъ Татарскаго залива, а также, что сообщеніе чрезъ амурскій лиманъ морей Японскаго и Охотскаго, доступно для мореходныхъ судовъ; и 3) что на юго-восточномъ берегу Охотскаго моря находится обширный, закрытый отъ всѣхъ вѣтровъ, рей дѣ, названный мною заливомъ св. Николая.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до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аго залива, то, по тщательномъ изслѣдованіи, онъ оказался неудобнымъ для основанія въ немъ порта.

190) П. Ф. Бровко, С. А. Пономарев, 앞의 글, p.259.

했고, 마침내 1849년 네벨스코이를 통해 교통로로 아무르 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제국은 이 새로운 교통로를 바로 이용할 수는 없었다.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뒤섞여있다. 첫째는 탐험을 주도한 네벨스코이의 항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탐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여전히 넓은 아무르 유역의 일부만이 지리조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르친스크·카흐타조약으로 러시아제국이 아무르 강 유역을 포기한 이후로 계속 아무르 유역은 청나라의 영토였다. 결국 아무르 강과 그 수로가 러시아제국이 원했던 교통로로 기능할 수 있더라도 그 유역이 청나라의 독점적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이라면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을 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강 활용문제는 결국 청나라와의 국경문제이자 외교문제로 바뀐다.

1850년 1월 28일 네벨스코이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복귀하고 열린 특별위원회에서도 네벨스코이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러시아가 아무르 유역으로 팽창하지 않는 것을 걱정했다.¹⁹¹⁾ 네벨스코이는 지역 원주민들인 니비흐(-Нивхи)¹⁹²⁾족이 독립한 상태로 있으며, 청나라의 행정·군사적 영향력을 찾을 수 없었고, 러시아는 적은 수로도 충분히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

191) 특별위원회의 앞서 내무장관 레프 페로브스키(Л. А. Перовскому)는 네벨스코이에게 “네셀로데와 체르니쇼프는 중국과의 분란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비판을 건달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Къ несчастію, графы Несельроде и Чернышевъ, а за ними Сенявинъ (директоръ азіатска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и Бергъ -- члены комитета, въ которомъ будетъ разсматриваться представленіе Н. Н. Муравьева,-- совершенно инаго съ нимъ мнѣнія. Они, опираясь на донесеніяхъ нашей миссии изъ Пекина и донесеніи Врангеля, увѣряютъ Государя, что ваше донесеніе ошибочно и опасаются столкновенія съ китацами, которые будто бы имѣютъ на р. Амуръ огромную силу и крѣпости, весьма достаточныя для огражденія отъ вторженія въ рѣку съ моря. Васъ призвуть въ этотъ комитетъ и вы должны быть готовы выдержать сильную атаку со стороны графа Чернышева и Несельроде, которые сердятся на васъ и на Муравьева за то, что онъ, вопреки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ѣнію, остановилъ экспедицію Ахте и за то.

192) 원문에는 길라크(Гиляки).

조했다.¹⁹³⁾ 그러나 여전히 특별위원회는 네벨스코이의 항해가 가진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지역에서 혹시 모를 청나라와의 분란을 막으려고 했다. 1850년 2월 8일에 하달된 법령은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 법령에는 네벨스코이를 아무르 유역에서 월동지(越冬地)를 만드는 담당자로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¹⁹⁴⁾ 그러나 월동지는 오흐츠크 해 혹은 스차스타만(залив Счастья)에 건설되는 것만 허용되었고, 아무르 강 하구로의 접근은 금지되었다.¹⁹⁵⁾ 또한 그 월동지는 러시아제국의 공식적인 거점이 아닌, 러시아-아메리카 회사의 무역소 형식으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¹⁹⁶⁾ 다만 네벨스코이는 항해의 업적을 인정받아 대령(1급 함장(Капитан 1-го ранга))으로 진급했다.

193)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мнѣ и моимъ сотрудникамъ Богъ помогъ разсѣять эти заблужденія и раскрыть истину. Все, что я доношу, также вѣрно, какъ вѣрно то, что я стою здѣсь.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до китайской силы, то свѣдѣнія объ этомъ, доставляемыя миссіею изъ Пекина, неправильны. Не только китайской силы, но и малѣйшаго китайска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го вліянія тамъ не существуетъ. Инородцы (гиляки), тамъ обитающіе, находятся въ самомъ дикомъ состояніи и вовсе не воинственны, и я полагаю, что не только съ 70-ю, но и съ 25-ю чел. ихъ можно держать въ порядкѣ. Инородцы эти считаютъ себя отъ Китая независимыми и весь этотъ край, при настоящихъ открытіяхъ, т. 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никнуть въ оный съ юга, изъ Татарскаго залива, можетъ сдѣлаться добычею всякаго смѣлаго пришельца, если мы, согласно представленію генераль-губернатора, не примемъ нынѣ же рѣшительныхъ мѣръ. Я сказалъ все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ъ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мною сказаннаго можетъ легко удостовѣриться.

194)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5) Для приведенія въ исполненіе на мѣстѣ этого повелѣнія, а равно и для избранія мѣста для зимовья, командировать въ распоряженіе генераль-губернатора капитана 2-го ранга Невельскаго.

195)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Въ заливѣ Счастія, или въ какой либо мѣстности на юго-восточномъ берегу Охотскаго моря, но отнюдь не въ лиманѣ, а тѣмъ болѣе на рѣкѣ Амурѣ, основать зимовье.

196)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Въ зимовьѣ томъ россійск.-америк. компаніи производитъ расторжку съ гиляками, но ни подѣ какимъ видомъ и предлогомъ не касаться лимана и р. Амурѣ.

월동지 건설을 위한 지리조사의 임무를 받은 네벨스코이는 시베리아를 관통해 아얀으로 갔다.¹⁹⁷⁾ 그는 우선 명령대로 오흐츠크 해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동지를 찾았고, 1850년 6월 29일 페트로프스카야(Петровская)를 건설했다.¹⁹⁸⁾ 그러나 네벨스코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특별위원회의 지침을 무시하고 다시 아무르 강 하구로 나아갔다. 이때 네벨스코이는 통구스어를 할 줄 아는 길라크인 포즈베인(Позвейн)과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통구스인 아파나시(Афанасий)와 동행했다.¹⁹⁹⁾ 이들과 함께 지역 원주민마을에 간 네벨스코이는 거기서 만주족군인과 만났다.²⁰⁰⁾ 이 접촉에서 네벨스코이는 오직 만주족만 아무르 유역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만주족 군인을 상대로 충을 겨누면서 러시아인은 이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²⁰¹⁾ 이후 8월 1일 쿠에그다에

197) Г.И. Невельской 는 3월 27일 이르쿠츠크에 도착해 무라비요프와 만나고, 4월 3일 야쿠츠크에 도착한다. 이후 그는 아얀으로 향한다.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2003, p.61.

198) П.Ф. Бровко, С.А. Пономарев, 앞의 글, p.259.

199)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Орлова, посланнаго сюда, какъ выше сказано, изъ Аяна, зимнимъ путемъ, по распоряженію генераль-губернатора. При Орловѣ переводчиками были гилякъ Позвейнъ, знавшій по-тунгусски и тунгусъ Аѳанасій, говорившій по-русски.

200)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Подойдя къ мысу Тыръ, я увидѣлъ на берегу нѣсколько манджуровъ и толпу инородцевъ: гиляковъ и мангуновъ, до 200 челов.

201)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по повидимому были озадачены появленіемъ нашей шлюпки. Выйдя здѣсь на берегъ въ сопровожденіи переводчиковъ Позвейна и Аѳанасія, я подошелъ къ старшему изъ манджуровъ, котораго гиляки называли джангинъ, что значитъ богатый старикъ, купецъ; этотъ манджуръ сидѣлъ съ важностію на обрубкѣ дерева и тѣмъ показывалъ свое начальническое вліяніе на окружавшую его толпу манджуровъ и инородцевъ. Онъ важно и дерзко спросилъ меня, зачѣмъ и по какому праву я пришелъ сюда. Въ свою очередь и я спросилъ манджура, зачѣмъ и по какому праву онъ здѣсь находится. На это манджуръ еще съ большею дерзостію отвѣчалъ, что никто изъ постороннихъ, кромѣ ихъ, манджуровъ, не имѣетъ права являться въ эти мѣста. Я возразилъ ему, что такъ какъ русскіе имѣютъ полное и

다시 도착한 네벨스코이는 근처 마을에서 모인 원주민들 앞에서 러시아제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그 지역을 차르의 이름을 따서 니콜라옙스크(Николаевск-на-Амуре)라 명명했다.²⁰²⁾ 그리고는 아무르만과 아무르 지역 전체가 러시아제국의 소유라고 선언했다.²⁰³⁾

네벨스코이의 이런 행동은 엄연히 월권행위였고, 네셀로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가 우려하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 그 자체였다. 네벨스코이 스스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본인의 월권행위에 대해 만약 본인이 지시받은 내용만 이행했다면, 러시아제국은 영원히 손해를 볼 것이며 본인은 그런 손해를 감수할 수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²⁰⁴⁾ 1850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복귀한 네벨스코이에 대한 특

единственное право быть здѣсь, то я требую, чтобы онъ, манджуръ, съ своими товарищами, манджурами, немедленно оставилъ эти мѣста.

202)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За симъ, уладивъ къ обоюдному удовольствію жалобы инородцевъ на манджуровъ, съ которыми они ко мнѣ тутъ же обращались, я пошелъ обратно. 1 августа 1850 г. я достигъ мыса Куегда, и здѣсь, помолясь Господу Богу, въ присутствіи собравшихся изъ окрестныхъ деревень гиляковъ и при салютѣ изъ фалконета и ружей, поднялъ русскій военный флагъ. Оставивъ при флагъ военный постъ, названный мною Николаевскимъ и состоявшій изъ 6 челов.

203)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Отъ имени Россій ска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имъ объявляется всѣмъ иностраннымъ судамъ, плавающимъ въ Татарскомъ заливѣ, что такъ какъ побережье этого залива и весь при-амурскій край, до 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съ островомъ Сатлинъ, составляютъ русскія владѣнія, то никакія здѣсь самовольныя распоряженія, а равно и обиды обитающимъ инородцамъ, не могутъ быть допускаемы. Для этого нынѣ поставлены русскіе военные посты съ заливѣ Искай и на устьѣ р. Амуръ. Въ случаѣ какихъ-либо нуждъ или столкновений съ инородцами, нижеподписавшійся, посланный отъ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полномоченнымъ, предлагаетъ обращаться къ начальникамъ этихъ постовъ."

204)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Изъ этого Ваше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о усмотрите, что оставаясь въ Петровскомъ и дѣйствуя только лишь въ предѣлахъ даннаго мнѣ Высочайшаго повелѣнія, опасенія мои, выраженные Вамъ еще въ 1849 г. о

별위원회에서 네셀로데는 네벨스코이가 명령 불복종을 했기에 그를 강등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청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니콜라옙스크를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²⁰⁵⁾ 반대로 멘쉬코프와 무라비요프 등은 그의 행위가 영웅적이고 국가를 위한 행동이라고 변호했다.²⁰⁶⁾ 마침내 특별위원회는 네벨스코이를 수병으로 강등시키고, 니콜라옙스크를 폐쇄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²⁰⁷⁾

그러나 네벨스코이의 월권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로 종결될 러시아의 아무르 유역으로의 진출은 차르 니콜라이 1세의 의지에 의해 큰 변화를 맞았다. 네벨스코이를 접견한 니콜라이 1세는 네벨스코이에게 “애국적인 행동은 고맙지만, 앞으로 월권행위를 하지는 말라”²⁰⁸⁾는 충고와 함께 블라디미르 4급 훈장(орден Святого Владимира 4-й степени)을 수여했다.²⁰⁹⁾ 이렇게 차르가 네벨스코이의 월권행위를 애국적인 행동이라 인정하면서 특별위원회의 분위기 역시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우선 황태자 알렉산드

возможной потерѣ для Россіи навсегда при-амурскаго края, если при настоящихъ открытіяхъ мы не будемъ дѣйствовать рѣшительно, могутъ легко осуществиться.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мною факты подтверждаютъ эти опасенія. По этому вся моральная отвѣтственность предъ отечествомъ пала бы справедливо на меня, если бы въ виду этихъ фактовъ я не принималъ всевозможныхъ мѣръ къ отстраненію этого”.

205) Сергей Пономарѣв, *Книга об адмирале Невельском*, Русск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2015, p.45.

206)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ъ объявилъ комитету, что дѣйствія мои были согласны съ его представленіемъ и мнѣніемъ. Князь А. С. Меншиковъ и Л. А. Перовскій, поддерживая генераль-губернатора, высказали, что кромѣ того, дѣйствія мои были вызваны важным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и, встрѣченными мною на мѣстѣ и что послѣ этого слѣдуетъ не только усилить Николаевскій постъ, но въ устьѣ рѣки, ея лиманѣ и въ Татарскомъ заливѣ необходимо имѣть постоянно военное судно.

207) 민경현, 앞의 글, p.158.

208) П.Ф. Бровко, С.А. Пономарев, 앞의 글, p.260, Спасибо, Невельской, за твой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поступок, но впредь будь осторожнее старайся не превышать данных тебе полномочий.

209) Сергей Пономарѣв, 앞의 책, p.45.

르²¹⁰⁾가 위원회의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됐다. 황태자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니콜라옙스크는 러시아-아메리카 회사의 교역소 신분으로 거점을 유지하는 것이 결정되었다.²¹¹⁾ 또한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외국세력이 아무르 강과 주변 유역을 점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²¹²⁾ 이때 유명한 “러시아의 국기가 게양되었다면, 그것을 다시 내릴 수 없다(—где раз поднят русский флаг, там он спускаться не должен).”라는 표현이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나타났다.²¹³⁾ 이 법안은 1851년 2월 12일 차르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네벨스코이는 복직되어 다시 지역으로 향하는 원정대의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다만 아무르 강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는 여전히 금지된 상태였다.²¹⁴⁾

전제군주국인 러시아제국에서 차르가 네벨스코이를 지지한다는 사실은, 결국 러시아제국 전체의 국정방향이 전환된다는 의미였다. 우선 1851년 2월 15일 원로원 명의로 청나라 정부에 아무르 강 하구에 대한 관리를 러시아제국과 청나라가 공동으로 담당해야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다.²¹⁵⁾ 청나라는 이전까지 러시아제국이 아무르 강 하구로 들어왔다는 사

210) 이후 러시아 차르 알렉산드르 2세(Александр II Николаевич Романов).

211)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Николаевский постъ оставить въ видѣ лавки россі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іи.

212)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아무르 강 하구 부근의 어느 지점이라도 점거하려는 의도를 가진 외국은 러시아와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이곳에서 임의적인 행동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임의적인 행동은 큰 책임을 수반한다.” “Иностраннѣмъ судамъ, которыя обнаружили бы намѣреніе занять какой либо пунктъ около устья рѣки Амуръ, объявлять, что безъ согласія россійскаго и китайскаго правительствъ никакія произвольныя распоряженія въ этихъ мѣстахъ не могутъ быть допускаемы и что каждый изъ такихъ самовольныхъ поступковъ влечетъ на собою большую отвѣтственность.”

213) А. А. Аракчеев, Т. 2 : *Алжирские экспедици,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ип. Т-ва И. Д. Сытина, 1911, p.405.

214) 민경현, 앞의 글, p158. 그러나 이후 네벨스코이의 회고록에는 아무르 유역에 이미 러시아군인 소수를 정착시켰다고 서술되어 있다.

215)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На основаніи Высочайшаго повелѣнія, правительствующій сенатъ, отъ 15 февраля 1851 г., чрезъ трибуналъ внѣшнихъ сношеній, увѣдомилъ китайское

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1851년 5월에 문서를 수령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지했다.²¹⁶⁾ 또한 외국세력들로부터 아무르와 사할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모색하자는 의미의 회담을 청나라에 제안했다.²¹⁷⁾ 이때부터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유역 팽창은 공식적인 국가정책이 되었다.

네르친스크조약 이후 아무르 강 유역은 명확한 국경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청나라의 우선권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차르가 아무르 유역으로의 팽창을 공식화하면서,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 유역에서 청나라와 러시아제국의 근대적이고 정확한 국경선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고자 했다. 이는 아무르 유역에 청나라와 에도막부를 비롯한 여타 외국의 행정력이 어느 수준에서 미치는지를 확인하려는 작업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에서 러시아제국은 이미 1849년부터 아그테(Николай Христианович Агте) 중령을 자바이칼 지역으로 파견했다. 이때 아그테는 자바이칼 지역의 지형과 국경을 조사하는 한편 금·은 같은 광물자원이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는지 추산하기 위한 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²¹⁸⁾ 조사의 책임자인 아그테는 이전에도 바이칼호수 인근의 국경을 조사한 경험이 있었다. 아그테는 1845년 국경에서의 탐사성과를 바탕으로 블라디미르 4급 훈장을 받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탐험가였다.²¹⁹⁾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아그테의 1849년 자바이칼 지역 탐사는, 기존의 아그테의 성과와 미텐도로프의 성과, 무라비요프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아그테는 1849년부터 1852년까지 바이칼호수 부근에서 출발해 오흐츠크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 предположеніи нашемъ имѣть наблюдение за устьемъ р. Амуръ.

216) 김용구, 앞의 책, p.83.

217) 이완중, 앞의 글, p.176.

218) В. П. Зиновьев, “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Забайкаль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1849 - 1852 гг”, *Вестник Том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No. 366, 2013, p.57.

219) А. А. Половцова, *Т.1 :Русский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ловник Аарон - Александр II*, Русским историческим обществом, 1896, p.57.

해의 연안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그의 탐사대에는 지리학자, 천문학자, 그리고 광산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었다.²²⁰⁾ 이들은 아르군 강과 우도이 강 사이에 있는 4개의 산맥에 대한 지도를 그렸다.²²¹⁾ 뿐만 아니라 아무르 강의 좌안에서 아무르 강 본류와 제야 강, 부레야 강, 그리고 아르군 강의 수계를 담은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²²²⁾ 그러나 그의 탐사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그가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의 국경이 확실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청나라와 러시아의 국경조약이 근대적 국경선을 형성한 것이 아니었고 또 지역에서 정확한 지리지식을 바탕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었기에 비롯된 문제였다. 아그테는 네르친스크조약에서 국경으로 설정된 고르비차 강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러시아와 청나라사이의 뚜렷한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²²³⁾ 이렇게 성공적으로 탐사를 끝낸 아그테는 1853년 4월 22일에 니콜라이 1세에게 자신의 탐사성적을 보고했고, 그 공로로 대령으로 진급하게 되었다.²²⁴⁾

아그테가 자바이칼 지역을 탐사하고 있던 시점에 차르로부터 아무르 탐사를 애국적인 행위로 인정을 받은 네벨스코이도 아무르 강 하구 주변으로 복귀했다. 이때 무라비요프는 네벨스코이가 아무르 강 유역으로의 진입과 그곳에서의 군사기지를 설립할 권한이 없음을 주지시켰으나, 네벨스코이는 그의 탐사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²²⁵⁾ 처음부터 탐사에 긍정적이었던 무라비요프 역시 네벨스코이의 권한을 통보했을 뿐, 적극적으로 네벨스코이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다. 네벨스코이는 아시아대륙의 동해안과 아무르

220) А. А. Половцова, 앞의 책, pp.57~58.

221) В.П. Зиновьев, 앞의 글, 2013, p.57.

222) Я. А. Барьенк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работа на юг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IX - начала XX веков как предпосылка управления аграрной колонизацией: практика 1850 - 1860 гг”, *Ой кумена. Регионовед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4(32), 2016, p.74.

223) S.M. 두다료니크 외 23인, 앞의 책, p.158.

224) А. А. Половцова, 앞의 책, p.58.

225) П. Ф. Бровко, С. А. Пономарев, 앞의 글, p.260.

강, 그리고 타타르 해협과 사할린에 여러 장교를 파견했다. 네벨스코이의 탐사대는 지역에서 정확한 지리지형의 조사, 원주민 분포, 그리고 광물 자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네벨스코이 일행이 관심을 기울인 사안은 역시 외국세력이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탐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1852년 2월 20일 보스냐크(Никола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Бошняк) 지휘의 소규모 탐사대가 네벨스코이로부터 명령을 받아 사할린으로 떠났다. 이때 타타르 해협이 아직 얼어있었기 때문에 배가 아니라 개 썰매를 이용했다. 이 소규모 탐사대는 원주민과 교류하면서, 사할린에 있는 니비호족의 일부가 남쪽의 일본인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만 이 교류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민간차원의 교류였고, 대부분 임업과 어업등에서 소규모의 일본인들이 원주민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원주민 마을은 스스로가 일본인들과 거래를 한다고 생각했지, 일본정부에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보스냐크는 일본의 행정력이 사할린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작은 부족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나중에 러시아제국이 사할린이 무주지이며 러시아제국이 먼저 지역을 점유했음을 선언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로 바뀐다.²²⁶⁾

러시아를 제외한 외국의 행정적인 영향력을 찾을 수 없었던 사할린에서와 달리 아무르 강을 따라 이루어진 탐사에서는 청나라의 영향력과 계속 충돌했다. 가령 네벨스코이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소환되어 갔을 때 니콜라옙스크에 남아 있던 러시아인들은 아무르 유역이 청나라의 고유영역이며 강이 녹으면 러시아인들을 공격하겠다는 만주인들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았다. 만주족에 비해 소수에 불과했던 러시아인들은 이 지역에서 특별한 군사행동이나 지리조사를 할 수 없었다.²²⁷⁾ 여기에 더해 만주족 상인들과 교

226) 보스냐크의 1852년 사할린에서의 탐사는 다음을 참조, Никола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Бошняк, “Экспедиция в Приамурский край”, *орской сборник*, Морскимъ Ученымъ Комитетомъ 1858, p180~194.

227)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Что послѣднимъ зимнимъ путемъ

역을 하던 아무르 유역의 원주민을 통해 청나라가 러시아인과 그들에게 협력하는 원주민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²²⁸⁾ 이런 상황에서 네벨스코이는 지역원주민들에게 러시아제국이 청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²²⁹⁾ 또한 탐사 도중 만나는 만주족 상인들과 무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만주인들이 러시아인들에 대한 허위소문을 퍼트렸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네벨스코이가 보기에 아무르 유역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은 민간영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거주 인구도 소규모였다. 특히 아무르 강 북쪽에서부터 스타노보이 산맥(Становой хребёт)사이의 땅에서는 청나라의 행정구역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믿음은 오를로프(Д. И. Орлов)가 우다 강 근처의 원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근처에 만주족과 중국인이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면서 더 강해졌다.²³⁰⁾ 문제는 이 지역이 네르친스크조약으로

Орловъ съ 8 чел. отправился на мысь Куегда, чтобы срубить домикъ для Николаевского поста, но только что онъ началъ рубить лѣсъ для этого, гиляки сосѣднихъ деревень встревожились и объявили ему, что манджуры имъ строго приказали не дозволять русскимъ здѣсь селиться и что изъ Сенъ-Зина, съ открытіемъ рѣки, придетъ сюда большая сила для истребленія здѣсь всѣхъ русскихъ и для наказанія смертію тѣхъ гиляковъ, которые будутъ помогать имъ. Поэтому г. Орловъ, во избѣжаніе непріятныхъ столкновеній, которыя могли бы повредить нашимъ дѣйствіямъ, впредь до прибытія подкрѣплений, оставилъ рубку лѣса и ограничился только лишь тѣмъ, что съ открытіемъ навигаціи послалъ въ лиманъ шлюпку наблюдать за устьемъ рѣки Амуръ.

228)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Что нѣкоторые манджуры, подстрекая гиляковъ дѣлать намъ зло, рассказываютъ, что будто-бы съ открытіемъ рѣки спустится изъ р. Сунгари большая манджурская сила, чтобы, насъ и всѣхъ гиляковъ, которые намъ помогаютъ, перерѣзать.

229)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Они скоро поняли, что мы не хотимъ благодѣтельствовать ихъ нашими реформами, несродными имъ и несоотвѣтствующими и, наконецъ, что мы глубоко вникаемъ въ ихъ нравы и обычаи и манджуровъ не боимся.

230)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не знаютъли они въ этихъ мѣстахъ какихълибо иныхъ каменныхъ столбовъ, которые осматриваютъ манджуры или китайцы, они отвѣчали, что никакихъ подобныхъ

정해진 청나라 영역이라는 사실이었다. 우선 네벨스코이는 자연국경인 스타노보이 산맥과 우다 강의 정확한 지리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오를로프는 산맥과 강의 수원지 등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네벨스코이는 네르친스크조약의 국경협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²³¹⁾ 여기에 더해 네벨스코이는 미텐도로프가 발견한 국경 비석을 러·청이 합의사항의 결과로 건설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주민들의 자의적 경계표시이고 이를 미텐도로프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네벨스코이는 이러한 요소, 즉 1689년 협상에서의 지리적인 인식이 실제와는 전혀 달랐고, 자신의 탐사에서는 그러한 국경비석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아무르 강 남쪽에 러시아인 주거지가 있다는 소문을 자신의 회고록에 제시하면서,²³²⁾ 러시아제국과 청나라가 아무르 유역에서의 국경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столбовъ здѣсь нѣтъ и никогда не бывало; манджуровъ же и китайцевъ они никогда и не видали въ этихъ мѣстахъ, и не слышали даже, чтобы они когдалибо сюда прѣзжали.

231)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что Хинганскій хребетъ, принятый, по нерчинскому трактату 1689 года, подтвержденному трактатомъ 1721 года, за границу между Россією и Китаемъ, отъ вершины рѣки Уди направляется не къ сѣверо-востоку, какъ ошибочно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полагали и какъ означалось на всѣхъ картахъ, а къ югозапад.

232)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1) что Хинганскій хребетъ, принятый, по нерчинскому трактату 1689 года, подтвержденному трактатомъ 1721 года, за границу между Россією и Китаемъ, отъ вершины рѣки Уди направляется не къ сѣверо-востоку, какъ ошибочно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полагали и какъ означалось на всѣхъ картахъ, а къ юго-западу. 2) Что въ тугурскомъ и удскомъ краѣ, а равно по южному склону Хинганскаго хребта, никакихъ пограничныхъ столбовъ или знаковъ, какъ представлялъ академикъ Мидендорфъ, нѣтъ и никогда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а что, вѣроятно, кучи камней въ видѣ столбовъ, сложенные инородцами для означенія стойбищъ и удобныхъ переваловъ, г. Мидендорфъ принялъ за пограничные знаки. И, наконецъ, 3) что слухи о населеніи русскихъ около южнаго колѣна рѣки Амуръ, по словамъ инородцевъ, справедливы.

결국 네벨스코이는 사할린, 아무르 강 하구 주변 지역, 넓게는 아무르 강 좌안 전체와 타타르 해협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이 특정 국가가 지배하지 않는 무주지(無主地)라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네벨스코이가 무라비요프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난다. 그는 국경문제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이제 저는 중국이 왜 이 땅을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지 이해합니다. 그들은 1689년과 1721년의 국제조약을 엄격히 지키고, 따라서 지역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²³³⁾라고 서술했다. 네벨스코이는 청나라가 러시아제국과의 네르친스크·카흐타조약에서 아무르 강 하구의 북쪽을 영토라 인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자동으로 아무르 유역의 좌안이 러시아제국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혹은 그 지역이 비록 조약이 이루어진 당시에 러시아제국의 영역이 아니었을지라도, 청나라가 그 지역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먼저 선점한 러시아제국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믿었다. 이는 네벨스코이 뿐 아니라 탐사대에 속한 대부분의 군인들이 공유하던 생각이었다. 그들은 아무르 강 좌안과 사할린 섬, 그리고 아무르 강 하구부터 한반도까지의 모든 해안 지역이 러시아제국의 영토여야 한다고 생각했다.²³⁴⁾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역시 이들이 탐험한 지역에서 외국세력의 영향력을 찾을 수 없었다는 판단에 있다.

아그테, 네벨스코이, 보스냐크와 오를로프 등의 러시아 탐험가들은 바이칼호수부터 사할린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특정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곧 러시아제국이 이 넓은 지역에 행정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지역을 러시아제국이 점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233)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Теперь мнѣ совершенно понятно, почему Китай не признаетъ этотъ край своею принадлежностью и оставляетъ его безъ всякаго надзора: онъ строго держится трактатовъ 1689 и 1721 гг. и потому не считаетъ этотъ край своимъ.”.

234) Никола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Бошняк, “Занятие части о-ва Сахалина и зимовка в Императорской гавани”,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Морскимъ Ученымъ Комитетомъ 1859, pp.399~400.

바뀌었다. 탐사 일선에 있던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네벨스코이의 아무르 강 탐사를 지지했던 고위 정치인들과 통하는 부분이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이런 탐사가 니콜라이 1세의 지원을 받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행정적인 공백지를 러시아제국이 점유해야 한다는 믿음은 곧 러시아제국의 국가정책이 되었다. 또한 러시아제국에게 아무르 강 유역 탐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교통로 확보였던 만큼, 교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의 안전, 자원, 대외정책 등도 시행되어 졌다. 결국 아무르 유역을 점유하기 위한 준비로 여러 행정적 작업이 실시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아무르 수로이용을 위한 행정적 준비

아무르 유역을 러시아제국이 점유해야 한다는 탐험가들의 생각에 즉각 반응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은 동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였다. 그는 지역의 개발을 위한 행정적 작업을 이미 아무르 강의 정확한 지리적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도 시행하고 있었다. 무라비요프가 동시베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승인을 기다리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체류하던 시절에, 무라비요프는 지역에 관한 상당한 분량의 문서와 감사자료, 그리고 보고서를 접했다.²³⁵⁾ 이때 무라비요프가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그중에서도 금의 채굴이 중요했는데, 1848년 시베리아의 금 생산량은 러시아 전체 금 생산의 80%에 달했다.²³⁶⁾ 그러나 동시베리아는 러시아 중심부와 너무 먼 거리와 넓은 땅, 부족한 인구의 문제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욱이 카흐타에서의 국경무역둔화와 오호츠크 해와 북태평양에서의 외국 포경선의 출현으로 대표되는 외세의 위협은 동시베리아지역에서 러시아제국의 영향력

235) Архипова Алена Ивановна, “Я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ях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Н.Н. Муравьева”, *Общество: философия,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No. 9, 2019, p.57.

236) 민경현, 앞의 글, p.154.

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무라비요프는 판단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방책을 찾던 무라비요프에게 교통로로 아무르 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러시아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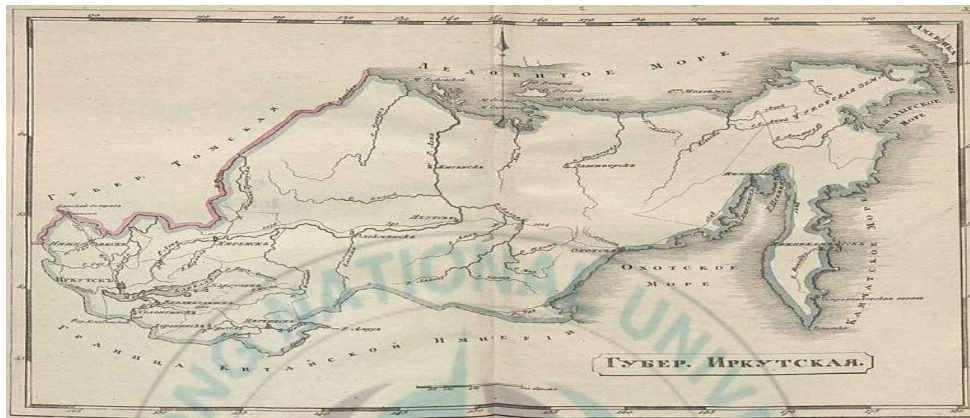


그림 7. 1808년 이르쿠츠크 구베르니아²³⁷⁾

(Иркутская губерния) 지도,

Карманной почтовой атлас всей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разделенной на губернии, с показанием главных почтовых дорог, 1808.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라비요프가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면서 공식적으로도 러시아의 영역이지만, 아직 뚜렷한 국가기관이 없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지방 행정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당시 동시베리아 주는 이르쿠츠크를 중심으로 캅차카까지 이르는 거대한 크기의 행정구역이었다. 그러나 이는 곧 각 지역에 미치는 행정공백이 크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동시베리아의 주도였던 이르쿠츠크를 제외하고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무라비요프는 지방행정을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무라비요프가 처음 관심을 가진 곳은 야쿠츠크 일대였다. 대부분의 거주민이 러시아어가 아닌 야쿠트어를 구사하는 도시였던 야쿠츠크는 이 시기 자체적인 행정구를 가지지 못한 채

237) 동시베리아 군정주의 모체가 된 지역단위.

1822년부터 동시베리아 주에 귀속된 도시였다.²³⁸⁾ 그러나 지역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라비요프는 야쿠츠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방 행정기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1851년 6월 11일 야쿠츠크에 야쿠츠크 주(Якутская область)가 설치됐다.²³⁹⁾



그림 8. 1850년 이후 동시베리아에서 분리되어 형성된 주,
Андрей Бур, 2016.

캄차카주의 설립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시베리아 총독으로 승진된 직후인 1849년 5월 15일 니콜라이 1세와의 대면을 통해 무라비요프는 차르로부터 오흐츠크 해와 캄차카를 방문할 것을 주문받았다.²⁴⁰⁾ 차르의 권유를 통해 이루어진 답사에서 무라비요프는 오흐츠크 해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 포경선의 증가를 목격할 수 있었다.²⁴¹⁾

238) Архипова Алена Ивановна, 앞의 글, pp.57~58.

239) Л. М. Дамешек, И. Л. Дамешек, “Сибирская управленческая комбинация Н. Н. Муравьева-Амурского и образование Забайкальской и Якутской областей”, *История*, No. 29, 2019, p.36.

240) М. Х. Яргаев, “Становление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конец XVIII - начало XX вв.)”, *Вестник ТОГУ* No. 29, 2013, p.305.

241) Л. М. Дамешек, И. Л. Дамешек, 앞의 글, p.35.

이는 청나라에 대한 서양의 군사적 성공과 더불어 오흐츠크 해 연안을 러시아가 방위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했다. 이 두려움은 동시베리아의 행정중심지와 북태평양 연안, 특히 캄차카가 너무 멀어 군사적·행정적 지원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과약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을 때, 러시아제국은 캄차카에 대한 외국 세력의 침입을 막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무라비요프는 오흐츠크 및 캄차카 지역의 영토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1849년 12월 2일 지역 행정구를 분리한다는 법령이 반포되었다.²⁴²⁾ 이를 통해 캄차카 반도와 오흐츠크 해 연안의 기쭈가(Гижига)지역을 총괄하는 지방 행정기구로의 캄차카 주(Камчатская - область)가 탄생한다.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주도는 페트로파블롭스크가 선정되었다.²⁴³⁾

다음으로 무라비요프가 관심을 가진 지역은 청나라와 명확하지 않은 국경지대로 남아 있던 바이칼호수의 동쪽, 이른바 자바이칼 지역(Забайкальский)이었다. 당시 자바이칼 지역은 뚜렷한 국가행정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청나라와의 무역 등의 이유로 몇몇 도시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러시아제국은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자바이칼 지역에 행정력을 확대하는 것을 시도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인물 역시 무라비요프였다. 무라비요프의 청원을 바탕으로 1851년 3월 17일에 아무르 자바이칼 코샤크 연대를 창설되었다.²⁴⁴⁾ 새로 편성된 연대는 총 4만 8천 명 수준으로, 이는 농민과 군인을 포함한 숫자였다.²⁴⁵⁾ 그 직후인 1851년 6월 20일에는 중국 국경에서의 국경, 세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를 지역 차원에서

242) М. Х. Яргаев, 앞의 글, p.305.

243) М. Х. Яргаев, 앞의 글, pp.305~306.

244) Ю. В. Аргудяева, “Роль Н. Н. Муравьева-амурского в переселении крестьян и казаков в низовья Р. Амур”,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No. 5 (13), 2009, p.4.

245) А. А. Буркалёва, “Особен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первых амурских сплавов”, *Вестник Приаму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Шолом-Алей хема* No. 2(11), 2012, p.14.

관리하기 위한 카흐타 자치구(Кяхтинское градоначальство)²⁴⁶⁾가 만들어졌다.²⁴⁷⁾ 이후 상기한 자치구를 제외한 자바이칼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 단위로 자바이칼 주(Забайкальская область)가 1851년 7월 11일에 형성됐다.²⁴⁸⁾ 한편 이 당시 자바이칼지방의 대표적인 도시는 베르호네우딘스크(Верхнеудинск)²⁴⁹⁾와 네르친스크였다.²⁵⁰⁾ 그러나 새로운 행정구단성에 맞게 새로운 행정구를 통제하는데 적합한 새로운 행정중심지가 지정되었다. 그 도시가 바로 네르친스크와 베르호네우딘스크를 연결하는 길의 중간 지점에 있는 인구 659명에 불과했던 치타(Чита)다.²⁵¹⁾ 이 과정에서 무라비요프와 러시아제국은 바이칼 호 동쪽에서 군사·행정 양 측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고, 바이칼 호수부터 아무르 강 상류 인근 지역까지 자국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1853년 러시아제국의 차르 니콜라이 1세는 고르비차 강에서부터 야블로노비 산맥(хребту Яблоневоу)을 따라 올도이 강에 이르는 왼쪽영역, 그리고 투쿠린그르 산맥(хребту Тукурингра)과 드작디 산맥(хребту Джагды)을 따라 아무르 강과 쑹화강이 만나는 공간까지의 좌안이 러시아제국에 속한다고 선언했다.²⁵²⁾

무라비요프가 바이칼호수 동쪽에서 러시아제국의 행정·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열중하고 있을 때, 네벨스코이는 여전히 아무르 강 하구 인근의 연안과 사할린을 탐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1852년 여름 타타르 해협일대가 해빙되면서 네벨스코이는 다시 탐사대를 파견했다. 이때 네벨스코이가 주목한 자원이 바로 석탄이었다. 1852년 봄, 보스냐크는 사할린에

246) 당시 지정된 지역은 트로이츠크프스크 시(город Троицкосавск), 카흐타 마을(слобод Кяхтинской), 우스티 카흐타(Усть-Кяхтинской)이다.

247) Л. М. Дамешек, И. Л. Дамешек, 앞의 글, p.36.

248) 발의된 법령은 다음을 참조, *Россия. Законы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Собрание 2-е, 1851*, pp.476~480.

249) 현재의 울란-우데(Улан-Удэ).

250) М. Х. Яргаев, 앞의 글, p.306.

251) Л. М. Дамешек, И. Л. Дамешек, 앞의 글, p.38.

252) А. А. Буркалёва, 앞의 글, p.14.

석탄이 풍부한 지역이 있다고 보고했었다.²⁵³⁾ 이 보고에 자극받은 네벨스코이는 보로닌(А.И. Воронин)을 다시 사할린으로 파견해 이를 확인하도록 했는데, 보로닌은 보스냐크가 발견했던 사할린의 석탄매장지를 찾았고, 그것이 상당히 경제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²⁵⁴⁾ 보로닌에 따르면 두에 만(бухты Дуэ)과 므가치(Мгачи) 사이의 만²⁵⁵⁾이 선박이 정박하기 좋고, 근처에 석탄이 풍부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²⁵⁶⁾

253) 보스냐크는 사할린섬을 관통했는데, 이때 상당히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발견한다. 이후 네벨스코이는 길리코프(Гиляковъ)를 통해 이 소식을 전달받는다. Никола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Бошняк, 앞의 글, 1858, Въ концѣ 1851 и началѣ 1852 года капитанъ Невельской и подпоручикъ корпуса флотскихъ штурмановъ Орловъ, получили свѣдѣнія чрезъ Гиляковъ, что на запад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около мыса Погоби, находятся по берегу куски угля, который горитъ и изъ котораго Гиляки дѣлають пуговицы.

254) Шерил Коррадо, “«Сахалин – остров!»: измене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карте Приамурья (1848–1854)”, *Россия и АТР* No. 4(86), 2014, p.113.

255) 보로닌이 선박이 정박하기 좋다고 언급한 이 지역은 훗날 알렉산드르 2세 치세에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곳이 바로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키(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로 1947년 까지 사할린의 행정중심지였다.

256)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Вслѣдъ за Березинымъ прибыль съ Сахалина Воронинъ; онъ донесъ, что бухты Дуэ и Вяхту открыты для южныхъ, сѣверныхъ, сѣверо- и юго-западныхъ вѣтровъ, но что стоянку судовъ въ бухтѣ Дуэ можно сдѣлать удобною; стоитъ лишь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ифами, идущими отъ берега, именно провести по этимъ рифамъ насыпи, которыя защищали бы бухту отъ упомянутыхъ вѣтровъ. Широта мыса Дуэ, по наблюденію Воронина, оказалась та-же самая, какъ и у Бошняка. Грунтъ въ бухтѣ вообще надежный, берега приглубы и изобилуютъ каменнымъ углем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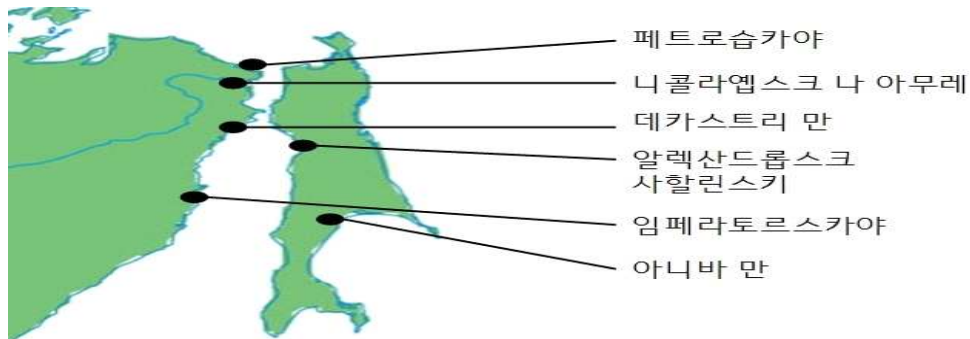


그림 9. 타타르 해협 인근의 주요 해안 거점

한편 니콜라이 1세는 1853년 아무르 강과 오희츠크 해 그리고 사할린에서 일련의 전초 기지를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²⁵⁷⁾ 이때 니콜라이 1세는 러시아제국이 사할린과 아무르 강의 하구를 차지해야 하며, 러시아-아메리카 회사가 사할린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믿었다.²⁵⁸⁾ 이를 위해 차르는 네벨스코이의 후원자이자 열렬한 지지자인 콘스탄틴 대공을 파견해 무라비요프에게 러시아-아메리카 회사를 통한 사할린의 점유를 지시했다.²⁵⁹⁾ 무라비요프는 차르의 이런 지시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함대가 사할린 주위에 나타나면서 무라비요프는 일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니콜라이 부세(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Буссе)를 네벨스코이에게 보내고 그를 통해 차르의 의중을 전달하도록 했다. 네벨스코이에게 차라의 전언을 전달한 부세는 이후 사할린 남쪽의 아니바 만(заливе Анива)으로 갔고, 그곳에 거점을 건설한 뒤, 사할린 전역이 러시아제국의 영토라고 선언하게 되었다.²⁶⁰⁾

257) 민경현, 앞의 글, p.158.

258) Шерил Коррадо, 앞의 글, p.117.

259)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Россі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іи занять островъ Сахалинъ и владѣть имъ на тѣхъ же основаніяхъ, какъ владѣтъ она другими землями, упомянутыми въ ея привиллегіяхъ.

260) Шерил Коррадо, 앞의 글, p.113., 이때 사할린은 러시아제국정부의 소유가 아닌 러시아-아메리카회사의 사유지로 정복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회사가 사할린 섬의 양도를 오직 러시아제국에게만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회사의 사유지였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이 조항에

탐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정복은 사할린뿐 아니라 아무르 강(река Амгунь), 데카스트리 만²⁶¹⁾, 키지 호수(озеро Кизи)를 포함하는 아무르 강 하구와 우수리 강의 동안의 해안가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²⁶²⁾ 이중 데카스트리 만 인근에 있던 보스냐크는 데카스트리 만과 키지 호수 사이에 있던 원주민들의 키지 마을을 점령하는 한편, 그곳 원주민들에게 이 일대가 러시아제국의 영역이라고 선포했다. 이후 복귀한 보스냐크에게 이러한 보고를 들은 네벨스코이는 이러한 행동이 매우 ‘뻔뻔한’ 행동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동이 러시아가 우수리 지역을 정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²⁶³⁾ 이후 1853년 4월 28일에 보스냐크는 데카스트리 만을 출항해 남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5월 23일 현재의 소비츠키야반(Советская Гавань)이 있는 하지히 만(залив Хаджи)으로 들어갔다. 훗날 이 지역은 네벨스코이에 의해 항구가 건설되었는데, 지역을 점령한 것에 대한 반대파의 반발을 예상하고는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주요 지형에 차르 일가의 이름을 붙였다. 항구는 차르의 항구라는 뜻의 임페라토르스카야 항구(Императорская Гавань)가²⁶⁴⁾ 되었고, 항구에서 가장 중요한 만의 이름은 황후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롭스카야 만(залива Александровской)으로 정해졌다.²⁶⁵⁾ 사할린의 거점건설 및 점령, 그리고 임페라토르스카야 항구의 건설은 바로 차르에게 보고되었다. 1853년 4월 이로써 사할린과 동해 연안에서 네벨스코이가 기여한 거점항구들은 차르에 의해 정식으

대해서는 네벨스코이, 앞의 책, 1878, Компания не должна допускать на Сахалинъ никакихъ иностранныхъ заселений, ни произвольныхъ, ни по взаимному соглашению и можетъ передать сей островъ только правительству.

261) 현재의 치하체파 만(заливе Чихачева).

262)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1982, pp.57~58.

263)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pp.199~200.

264) 원래 명명된 이름은 니콜라이 1세를 기리는 차원에서 니콜라엠프스크였지만 이후 차르를 의미하는 임페라토르로 개칭되었다.

265) 임페라토르스카야 항구 건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Б. П. Полевой, “Открытие и заселение русскими залива Хаджи в 1853 г. (Из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ой Гавани)”,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Востока. Выпуск XX.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бассейна Тихого океана. Книга 4*, 1979.

로 승인되었다. 그런 중앙정부의 반응은 1854년 2월 17일 무라비요프를 통해 네벨스코이에게 전달되었다. 이때 네벨스코이는 차르가 항구 지역을 차지하고 항구를 건설한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²⁶⁶⁾

이렇듯 탐사와 정복이 병행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 상류부근과 그 주변의 지류들을 포함하는 넓은 유역, 그리고 아무르 강 하구 주변과 사할린에서 군사·행정에 필요한 거점을 건설할 수 있었다. 몇몇 핵심 정치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점과 행정구들은 마침내 차르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승인은 다시 지역에서 활동하던 지방 행정가들을 자극했고, 그들의 확장 의지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무르 강 유역은 비록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사실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제국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게 되었다. 이는 곧 아무르 강을 교통로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행정적 안전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되었다.

266) Шерил Коррадо, 앞의 글, p.116.

IV.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점유

1. 푸타틴의 대청(對淸)·대일(對日) 교섭

러시아제국이 행정구 설치와 거점 건설을 통해 점차 아무르 유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르 유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지배하는 지역이 아니었다. 따라서 아무르 유역의 점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는 동아시아국가들과 근대적인 외교관계 형성을 시도했다. 이때 러시아제국이 추진한 새로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아무르 유역에서 근대적인 국경의 설정과 동아시아 시장 진출이었다.

국경문제의 경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거나 접하게 될 모든 국가가 얹혀있는 문제였다.²⁶⁷⁾ 또한 러시아는 아무르 강에 주목하게 된 계기였던 동아시아 시장, 이 시기 청나라는 카흐타조약을 근거로 현재의 국경을 유지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한편 일본의 에도막부는 본래의 쇄국정책을 유지하면서 오직 네덜란드에 한해 제한적인 외교·무역 관계를 허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점차 강력한 해군을 운용하는 서구국가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는 프랑스가 1749년 맺은 통상관계를 근거로 무역·가톨릭 선교에 관한 권한을 가졌으며 이를 이용해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다.²⁶⁸⁾ 청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에게 군함의 영해진입을 허가하는 등 상당한 이권을 내준 상태였다.²⁶⁹⁾ 에도

267) 이 문제는 1860년부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조선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다. 두만강 하류에 녹둔도(鹿屯島)와 관련한 영토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조선시대 녹둔도의 지리적 변화와 그에 동반한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이왕무, 「조선시대 녹둔도(鹿屯島)의 역사와 영역 변화」, 『한국학』 34권, 2011.

268) 정남모,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형성에서 아시아 프랑스어권국가들의 독립과 자구책 모색까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39집, 2007, pp.391~392.

269) 김주삼, 「아편전쟁과 동아시아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중·일의 대응방식 분석」, 『아시아연구』 제 11권 13호, 2009, p.91.

막부는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부터 전면적인 개항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한편 조선은 서구열강과 직접적인 통상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선박이 해안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다.²⁷⁰⁾ 특히 1845년 영국 사마랑함이 거문도 일대에 상륙, 지역을 탐사하고서 거문도에 해밀턴 항(Port Hamilton)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건은 1850년에는 이미 러시아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²⁷¹⁾ 따라서 러시아는 다른 열강에 비해 동아시아에서 뒤쳐질 것을 우려했는데, 특히 영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팽창을 경계했다.

앞서 수차례 서술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느끼는 영국의 위협이 세계적인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선이었다면, 미국의 위협은 동아시아 지역적인 문제였다. 1843년 미국은 청나라의 문호개방에 참여하면서 동아시아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1846년에는 청나라를 개항시킨 제임스 비들(James Biddle)을 일본으로 파견해 일본의 개항을 요구한 전적이 있다.²⁷²⁾ 미국이 일본의 개항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태평양 포경산업의 성장과 청나라와의 교역증가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 서부해안의 발전과 맞물려 미국 서해안과 동아시아를 왕래하는 선박의 증가를 이끌어냈다. 자연스럽게 중간기항지 및 피항지로 일본의 가치가 올라갔다.²⁷³⁾ 문제는 미국의 이런 행보가 이제 막 사할린과 아무르 유역에 진출하는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²⁷⁴⁾ 1852년 3월에 미국의회는 에도 막부의 개항을 위해 원정대를 구성

270) 김혜민, 「19세기 전반 서양 異樣船의 출몰과 조선 조정의 대응」, 『진단학보』 제131호, 2018, pp.159~161.

271) 이영호, 「거문도가 경험한 제국주의와 근대」, 『도서문화』 제48집, 2016, pp.105~110.

272) 제임스비들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David Foster Long, *Sailor-Diplomat: A Biography Of Commodore James Biddle, 1783-1848*, Northeastern, 1983.

273) 김남균, 「19세기 미국의 포경업, 태평양, 그리고 아시아」, 『미국학논집』 45권 1호, 2013, p.19.

274) 메르카토르 도법을 사용한 평면지도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사할린 남부의 유즈노사할린스크(Южно-Сахалинск)와 일본의 요코하마까지 직선거리를 비교했을 때, 도쿄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게 보인다. 그러나 지구는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직선거리는 유즈노사할린스크가 도쿄보다 약 1,000km 더 샌프란시스코에 가깝다. 이는 곧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중간 기항지로 일본

해 파견할 것을 결의했다.²⁷⁵⁾ 그리고 이 결의는 미국이 동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넘어, 미국이 동아시아로 오는 항로의 중간기점이 될 수 있는 사할린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는 일이라고 러시아제국의 수뇌부는 판단하고 있었다.²⁷⁶⁾

이전까지 러시아제국에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상대는 청나라였고,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외교협상의 목표는 대청 국경무역을, 개항장을 통한 해상자유무역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제국의 협상요청은 대부분 청나라와의 외교창구인 카흐타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팽창으로 인한 위협에 직면한 러시아제국은 이제 청나라뿐만 아니라 에도막부와의 사할린에 관한 국경문제와 일본의 개항을 두고 시급하게 외교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당연하게도 일본과의 교섭은 중국과의 국경이면서 전통외교의 중심지이지만, 몽골초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카흐타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문제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청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모두와 교섭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사절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때 교섭의 대표자로 선정된 인물이 푸타틴이다.²⁷⁷⁾

푸타틴은 1844년, 아직 아무르 강의 하구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부터 사할린과 본토 사이에 있는 타타르만을 조사해야 한다고 차르에게 주장할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다.²⁷⁸⁾ 실제로 푸

에 주목했다면, 일본으로 가는 또 다른 기항지로 사할린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275)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1982, p.77.

276)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1982, p.80.

277)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1982, p.76.

278) А. Ш. Кадырбаев, “Россия на рубеж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кануне посольства Е. В. Путятина в Китай (1844-1857 гг.)”, *Восточный архив*, No. 20, 2009, p.51. 차르에게 주청한 내용은 다음을 인용 “Благоразумно исследовать восточную нашу границу с Китаем… Доселе мы знаем только то, что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нет ни одного благонадежного порта. Залив между материком и Сахалином нам вовсе не известен. Отыскание более удобного порта в этих местах, чем Охотск… уже само по себе не есть предмет бесполезный, а потому можно было бы поручить

타틴은 타타르 해협을 조사할 원정대를 구성했었지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네셀로데를 비롯한 제국 수뇌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²⁷⁹⁾ 그러나 이런 그의 이력을 러시아제국의 해군·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콘스탄틴 대공과 멘쉬코프 대공은 높게 평가했고, 두 사람에 의해 푸타틴은 동아시아로 가는 원정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²⁸⁰⁾ 원정대는 프리깃함 팔라다(Паллада)와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스쿠너선 보스토크(Восток)함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멘쉬코프(Меншиков)와 올리부짜(Оливуца)함이 추가됐다.²⁸¹⁾

이들 원정대의 최우선 목표는 에도막부와 청나라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²⁸²⁾ 자세히 살펴본다면 에도막부에 대해서는 개항과 러시아제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그리고 사할린에서 양국의 영역을 정하는 문제였다. 한편 청나라에 대해서는 카흐타에서의 육상무역을 유지하면서 중국 연안의 5개 개항장에서의 무역허가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기에 더해 동아시아 해역에서 더 정확한 지리측량을 시행해 잠재적인 해상교통로를 측량하는 작업도 수행해야 했다.²⁸³⁾ 다만 조선과의 접촉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때 푸타틴에게 전해진 훈령에는 조선은 청나라와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조선과는 특별한 수교교섭을 하지 말라는 제국 수뇌부의 특별한 훈령이 포함되었다.²⁸⁴⁾

원정대는 1852년 10월 7일 크론슈타트를 떠나 10월 31일 잉글랜드의 포

экспедиции осмотреть и описать означенные малоизвестные берега. С плаванием судов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не было бы несовместимым соединить и новую попытку для открытия сношения с Японией”.

279) Н. Ф. Лещенко, “Посол с погонами адмирала. Необычная судьба Е. В. Путятина (1804-1883)”, *Восточный архив*, No. 2 (32), 2015, p.8.

280)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1982, p.78.

281) 이들 선박들은 처음부터 함께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1982, p.59.

282) 이영호, 앞의 글, p.110.

283)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러시아와 한국』, 민경현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2010, p.123.

284) 박종효, 「한·러관계사에서 본 러시아와 독도(獨島)」, 『군사』 제96집, 2015, p364.

츠머스(Portsmouth)에 입항했고 이때 보스토크함을 인수해 원정대에 충원을 했다.²⁸⁵⁾ 이후 1853년 1월에 목적지인 동아시아로 출항할 수 있었다. 원정대는 동아시아로 가는 와중에 아프리카 동부해안에서 약 12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강력한 폭풍에 휘말리면서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²⁸⁶⁾ 그러나 무사히 이를 빠져나간 원정대는 바타비아²⁸⁷⁾와 싱가포르를 거쳐 아편전쟁을 통해 영국이 차지한 홍콩에 1853년 6월 13일 도착했다.²⁸⁸⁾ 푸타틴은 홍콩에 있으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나는 중국 남부지방에서 거대한 반란이 발생해 내부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사실이었고,²⁸⁹⁾ 나머지 하나는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미 홍콩을 지나 상하이를 거쳐 일본 동해안을 향해 출발했다는 점이었다.²⁹⁰⁾ 페리 제독의 소식을 들은 푸타틴은 우선 시급한 대일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팔라다함을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멘쉬코프호를 만나는데, 멘쉬코프호에는 일본에서의 행동에 대한 외무부 장관의 추가지침을 가지고 있었다.²⁹¹⁾ 외무부 장관인 네셀로

285) И. А. Гончаров, “Всепоподданней ший отчет 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а графа Е. В. Путятина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судов наших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 1852–1855”; И. А. Гончаров(ред:РАН. Ин-т рус. лит. (Пушкин. Дом), Гончаров И. 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Т. 3.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атериалы путешествия, Наука, 2000, p.163.

286) В. Р. Чепелев, “Шхуна «Хэда» – «Бабушка» японского флота (к 160-летию создания)”, *Вестник академии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и краеведения* 3, 2014, p.369.

287) 네덜란드 동인도 식민지의 중심지로 지금의 자카르타.

288)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p.171~173.

289)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Здесь мы получили некоторые достоверные сведения о восстании в Китае и об успехах оружия инсургентов, распространившихся от запада к востоку, между прочим по реке Янсекияngu, и взявших города Нанкин и Амой., 이때 푸타틴이 목격한 중국 내부의 혼란은 태평천국의 난이었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푸타틴은 대중교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된다.

290)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74. “В Кантоне я известился также, что командор Перри с эскадрой, состоявшею из 6 судов, отправился уже от Ликейских островов к берегам Японии, что заставило и меня ускорить отплытием из Гонконга, который я и оставил с фрегатом «Паллада» 26 июня, предписав шкуне «Восток» идти на остров Бонинсима, в порт Ллойд.”.

데가 작성한 이 지침에서 푸타틴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무역협상과 국경의 문제”를 정확히 하는 것이었다.²⁹²⁾ 상세한 지침 사항으로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쿠릴열도에서는 이투르프 섬(Итуруп)와 우르프 섬(Уруп)섬 사이의 현재의 국경을 유지하고”라는 지시가 있었다.²⁹³⁾ 한편 사할린에 관해서는 “중요한 사할린은 러시아제국의 권리를 주장하되, 만약 일본 정부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국가도 점유하지 않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협상하라”고 명시되어 있었다.²⁹⁴⁾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푸타틴은 외교협상에 관한 사실상의 전권을 부여받는다.²⁹⁵⁾

1853년 8월 9일 전권대사의 자격을 가지게 된 푸타틴이 나가사키항구에 입항했다.²⁹⁶⁾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²⁹⁷⁾에게 자신

291)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75.

292)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струкция МинИнДел Путятину от 24 февраля 1853 г”, 1853, АВПРИ, ГА, 1-9, оп.8, д. № 17, ч. 1,ЛЛ. 214-216 об. 218-218 об, “По сему предмету о границах наше желание быть по возможности снисходительными (не проронивая однако наших интересов) имея в виду, что достижение другой цели - выгоды торговли - для нас имеет существенную важность.”.

293)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струкция МинИнДел Путятину от 24 февраля 1853 г”, “Из островов Курильских южней ший, России принадлежащий, есть остров Уруп, которым мы и могли бы ограничиться, назначив его последним пунктом Российских владений к югу, - так, чтобы с нашей стороны южная окончность сего острова была (как и ныне она в сущности есть) границею с Японией”.

294)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струкция МинИнДел Путятину от 24 февраля 1853 г”, “При начатии переговоров о разъяснении пограничных владений наших и японских,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ажным вопрос об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е(· · ·)Вообще желательно, чтобы Вы устроили сей вопрос о Сахалине согласно с существующими выгодами России. Если же встретите непреодолимые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пятствия к признанию наших прав на Сахалин, то лучше в таком случае оставить дело это в нынешнем его положении .

295)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струкция МинИнДел Путятину от 24 февраля 1853 г”, Вашему Превосходительству остается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олная свобода действий .

296)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76.

들이 나가사키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고, 총리인 네셀로데의 친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²⁹⁸⁾ 그러나 나가사키부교는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 권한이 없고, 이를 막부에 통보한 후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피했다.²⁹⁹⁾ 에도로부터의 회신을 기다리던 푸타틴은 자신이 직접 에도로 가 막부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부교에게 물었으나, 부교는 그러한 행동이 일본인들을 두렵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선 기다릴 것을 부탁했다.³⁰⁰⁾ 그러나 이때 막부는 본래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더해 12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요시(德川家慶)가 1853년 7월 27일 와병 끝에 사망하면서, 개국에 대한 외교적 중대사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없던 상태였다. 막부는 이런 사정을 이미 미국의 페리 제독에게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유를 10월 9일 푸타틴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에도막부는 서구국가들의 개항요구를 거절한다는

297) 나가사키 부교는 나가사키가 여타 다이묘의 영지가 아니라 막부의 직할지였기 때문에 설치된 특별한 관리직이었다. 협상을 위해 나가사키에 도착한 푸타틴 일행은 나가사키 부교를 나가사키 주지사라 지칭했다. 문제는 푸타틴 일행이 나가사키 부교가 여타 다이묘와는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 막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에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98) И. А. Гончаров, “Письмо Е. В. Путятина нагасакскому губернатору 10(22) августа 1853 г. Нагасаки”,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В 20 т. Том 3.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атериалы путешествия Иван Гончаров*, Наука, 2002, p.87~88.

299)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79.

300)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83., 1858년 9월 8일 나가사키부교와 푸타틴이 참여한 첫 협상에서 푸타틴은 양국의 상호친선관계 형성을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협상에서의 러시아제국의 자세한 요구사항은 다음을 참조 И. А. Гончаров, “6. Проект церемониала первой встречи Е. В. Путятина с нагасакским губернатором. 8 (20) сентября 1853 г”, И. А. Гончаров(ред:РАН. Ин-т рус. лит. (Пушкин. Дом), *Гончаров И. 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Т. 3.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атериалы путешествия*, Наука, 2000, pp96~98.; 9월 9일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И. А. Гончаров, “Из протокола переговоров Е. В. Путятина с нагасакским губернатором. 9 (21) сентября 1853 г”, И. А. Гончаров(ред:РАН. Ин-т рус. лит. (Пушкин. Дом), *Гончаров И. 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Т. 3.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атериалы путешествия*, Наука, 2000, pp.100~101.

사실을 밝혔다.³⁰¹⁾

푸타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며 지속해서 새로운 외교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³⁰²⁾ 이후로도 푸타틴은 1853년 11월 6일 일본의 로주(老中)³⁰³⁾에 쿠릴열도를 두고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을 정하는 협상을 재촉하는 서신을 보냈다.³⁰⁴⁾ 그러나 막부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푸타틴은 막부가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을시 에도로 직접 갈 것이며 부교는 러시아제국의 전권대리자격인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했다.³⁰⁵⁾ 그러나 선내에 적재한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푸타틴은 보급을 위해 에도가 아닌 상하이로 잠시 돌아갈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³⁰⁶⁾ 여기에는 보급문제의 해결과 함께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유럽지역의 소식을 파악하러 상하이로 보냈던 멘쉬코프호가 유럽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곧 전쟁이 발발할 것 같다는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³⁰⁷⁾ 그렇게 정박한 상하이에서 푸타틴은 태평천국의 난으로 중국 남부가 매우 혼란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러시아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곧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³⁰⁸⁾

301)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곤차로프, 『전함 팔라다』, 문준일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2014. pp.230~234.

302)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84.

303) 막부의 원로대신들 중 최고위직들로 막부의 정치를 주로 담당했었다. 푸타틴은 이들을 일본 최고 회의(Японский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라 부르며 서구권의 내각과 비슷하게 인식했다. 고로츠크는 로주(老中)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304) В. К. Зиланов의 4인, “Из Ноты, направленной 6/18 ноября 1853 г. 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ом Путятиным в Японский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Русские Курил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и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й границы*, Алгоритм, 2014.

305) 이반 곤차로프, 앞의 책, 2016. pp.180~192.

306) 이반 곤차로프, 앞의 책, 2016. p.193.

307)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83.

308) 이반 곤차로프, 앞의 책, 2016. p.219.



그림 10-1 1853년
나가사키에서 대일교섭에
임하는 푸타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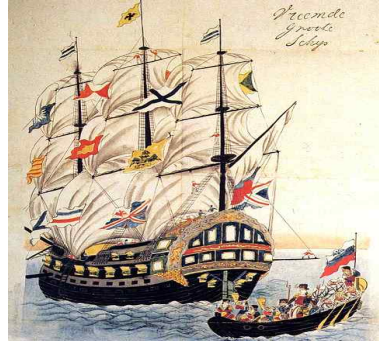


그림 10-2 1854년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팔라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서 청나라와의 새로운 무역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푸타틴의 임무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실제로 1853년 6월 18일 푸타틴은 양광총독(兩廣總督) 섭명침(葉明鍼)과 중국 5개 항구를 러시아제국에 개항할 것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³⁰⁹⁾ 푸타틴은 협상에 불만을 품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더 이상 협상 진행에 몰두할 수 없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격화되어가는 유럽의 분위기에서 러시아제국과 오스만제국 사이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미 기정사실이였다. 따라서 푸타틴은 영국과 프랑스의 함선이 많은 중국 동남부에서 머무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했다.³¹⁰⁾ 보급을 마치고 다시 나가사키에서 교섭을 시도한 푸타틴은, 만약 전쟁이 발발할시 원정대의 안전과 러시아 북태평양의 부족한 해상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흐츠크 해로 가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때는 겨울이라 바다가 얼어있었고, 따라서 오흐츠크 해로 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쟁에서 상관이 없는 스페인의 식민지인 마닐라로 향했다.³¹¹⁾

309) 이영은, 「근대전환기 러시아인의 조선인식」,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p.26.

310)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91.

311)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p.191~193.

전쟁으로 동아시아 국가, 특히 청나라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없던 푸타틴은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와 북태평양 연안의 러시아 거점을 방어하는 부족한 러시아의 전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닐라에서 보급을 마친 푸타틴은 1854년 2월 27일 마닐라를 출항한다. 푸타틴의 목표는 오흐츠크 해와 타타르 해협의 러시아 거점으로 가는 것이었다.³¹²⁾ 이때 올리브 짜함은 시베리아 방어를 위해 페트로파블롭스크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바로 향했다.³¹³⁾ 푸타틴은 4월 2일 거문도에 도착했고 그곳에 있는 조선인과 접촉했다.³¹⁴⁾ 3일 후에는 정보를 얻고자 상하이로 향했던 멘쉬코프호를 통해 영국·프랑스 연합과 러시아제국이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는 소식을 알게 전해 듣게 되었다.³¹⁵⁾ 이후 조선의 동해안을 측량하며 북상하던 팔라다함은 5월 9일 두만강과 포시에트 만을 측량하고³¹⁶⁾ 계속 북상했다.³¹⁷⁾

한편 푸타틴이 에도막부와 청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제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무역 상대를 찾고 있을 때 1853년 6월 28일 차르는 청나라와 새로운 국경을 정하는 협상안을 초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나라에 보냈다.³¹⁸⁾ 그리고 1854년, 차르는 청나라와의 외교협상, 아무르 유역에서 국경을 정하는 문제에 관한 전권을 무라비요프에게 위임했다.³¹⁹⁾ 그러나 무라비요프는 마찬가지로 청나라와의 국경협상에 집중할 수는 없었다. 무라비요프도 푸타틴과 흑해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전쟁, 그리고 당연히 개입할 것으로 보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차르는 러시아

312)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p.191~194.

313)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93.

314) 이반 곤차로프, 앞의 책, 2016. pp.656~668.

315)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93.

316) 이반 곤차로프, 앞의 책, 2016. pp.714~718.

317) 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I (1854~1894) 문서번역본』, 2007, pp.29~32.

318) 김용구, 앞의 책, p.83.

319) Я.А.Барбенко, 앞의 글, p.12.

의 태평양 연안의 방어를 위해 무라비요프에게 아무르 강을 활용한 대규모 원정을 요구했다.³²⁰⁾ 마침내 아무르 강을 교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2. 크림전쟁시기 아무르 수로 이용

1853년 10월 16일 오스만제국의 선전포고로 러시아제국과 오스만제국 사이에 크림전쟁 발발했다. 전쟁의 표면상 주체는 오스만제국과 러시아제국이었으나 실제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전쟁이었다.³²¹⁾ 따라서 이미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했었다.³²²⁾ 또한 오스만제국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 상태였다. 개전직후에는 유럽의 강대국들은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으나 영국과 프랑스의 최후통첩으로 내건 조건을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1854년 3월 27일 양국은 러시아제국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다.³²³⁾

비록 크림전쟁은 흑해연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전쟁의 영역은 유럽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크림전쟁은 태평양연안에서도 전개되었고, 특히 태평양연안의 거점에 대해 러시아제국이 걱정하던 부분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

320) 민경현, 앞의 글, p.159.

321) 크림전쟁은 관여한 모든 국가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제국은 발칸반도에 남슬라브 민족의 해방을 명분으로, 발칸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갈망의 도시' 콘스탄티노폴을 회복해 흑해를 넘어 지중해로 팽창하고자 했다. 오스만제국은 러시아제국의 팽창야욕이 결과적으로는 오스만제국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영국은 러시아제국이 지중해에 진출하는 것이 영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 러시아제국을 견제할 용도로 오스만제국이 최소한의 영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프랑스는 러시아제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영국과 공유하면서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팔레스타인의 성지관할권을 두고 러시아제국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크림전쟁 시기의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6.

322) General Sir Edward Hamley, *The War In the Crimea*, Seely and Co, 1891. p.12.

323) Andrew D. Lambert, *The Crimean War: British Grand Strategy Against Russia, 1853-56*, Routledge; 2nd edition, 2011, pp.94~98.

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난 전쟁이었다. 비록 시노프 해전을 통해 러시아제국이 흑해에서 일시적인 해상우위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러시아는 압도적인 열세였다. 결국 연합군해군에 의해 발트 해와 흑해가 봉쇄되면서 러시아제국은 해로로 태평양 연안의 거점을 지원할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상황은 무라비요프가 1848년의 시점에 이미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무라비요프는 만약 강력한 해군을 가진 영국이 오호츠크 해 인근을 장악한다면, 이는 곧 시베리아 전역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 바 있다.³²⁴⁾ 그가 오호츠크 해의 제해권과 시베리아 전체를 연결해 바라보는 시선은 합리적인 걱정이었다. 러시아본토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태평양 연안의 러시아 거점은 영·불 연합함대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오호츠크 해의 제해권은 연합군이 차지했다. 만약 지역의 거점들과 아무르 강으로의 진입로를 연합군이 확보한다면 강력한 해군이 항행이 가능한 아무르 강을 따라 그대로 시베리아 깊숙이 들어올 위협이 있었고, 이는 곧 시베리아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었다.³²⁵⁾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을 활용해 시베리아의 물자를 북태평양의 거점으로 보급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미 무라비요프는 아무르 강에서 이용할 증기선 아르군(Аргунь)을 건조하고 있었다.³²⁶⁾ 이후 아르군이 완성되자 니콜라이1세는 무라비요프에게 군대와

324) 민경현, 앞의 글, p.155.

325) 백준기, 앞의 책, p.558.

326)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Затѣмъ,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ъ увѣдомлялъ меня, что объявлена война съ Турціею и ожидается разрывъ съ западными европейскими державами; что въ Забайкаль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оится для рѣки Амуръ пароходъ "Аргунь", и наконецъ, чт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и распоряженіями моими, т. е. занятіемъ залива де-Кастр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и изслѣдованіями и открытіемъ Императорской гавани, Государь Императоръ остался весьма доволенъ. Онъ писалъ, что ожидаетъ моихъ дальнѣйшихъ дѣйствій по исполненію весьма важнаго, возложеннаго на меня Высочайшаго повелѣнія, т. е. по окончательному утвержденію нашему на островъ Сахалинъ, въ

보급품을 아무르 강을 이용해 태평양 연안의 러시아 거점으로 수송할 것을 지시했다.³²⁷⁾ 이 명령에 따라 5월 15일을 시작으로 카자크비치(П. В. Казакевич)가 지휘하는 함대가 실카 강과 아무르 강을 따라 내려갔다.³²⁸⁾ 함대는 75대의 바지선과 한 대의 증기선으로 구성되어있었고, 800명의 보병, 100명의 코사크, 그리고 야전포병 1개 부대를 수송했다.³²⁹⁾ 한편 아무르 강을 활용하는 전면적인 원정은 청나라 조정에도 통보되었다.³³⁰⁾ 이는 청나라가 군사적으로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강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³³¹⁾ 청나라는 러시아제국의 아무르 강 통행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냈지만, 태평천국의 난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러시아제국을 향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³³²⁾ 이들 원정대의 목적은 아무르 강 유역에 러시아 거점을 튼튼히 하고 러시아 태평양 식민지의 거점도시인 페트로파블롭스크의 방어를 보강하는 것이었다.³³³⁾ 원정대는 6월 15일 마린스크 거점(Мариинский пост)에 도착했고, 최종적으로는 니콜라옙스크에서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³³⁴⁾

무라비요프가 자바이칼리에의 병력을 북태평양으로 수송하는 동안 푸타틴은 임페라토르스카야 근처에서 정박해 있었다.³³⁵⁾ 그러던 1854년 5월 17

-
- заливъ де-Кастри, въ селеніи Кизи, и въ Императорской гавани.
- 327)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По прибытіи Н. Н. Муравьева изъ заграницы въ С.-Петербургъ, особый комитетъ приступилъ къ разсмотрѣнію его предположенія относительно сплава по Амуру, и послѣ различныхъ соображеній и преній, рѣшено было въ комитетѣ: плыть по рѣкѣ Амуръ. Государь Императоръ, утвердивъ это рѣшеніе, изволилъ лично прибавить Муравьеву: чтобы при этомъ не пахло пороховымъ дымомъ.
- 328) А. И. Алексеев, 앞의 책, 1982, p.59.
- 329) John J. Stephan, "The Crimean War in the Far East", *Modern Asian Studies* Vol. 3 No 3., 1969, p.260.
- 330) 백준기, 앞의 책, p.558.
- 331) John J. Stephan., 앞의 책, p.46.
- 332) Andrew Rath, 『The Crimean War in Imperial Context, 1854-1856』, Palgrave Macmillan US, 2015, pp.118~119.
- 333) Л. М. Дамешек, И. Л. Дамешек, 앞의 글, p.5.
- 334) А. А. Буркалёва, 앞의 글, p.15.
- 335)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p.196~197.

일 상하이에서 회항하더 보스토크함을 만났다.³³⁶⁾ 이때 푸타틴은 보스토크 함으로부터 영·프 연합군이 정식으로 러시아제국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됐다.³³⁷⁾ 신문과 함께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러시아 함선은 데카스트리 만으로 집합하라는 콘스탄틴 대공의 명령문을 전달 받았다.³³⁸⁾ 명령문에 따라 푸타틴은 우선 데카스트리 만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지역 방어의 책임자로 임명된 무라비요프의 이후 지시를 기다린다.³³⁹⁾ 이때 푸타틴은 함대의 정박지로는 데카스트리 만보다 알렉산드롭스카야 만이 훨씬 적합하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롭스카야 만은 함대의 정박에는 유리했으나 자연환경이 좋아 오히려 외부공격에는 취약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임페라토르스카야에 정박해 있던 선박을 모두 데카스트리 만으로 옮겼다.³⁴⁰⁾ 이후 지역의 방어를 위해 일시적으로 푸타틴의 원정함대는 각 요충지에 재배치된다. 팔라다함과 보스토크함은 니콜라옙스크로 이동했고, 이후에 합류한 다이아나함(Диана)은 병력을 페트로파블롭스크로 수송했다.³⁴¹⁾

태평양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방어준비가 끝났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에서 러시아제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비교해 압도적인 열세였다. 전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영·프연합군은 1854년 8월 18일 페트로파블롭스크에 대한 포위 공격을 강행했다.³⁴²⁾ 이때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함대는 총 10척의 전함으로 구성되어있었고 전체 218문의 대포로 무장했었다.³⁴³⁾ 다만 연합함대는 페루에서 출발했고 지리적으로 러시아제국군에 비해 무지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³⁴⁴⁾ 반면 페트로파블롭스크는 67문의 대포가 전부였고, 가용

336)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96.

337) 이반 곤차로프, 앞의 책, 2016, p.720.

33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글, pp.29~32.

339)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197.

340)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글, pp.29~32.

341) John J. Stephan, 앞의 글, 1969, p.260.

342) John J. Stephan, 앞의 글, 1969, p.261.

343) 백준기, 앞의 책, p.558.

344) Andrew Rath, 앞의 책, pp.117~119.

할 수 있는 선박도 코르벳함 2척이 전부였다.³⁴⁵⁾ 그러나 페트로파블롭스크는 연합함대의 지속적인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고, 9월 4일에 있었던 상륙전에서는 영국의 함대 사령관 프라이스(D. Price)제독이 사망하는 성과를 거둔다.³⁴⁶⁾ 결과적으로 페트로파블롭스크 공성전은 러시아제국의 일시적인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트로파블롭스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일단 네벨스코이는 페트로파블롭스크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페트로파블롭스크의 식량문제를 지적하며, 아무르 강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⁴⁷⁾ 여기에는 식량문제뿐 아니라 푸타틴이 일본과의 외교협상에 관한 임무 재개를 위해 다이아나함을 타고 일본으로 출발하면서 전력구성에 공백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주었다.³⁴⁸⁾ 네벨스코이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부족한 함대와 식량으로는 넓은 북태평양 전역의 제해권을 차지할 수 없었고, 제해권이 없다면 다음번에도 페트로파블롭스크를 향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러시아 지휘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신문에서 나타난 재공격 여론을 통해 결국 연합군이 페트로파블롭스크를 다시 공격해올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³⁴⁹⁾ 결국 이러한 우려를 인정한 무라비요프는 페트로

345) 백준기, 앞의 책, p.558.

346) 김용구, 앞의 책, 2018, p.84., 프라이스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셰드린(Г. И. Шедрин)은 당시 프랑스측 기사를 인용하며, 프라이스가 패전의 책임을 두고 자살한 것으로 언급한다. Г. И. Шедрин, *Петропавловский бой*, изд-во Мин-ва обороны СССР, 1975, pp.108~113.

347)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Какъ ни блестящи были подвиги защитниковъ Петропавловска, но по недостатку продовольствія, въ случаѣ вой ны, положеніе ихъ въ Камчаткѣ представлялось безвыходнымъ. Э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ясно указывало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ставить Петропавловскъ и сосредоточить все въ Николаевскѣ или вообще на рѣкѣ Амуръ.

348) И. А. Гончаров, 앞의 책, pp.197~199.

349)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Въ началѣ марта прибыли двѣ почты и съ ними мы получили русскія и иностранныя газеты, изъ которыхъ увидѣли, что отбитіемъ нападенія англо-французовъ на Петропавловскій портъ,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ѣніе въ Англіи и Франціи

파블롭스크에 있는 병력과 모든 물자를 아무르 강 하구 인근의 러시아 거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페트로파블롭스크의 수비대는 겨울의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다가 1855년 4월 17일 .아무르 강 하구를 향해 출항했다.³⁵⁰⁾

태평양지역에서 러시아제국의 전략은 이제 태평양 전역에 걸친 각 거점의 개별적 방어에서 아무르 강 하구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우선 방어를 위해 이르쿠츠크와 자바이칼리에서 모집한 추가적인 병력이 다시 아무르 강을 통해 아무르 유역의 각 거점으로 수송되었다.³⁵¹⁾ 동시에 주민 50세대(474명)가 군인들과 함께 아무르 강을 통해 이주했다.³⁵²⁾ 이들은 아무르 강의 하구로 이주한 최초의 러시아인이었다. 한편 페트로파블롭스크의 방어책임자였던 자보이코(Василий Степанович Завойко)는 아무르 강 하구 지역의 방어 총책임자로 임명됐다. 덕분에 러시아제국은 1855년 봄부터 여름에 있었던 영·프연합군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재공격을 아무 피해 없이 피할 수 있었다.³⁵³⁾ 결국 영·프연합군은 오흐츠크 해 일대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페트로파블롭스크에서 함대를 철수시켜야 했다.³⁵⁴⁾

이 시점에서 타타르 해협을 여전히 러시아제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전히 영국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닫힌 바다인 타타르 해협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흐츠크 해와 동해에서 별개의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³⁵⁵⁾ 반면 러시아제국은

сильно заговорило о нанесеніи имъ этимъ поражениемъ оскорбленія, и требовало, чтобы обѣ эти державы приняли энергическія мѣры для уничтоженія Петропавловска, а главное нашихъ судовъ, находящихся въ Восточномъ океанѣ. Э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350) John J. Stephan, 앞의 글, 1969, p.266.

351) М. Х. Яргаев, 앞의 글, p.308.

352) Ю.В. Аргудяева, 앞의 글, p.5.

353) John J. Stephan, 앞의 글, 1969, p.267.

354) 백준기, 앞의 책, p.559.

355) 실제로 페트로파블롭스크 공격을 주도한 함대는 주로 남미에 주둔하던 영국과 프랑스의 태평양 함대 소속 진단이었다. 반면 이후 동해에서 러시아함대를 추격하던 영국함대는 중국에 주둔하던 중국함대 소속이다. John J. Stephan, 앞의 글, 1969, pp.265~266.

조건만 충족한다면 오토츠크 해와 동해를 타타르 해협을 통해 오갈 수 있었고 당연히 연속된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다. 한편 타타르 해협은 좁고 장기간 얼어붙어 함대가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형이었다.³⁵⁶⁾ 따라서 장거리에서 원정을 오는 연합해군보다 해협 주변에 거점을 가진 러시아제국이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방어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는 페트로파블롭스크를 탈출한 자보이코의 수송대를 둘러싼 추격전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수송대는 니콜라옙스크로 가기 전 데카스트리 만에서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영국의 중국함대 편대장인 엘리엇(Charles G.J.B Elliot)이 수송대를 포착했다.³⁵⁷⁾ 그러나 자보이코는 데카스트리 만을 빠져나와 타타르 해협을 거쳐 영국해군의 포위망을 탈출하는데 성공했다.³⁵⁸⁾ 자보이코가 포위망을 탈출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엘리엇이 타타르 해협을 선박이 항해할 수 없는 지형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엘리엇은 데카스트리 만의 입구의 남쪽에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자보이코가 포위망을 탈출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자보이코는 27일 밤에 데카스트리 만을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고 쉽게 포위망을 탈출할 수 있었다.³⁵⁹⁾

비록 제해권이 없었기 때문에 페트로파블롭스크와 같은 태평양의 주요 거점을 상실했지만,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으로 영·불 연합군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니콜라옙스크가 타타르 해협의 거점이자 아무르 강 방어의 핵심기지로 대두됐다. 이후 니콜라옙스크는 페트로파블롭스크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대사령부로 선정되었으며, 1856년에는 캄차카 전대(Камчатская флотилия)라는 전대의 호칭마저 시베리아전대(-

356) 이 문제는 타타르 해협에서 함대를 운용해야 하는 러시아제국에게도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증기선 나제즈다(Надежда)를 포함한 선박들이 얼음에 갇히거나 나쁜 기상으로 인해 좌초되는 문제가 있었다. 네벨스코이의 기록에 따르면 타타르 해협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파손된 선박만 3척이었다. Г. И. Невельский, 앞의 책, 1878, p.322~337.

357) John J. Stephan, 앞의 글, 1969, p.268.

358) Vladimir Zenone Volpicelli, 앞의 책, pp.231~233.

359) John J. Stephan, 앞의 글, 1969, p.270.

Сибирская флотилия)로 개칭되었다.³⁶⁰⁾ 여기에 더해 아무르 강의 주변 지형이 증기선 이용에 유리할 뿐 아니라 강의 연안과 사할린에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당시의 추측은 앞으로의 전략거점 운용에 있어 아무르 유역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다만 모두가 러시아제국의 태평양 전력을 아무르 강 하구로 집중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가령 아무르 유역의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면 네벨스코이는 러시아제국의 모든 전력이 아무르 강과 니콜라옙스크에 집중된다면, 우수리강 좌안이 러시아제국의 영역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³⁶¹⁾ 즉, 전력을 네벨스코이는 아무르 강의 방어에 최선을 다하되, 우수리 강 동안에 있는 거점에 일부 병력을 분산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전력으로도 러시아제국은 전력을 집중해 제한적인 전역, 즉 아무르 강 하구를 압도적인 해상전력을 자랑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해군으로부터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적성국의 상륙을 우려하는 과정에서 키진 호수 근처에 코샤크를 배치하면서 우수리 강 동쪽의 내륙지역에 첫 번째 내륙 군사거점을 건설하는 데도 성공했다.³⁶²⁾

그러나 태평양 전선에서의 나뭇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이었던 흑해 연안에서는 연합군이 전쟁을 주도했으며 결국 1855년 9월 11일 연합군이 러시아제국 흑해함대의 모항이자 핵심거점인 세바스토폴을 함락하면서 전쟁은 사실상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³⁶³⁾ 그리고 마침내 전쟁은 결국 1856년 3월 30일 파리조약(Париж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을 통해 끝났고 러시아제국의 흑해함대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한편 전쟁에서의 패전과 함께 러시아제국은 지도자가 바뀌는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1855년 2월 18일 니콜라이 1세의 서거했고, 다음날 후계자 알렉산드르가 차르로 즉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³⁶⁴⁾ 이후 전쟁의 패전과 후유

360) Mark Bassin, 앞의 책, p.134.

361)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pp.348~352.

362) А. А. Буркалёва,, 앞의 글, p.15.

363) General Sir Edward Hamley, 앞의 책, pp.273~288.

364) С. Ф. Флортоно프, 『러시아사 강의 ②』, 김남섭 옮김, 나남, 2009, p.437.

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제국은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크림전쟁은 동아시아와 북태평양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인 약점과 그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전쟁이었다. 유럽 러시아에서의 직접적인 보급이나 전력증강은 개전 전에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섭을 통해 파견된 푸타틴의 소함대가 전부였다. 또한 제해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생이 불가능한 오흐츠크 해와 북태평양연안의 식민지를 경영할 수도 없었다. 만약 러시아가 아무르 강의 하구를 지키지 못했다면, 영국과 프랑스의 해군이 아무르 강을 따라 시베리아 내륙으로 진입할 수도 있었다.

이와는 별개로 크림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에 기대하던 교통로로의 역할을 실제로 이용하면서 그 가치를 증명했다. 특히 아무르 강을 통해 군대 및 보급물자와 함께 향후 지역의 거주민이 될 농민들이 이주하면서 향후 이주민과 마을형성의 시초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무르 강 하구에는 여러 정착촌이 건설되었고, 얼마 전까지 작은 원주민마을이 전부였던 니콜라옙스크는 러시아제국의 동아시아와 태평양정책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장기간 바다가 얼어붙는다는 단점은 지역에서 열세에 있는 러시아제국의 부족한 해상전력과 그 충원속도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고, 오히려 연합군의 강한 해군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³⁶⁵⁾ 덕분에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 및 그 유역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1856년 프리모르스키주(Приморская - область), 이른바 연해주가 탄생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³⁶⁶⁾ 이를 통해 러시아제국은 네르친스크조약 이후 사실상 포기했던 아무르 강 좌안뿐만 아니라 우수리강 동안의 넓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3. 아무르 유역 국경 확정

365) 최문형, 앞의 책, p.90.

366) Я. А. Барбенко, 앞의 글, p.13.

크림전쟁의 패전과 함께 드러난 낙후된 러시아제국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차르 알렉산드르 2세는 “위로부터의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개혁을 시행했다.³⁶⁷⁾ 이를 위해 국가의 동력을 내부분제의 해결에 쏟으면서 러시아제국은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해외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크림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유역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보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특히 아무르 강을 이용한 여러 번의 군사행동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어떤 군사·외교적 행동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아무르 유역을 공식적으로 점유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크림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아무르 유역의 점유 문제와 국경확정, 그리고 아무르 수로이용에 목표로 가장 중요했던 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교협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먼저 협상을 시작한 인물은 푸타틴이었다. 크림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854년 푸타틴은 다이아나함을 타고 정지되었던 대일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다.³⁶⁸⁾ 푸타틴이 크림전쟁 와중에도 일본으로 간 까닭은 1854년 3월 31일, 미국과 에도막부가 체결한 가나가와조약(神奈川條約)과 1854년 10월 14일에 체결한 영일화친조약(日英和親條約)으로 일본의 개항이 성사되었기 때문이다.³⁶⁹⁾ 이는 러시아가 우려하던 영국과 미국의 일본 시장 선점과 더불어 러시아의 아무르 유역 점유, 특히 사할린의 점유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실제로 가나가와조약과 영일화친조약에서 에도막부의 개항지로 홋카이도(北海島) 하코다테(函館)가 선택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개항장에서 선박의 보급과 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조항은, 하코다테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했을 때 러시아와 사할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푸타틴은 최대한 빠르게 사할린에서 국경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367) 왕지아평 외 7인, 『대국굴기』, 양성희·김인지 옮김, 크레듀, 2007, p.287.

368) В. Р. Чепелев, 앞의 글, p.375.

369) 홍웅호, 앞의 글, 2008, pp.100~101.

이런 배경에서 1854년 11월 22일 일본 시모다(下田)에 도착한 푸타틴은 에도막부의 개항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³⁷⁰⁾ 그러나 협상진행은 순탄치 않았다. 푸타틴은 1854년 12월 23일의 대지진³⁷¹⁾과 그에 따른 지진해일로 인해 기함인 다이아나함이 큰 손상을 입었고, 결국 배를 포기해야 했다.³⁷²⁾ 또한 태평양에서 크림전쟁이 소강상태로 들어갔을지언정, 러시아는 아직 태평양에서 일본을 개항한 영국과 전쟁 중이었다. 이 두 요소는 푸타틴을 압박했고, 따라서 푸타틴은 침몰한 다이아나함을 대신할 선박을 건조하는 와중에도 에도막부와 협상을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1855년 2월 7일 시모다조약(러일화친조약(露日和親條約))이 체결되었다. 총 9개조로 이루어진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에도막부와 근대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했고, 일본개항장에서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국경합의가 이루어졌다.³⁷³⁾ 이때 사할린은 문서상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사할린에 존재하던 러시아 초소의 존재와 아무르 강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사할린의 지정학 상의 가치, 그리고 에도막부가 이용할 수 있는 해군력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사할린의 북안에서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³⁷⁴⁾

대일교섭을 성공해 일본시장 진출과 국경선을 확정지은 러시아제국은 이제 청나라로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전통적으로 아무르 유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청나라는 내부사정으로 아무르 유역에서의 대외교섭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푸타틴이 1853년에 확

370) Н. Ф. Лещенко, “Посол с Погонами Адмирал, Необычная судьба Е.В. Путятина (1804 - 1883)”, Восточный архив No. 2, (32), 2015, p.9.

371) 안세이 도카이 지진(安政東海地震).

372) В. Р. Чепелев, 앞의 글, p.376.

373) 시모다조약에서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국경합의에 대한 조항은 제2조였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이 합의한 국경선을 두고 해석에 이견이 있고, 이 문제는 현재 러·일의 국경분쟁에서 중요한 논점이다. 쿠릴열도를 사이에 둔 영유권분쟁은 다음을 참조, 박원용,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맥락」,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No. 6, 2007.

374) George Alexander Lensen, *Russia's Japan Expedition of 1582 to 1855*,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55, pp.121~126.

인한 바와 같이 강남(江南)지역의 혼란이 심각했다. 중국의 강남지역은 스스로를 하느님의 차남이라고 주장한 홍슈취안(洪秀全)이 태평천국(太平天國)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³⁷⁵⁾ 이후 태평천국 1853년 청나라 남부의 중심인 난징(南京)을 점령했다.³⁷⁶⁾ 한편 강남지역이 태평천국에 의해 청나라의 통치권역에서 사실상 이탈해있을 때, 강북에서는 옴군(捻軍)이라 통칭되는 여러 반정부세력이 청나라의 통치에 반발하고 있었다.³⁷⁷⁾ 1851년부터 시작된 홍수로 옴군에 합류하는 난민들이 늘어났고 청은 공식적으로 그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했다.³⁷⁸⁾ 뚜렷한 정치체가 있던 태평천국에 비해 이들 옴군은 여러 반정부집단의 연합체에 가까웠기에, 특별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1855년부터 윈난성(雲南省)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반란이 발생, 평남국(平南國)을 건국해 청나라에 대항했다.³⁷⁹⁾ 이렇듯 청나라의 지방통제력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에 체류하던 푸타틴을 통해 청나라의 내전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발발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제국은 청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했다. 1855년 6월경 무라비요프는 아무르 강의 좌안과 북중국에서 러시아가 청나라와의 자유무역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청 정부에 통보했다.³⁸⁰⁾ 한편 외만주의 청나라 상인들은 러시아제국이 크림전쟁 동안에 아무르 강을 통해 물자를 운송한다는 내용을 베이징으로 전달했지만, 청나라 중앙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³⁸¹⁾ 청나라가 외국의 요구를 가능한 무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1855년 9월 20일 마린스크에서 무라비요프와 청나라의 징쥘(景淳)사이에 국경확정에 대한 회담이 개

375) 오수열, 「태평천국의 성립배경과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Vol. 13 No. 2, 2008, p.90.

376) 조너선 D. 스펜스, 앞의 책, p.215.

377) 조너선 D. 스펜스, 앞의 책, p.226.

378) 조너선 D. 스펜스, 앞의 책, p.267.

379) 조너선 D. 스펜스, 앞의 책, pp.231~234.

380) 김용구, 앞의 책, p.85.

381) T.C.Lin, 앞의 글, pp.11~12.

최되었다.³⁸²⁾ 이때 무라비요프는 러시아제국이 바다로 향하는 아무르 강 수로의 북쪽연안 전부를 점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³⁸³⁾ 또한 유역으로 러시아인을 이주시킬 것이며 아무르 강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할 것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아무르 강의 북쪽에 거주하는 만주족은 강의 이남으로 이주할 것을 요구했다.³⁸⁴⁾ 베이징의 중앙정부는 아무르 유역의 상당한 부분이 러시아에 귀속된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반박을 징첸에게 보내면서, 러시아의 요구를 일체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렸다.³⁸⁵⁾ 그러나 청 정부는 국경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고, 러시아를 자극할지 모르는 지역에서의 방어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³⁸⁶⁾ 결국 마린스크에서의 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지만, 무라비요프는 황제의 지시에 기초한 요청서를 1855년 12월 26일 다시 청나라에 제시했다.³⁸⁷⁾

이렇게 무라비요프는 청나라에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1856년에 다시 아무르 강을 활용해 물자 및 병력을 수송했다.³⁸⁸⁾ 이 수송된 병력을 바탕으로 아무르 강을 따라 쿠타만지스크(Кутомандский), 쿠마르스크(Кумарский), 히간스크(Хинганский)와 우스티-젠스크(Усть-Зейский)와 같은 거점이 건설되었다. 이중 훗날 블라고베센스크가 되는 우스티-젠스크는 500명의 코샤크가 주둔했고, 바로 이곳에서 무라비요프는 아무르 유역에 대한 국경협상을 준비했다.³⁸⁹⁾ 이 시점에서 아무르 강을 통해 수송된 러시아군의 병력은 1856년에 벌써 5천 명에 달했다.³⁹⁰⁾ 무라비

382) 김용구, 앞의 책, p.85.

383) S.C.M paine, 앞의 책, p.59.

384) 김용구, 앞의 책, p.85.

385) T.C.Lin, 앞의 글, p.13.

386) S.C.M paine, 앞의 책, p.59.

387) T.C.Lin, 앞의 글, p.13.

388) M. X. Яргаев, 앞의 글, p.308.

389) Юрий Осипов, *Крестьяне-старожил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1855-1917 гг.*, Издательство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кономики и сервиса, 2006, p.33.

390) Юрий Осипов, 앞의 책, p.32.

요프는 이 병력을 청나라에 대한 위협으로 이용했다. 대표적으로 1856년 6월 2일, 무라비요프는 1660명의 병력을 이끌고 아이훈에서 청나라를 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³⁹¹⁾

아무르지역의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러·청 양국의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 두 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외교 관계가 큰 변화를 맞았다. 변화의 시작은 크림전쟁의 종전협상인 파리조약의 체결부터 시작되었다. 파리조약 이후 러시아제국은 크림전쟁에서 전통적 동맹을 파기한 오스트리아제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프랑스제국은 이탈리아 문제에서 촉발된 오스트리아제국과의 대립으로 두 제국의 이해관계가 겹치기 시작했고, 외교적으로 양 제국은 적대감을 해소하기 시작했다.³⁹²⁾ 이때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쌓이던 불만이 애로우호 사건³⁹³⁾으로 폭발했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막대한 이권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도 영국에 동조하고 있었다.³⁹⁴⁾ 영국과 프랑스의 압박이 거세지자 청나라는 상대적으로 자국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던 러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한다.³⁹⁵⁾ 이런 과정에서 러

391) 김용구, 앞의 책, p.85.

392) Laurence Guymer, "Meeting hauteur with Tact, imperturbability, and Resolution: British Diplomacy and Russia, 1856-1865," *Diplomacy & Statecraft* Vol. 29 No. 3, 2018, pp.392~394., 다만 프랑스의 태도는 영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태도에 가까웠고, 전쟁의 양금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급격한 외교적 변화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열성적 적대관계에서 대립요소가 사라졌음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393) 청나라 관헌이 중국인 소유의 영국선박 애로우호(Arrow)에 들어와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연행해간 일을 빌미가 되어 영국은 청나라에 국기모욕에 대한 배상 및 사과와 승무원의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했고 청나라가 이를 거부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발생한 외교적 대립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안정애,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2012, p.319.

394) 김현수, "주중영국공사 파크스의 외교활동, 1856~1861 -애로우호 사건부터 제2차 영중전쟁까지-", *동양학 46권*, 2009, pp.9~11.

395) 백준기는 이때 청나라가 취한 외교적 정책을 전통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부르며 크림전쟁의 태평양전선에서 러시아제국의 선전을 러시아가 전체 전역에서 승리했다고 오관했으며, 함풍제(咸豐帝) 역시 한 세기 이상 평화를 유지해오던 러시아제국이 처음부터 문제만 유발하던 영국과 프랑스보다 훨씬 우호적 관계라고 파악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백준기, 앞의 책, pp.560~561.

시아제국은 연합군과 청나라 양쪽 모두에게 지지를 표할수도 있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국에 유리한 상황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1857년 봄 무라비요프는 아무르 강을 활용한 또 다시 군사원정을 단행했다.³⁹⁶⁾ 동시에 러시아정부는 일본과의 외교협상에서 성과를 끌어낸 푸타틴에게 다시 청나라와 무역관계를 협상할 전권대사의 임무를 내렸다.³⁹⁷⁾ 이때 푸타틴이 이미 청나라와 외교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는 점과 그가 군사적인 면모가 뛰어나다는 사실도 그의 권한에 힘을 실어주었다. 푸타틴에게는 다른 서구국가들과 같은 개항장무역에 러시아제국의 참여, 아무르 강에서의 국경문제와 그 해결, 그리고 중앙아시아 초원지역의 국경확립이라는 외교 목표가 주어졌다.³⁹⁸⁾ 이러한 임무를 받은 우선 해로가 아닌 육로를 통해 이르쿠츠크까지 갔다. 그곳에서 푸타틴은 문제해결을 위해 무라비요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의견을 종합해 청나라 정부에 러시아제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³⁹⁹⁾ 그러나 청나라 정부는 푸타틴의 요구를 거부했다.⁴⁰⁰⁾ 특히 민감한 문제는 외교협상을 베이징에서 시행하기 위해 베이징에 상경하겠다는 요구였다. 청나라는 오직 조공사절만이 베이징에 상경할 수 있으며, 조공사절을 제외한 기타 러시아와의 외교적 절차는 오직 카흐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푸타틴의 베이징 상경 요청을 거절했다. 푸타틴은 청정부의 태도에 반발했고, 무라비요프가 아무르 강을 따라 주둔시킨 병력의 호위를 받으면서 아무르 수로를 이용해 청나라의 텐진(天津)으로 갔다.⁴⁰¹⁾ 이때 푸타틴이 텐진으로 간 표면적인 이유는 북경상경을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청나라의 내부사정을 살피면서 상황에 따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다.⁴⁰²⁾

396) Jonh J. Stephan, 앞의 책, p.47.

397) A. Ш. Кадырбаев, 앞의 글, pp.55~56.

398) 이완중, 앞의 글, p.179.

399) Vladimir Zenone Volpicelli, 앞의 책, p.252.

400) S. C. M paine, 앞의 책, p.62.

401) A. Ш. Кадырбаев, “Итоги миссии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Е. В. Путятина в Китай. 1857-1858 годы”, Восточный архив No. 2(38), 2018, pp.18~21.

푸타틴이 텐진으로 가던 때 무라비요프는 다른 방식으로 대청교섭을 시도했다. 이때 무라비요프는 아무르 강 유역에서 양국의 새로운 국경선을 확립하고, 아무르 강과 주변 지류에서 러시아 선박과 상인의 항해와 상업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무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극동 문제 회의를 통해 위임받았다.⁴⁰³⁾ 이 권한에 근거해 무라비요프는 군사적인 침략을 강행하더라도 아무르 강 좌안을 러시아제국이 확보해야 한다고 확신했다.⁴⁰⁴⁾ 실제로 무라비요프가 아무르 유역에서 운용할 수 있던 병력은 5,000명의 기병을 포함해서 약 25,000명에 달했다.⁴⁰⁵⁾ 무라비요프는 이 병력이 청나라를 상대로는 충분히 강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실제로 이 숫자는 제2차 아편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전쟁기간에 동아시아에서 운용한 총 병력과 맞먹는 숫자였다.⁴⁰⁶⁾ 그러나 러시아제국 행정부는 청나라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고, 또한 아무르 강의 좌안을 확보하되 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⁴⁰⁷⁾ 실제로 러시아제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던 청나라에 소총 1만 자루의 무상제공과 장교 및 교관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푸타틴에게 내리기도 하는 등⁴⁰⁸⁾ 러시아제국은 내전과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청나라의 상황을 이용해 자국이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이익을 얻는 데 집중했다.

이 상황에서 영국이 1857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나라 남부를 공격했다.⁴⁰⁹⁾ 프랑스는 1857년 6월 광둥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전쟁에 참전했고 영국과 함께 행동했다.⁴¹⁰⁾ 연합군은 1857년 12월 광저

402) S. M. 두다료니크 외 23인, 앞의 책, p.161.

403) 김용구, 앞의 책, p.86.

404) S. C. M paine, 앞의 책, p.64.

405) Vladimir Zenone Volpicelli, 앞의 글, p.253.

406) 1860년까지 연합군은 총 25,000명 정도의 병력을 동아시아에서 운용했다. 안정애, 앞의 책, p.309.

407) 김용구, 앞의 책, pp.86~87.

408) S. M. 두다료니크 외 23인, 앞의 책, p.161.

409) 안정애, 앞의 책, p.309.

410) 마틴 부스, 『아편 : 그 황홀한 죽음의 기록』, 오희섭 옮김, 수막새, 2004,

우를 점령하고 영국에 적대적이었던 광저우 총독을 인도 캘커타로 내쫓았다.⁴¹¹⁾ 이때 푸타틴은 홍콩으로 이동해서 영국, 프랑스의 대표, 그리고 미국공사를 각각 접견했다.⁴¹²⁾ 이때부터 푸타틴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외교적 공동 전선을 구축해 함께 행동했고 공동으로 청나라에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청나라는 이러한 공동제의를 거절했다.⁴¹³⁾ 청나라는 러시아와 일체의 외교협상 권한은 흑룡강장군(黑龍江將軍) 이산(奕山)에게 있기 때문에 푸타틴이 아무르 강과 유역에 대한 일체의 외교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협상의 진행은 중국 본토가 아닌 아무르 강 유역으로 다시 가서 이산과 협상하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산에게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하라고 지시했다.⁴¹⁴⁾ 당시 푸타틴은 이러한 사실과 중국 내부를 묘사한 지도를 무라비요프에게 전달하고 있었다.⁴¹⁵⁾

1858년 5월 20일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텐진에 있는 타구(大沽)포대를 공격해 점령했다.⁴¹⁶⁾ 이후로 러시아제국과 청나라의 외교협상은 텐진과 아이훈에서 따로따로 진행되어졌다. 푸타틴은 청나라에게 러시아가 청나라와 연합군사이에 평화를 위한 중재를 할 것이며 베이징으로 연합군이 진군하는 것을 막아주겠다면서 그 조건으로 청나라의 개항과 개항장에서 이루어

p.185.

411) 조너선 D. 스펜스, 앞의 책, p.221.

412) 최문형, 앞의 책, p.100.

413) 중국사 연구자인 윌리엄 T. 로는 러시아와 미국이 동맹국인 영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시위’의 일환으로 대표를 파견했다고 서술했다. 윌리엄 T. 로,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기세찬 옮김, 너머북스, 2014, p.337.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러시아제국은 프랑스와의 완만한 관계를 형성했지만, 영국과는 그러지 못했고,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어디까지나 러시아제국이 원하던 바를 성취하기 위한 제한적 연대에 가까웠다. 다만 푸타틴 역시 영·프 연합군에게 베이징 공격을 주장하는 등, 청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미국은 실제 참전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프에 동조하는 군사적 행동을 하면서, 청나라를 압박하는 등, 러시아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414) 최문형, 앞의 책, p.101.

415) T.C.Lin, 앞의 글, p.18.

416) 최문형, 앞의 책, p.103.

지는 자유무역에 러시아제국도 정당하게 참여할 권리를 요구했다.⁴¹⁷⁾ 한편 타구포대 점령 직후인 1858년 5월 21일 우스티-젠스크의 이름을 블라고베센스크로 개명한 무라비요프는 5월 23일, 흑룡강장군 이산을 만나러 아이훈으로 간다.⁴¹⁸⁾ 단 이때 무라비요프가 지병악화로 협상을 주도하기 힘들었기 때문에⁴¹⁹⁾ 실제 협상의 진행은 표트르 니콜라예비치 페로프스키(Петр Николаевич Перовский)가 주도했다.⁴²⁰⁾

이산이 무라비요프의 건강상태를 묻고, 무라비요프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된 자신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에 대한 자격증명을 제시하면서 두 나라의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나 첫 협상에서 두 대표단은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못했다. 네벨스코이에 따르면 첫 번째 협상에서 러시아제국은 5개의 요구사항을 청나라에 제시했다.⁴²¹⁾ 이 문제에 대해 청나라 협상단은 자신들이 무역문제에 대한 협상권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신들이 협상할 수 없고, 따라서 무역문제는 별개의 협상을 개설해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⁴²²⁾ 또한 러시아가 초안에서 협상의 목표로 제시한 ‘양국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ради большей славы и пользы обоихъ государствъ)’라는 문구에 대해 청나라 협상단은 청나라는 이미 너무나 영광

417) 백준기, 앞의 책, p.562.

418)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p.401.

419) 실제로 무라비요프는 185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던 위원회에 참석하기 직전까지도 파리에서 요양을 위해 체류했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다.

420) S. C. M. Paine, 앞의 책, p.67.

421) 러시아가 제안한 초안을 요약하면 아르군 강부터 두만강까지 아무르 유역에서 두 나라의 정확한 국경확립, 하천에서 양국 선박의 항해의 자유 보장, 새로 구성된 영토에 본래 거주하던 주민들의 국적에 다른 이주문제 확정, 하천연안과 국경에서 양국 상인들의 상업활동 허용, 러시아 외교사절의 베이징 상경과 무역권한이다.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p.405.

422)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и Перовскимъ этого проекта договора, манджуры по обыкновенію возобновили свои односторонніе доводы и опроверженія, а о послѣднемъ пунктѣ рѣшительно отказались и разсуждать, говоря, что по этимъ предметамъ Дзянь-Зюнь не имѣетъ полномочій, и что ему поручено только переговариваться о дѣдахъ на Амурѣ, и если мы желаемъ касаться нашей торговли съ Кмтаемъ, то должны будемъ начать отдѣльные переговоры, совершенно особо отъ настоящихъ.

스리워 더 큰 영광을 바랄 수 없다고 설명하며 개정을 요청했다. 러시아제국은 이러한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5월 25일, ‘양국의 더 크고 영원한 우정을 위해(ради большей, вечной взаимной дружбы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로 협상의 목표를 수정했다.

5월 25일에 재개된 협상에서 러시아 협상단은 최후통첩(уль-тиматум)의 형식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때 이산은 아무르 강을 둘러싼 국경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수리 강변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무역허가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협상할 수 없음을 알렸다. 또한 이산이 부여받은 아무르 강과 주변 유역의 국경문제는 1727년 카흐타조약에서 정해진 국경을 러시아제국이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⁴²³⁾ 카흐타조약이후로 아무르 유역은 청나라의 영역이며, 그 증거로 아무르 유역에 거주하는 각 부족이 청나라에 공물을 납부하고 있고, 청나라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주족 군인을 아무르 유역에 상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들었다. 여기에 더해 아무르와 우수리 강 주변은 청나라 황실의 기원이 된 지역으로 이를 러시아제국에 넘겨주는 것은 청나라에 대한 반역이고, 또한 황족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조상의 기원을 외국에 넘겨주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항변했다.⁴²⁴⁾ 이에 대해 러시아제국은 만주족과 황실의 기원은 아무르와 우수리 분지가 아니라 내만주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아무르 강 좌안에 있는 청나라인은 범죄자가깝다고 반박했다. 또한 크림전쟁 중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아무르 강 하구를 봉쇄한 것은 그 지역이 국제적으로 러시아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⁴²⁵⁾ 여기에 더해 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청나라의 상황을 언급하고는 러시아가 아무르 유역을 점유하려는 것은 청나라를 침략하고자 함이 아니며 아무르 강과 청나라를 영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있었다.⁴²⁶⁾

423) S.C.M paine, 앞의 책, p.67.

424)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pp.405~406.

425) Г.И. Невельской, 앞의 책, 1878, pp.406~408.

426) 최문형, 앞의 책, p.102.

이때의 협상을 두고 러시아 연구자들과 그 밖의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한 해석차이가 있다. 두다료니크 등의 러시아 극동지역 역사가들은 네벨스코이의 기록을 인용해 무라비요프의 정당한 요구에 이산 등의 청나라 협상가들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⁴²⁷⁾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의문을 표한다. 가령 이산이 6월 14일에 청나라 조정 에 제출한 상주문에는 러시아제국 측이 2백에서 3백 명의 군사들에게 이산 이 머무르는 장소에 무차별 사격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협상을 주도했다고 서술되어 있다.⁴²⁸⁾ 또한 서구연합군이 청나라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제국이 최후통첩으로 협상을 주도했다는 것을 본다면, 아이훈에서의 협상이 청나라에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1858년 5월 28일, 결국 이산이 러시아제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아이훈조약이다.⁴²⁹⁾ 이산은 교역권과 우수리 동쪽에서의 국경의 설치에 자기 권한 밖이라고 강조했으나, 그의 의견을 러시아 협상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협상의 결과물은 러시아제국이 처음 제시한 초안에서 우수리 강 동쪽지역을 국경문제에 관한 새로운 협상이 실시되기 전까지 공동관리 영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그대로였다. 한편 러시아인들의 베이징상경과 베이징에서 러시아인들이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은 푸타틴이 독자적으로 협상을 따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제외되었다.

아이훈조약을 통해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 좌안의 귀속과 우수리 강 우안의 공동 통치영역 지정, 아무르 강, 쑹화강, 우수리 강에서 러시아선박의 항행의 자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선박을 제외한 외국선박의 항해 금지, 그리고 강 연안에서 상거래 활동과 양국차원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이 과정에서 큰 성과를 거둔 무라비요프에게는 그 공적이 인정되어 훗날 아무르 백작의 작위를 받는다.⁴³⁰⁾ 한편 아이훈조약에

427) S.M. 두다료니크 외 23인, 앞의 책, pp.164~165.

428) 김용구, 앞의 책, pp.88~89.

429) T.C.Lin, 앞의 글, p.19.

430) В. Ф. Веревкин, “Муравьев Н. Н., граф амурский”, *Научные труды*

서 다뤄지지 못한 문제는 이후 다른 외교협상에서 거쳐 다시 논의하게 되었다. 1858년 6월 13일 푸타틴과 청나라의 내각대학사 계량(桂良)이 맺은 톈진조약을 통해 최혜국대우를 포함한 개항장무역참여와 청나라 영내로 군함 파견권한 등에 관한 권리를 쟁취했다.⁴³¹⁾ 한편 아이훈조약에서 공동구역으로 남아 있던 우수리 강 동쪽은 1860년 베이징조약과 이후 추가조약을 통해 완전히 러시아제국의 영토로 편입됐다.⁴³²⁾ 이때두만강부터 한카 호수(Ханка)까지 국경선이 새로 정립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이 동해로 통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조선은 처음으로 서구열강과 육로로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제국은 아무르 강 연안에서만 100만km²에 달하는 새로운 영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는 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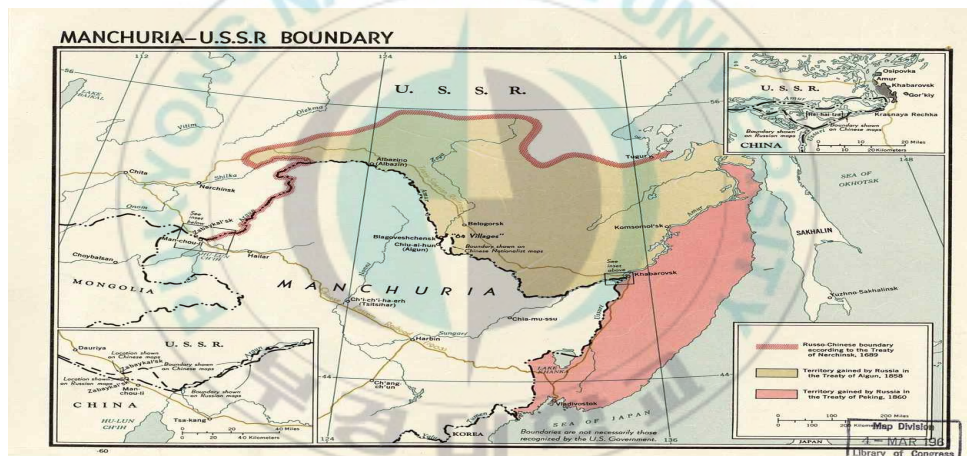


그림 11. 1860년까지 러시아가 차지한 동아시아 영역
 ,Library of Congress Geography and Map Division Washington, 1960, D.C.
 20540-4650 USA.

주의할 점은 아무르 강의 좌안과 우수리 강의 우안이 이 시점부터 국제적으로 러시아제국의 영역이 되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국이 이 지역을 행정적으로 완전하게 통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무르 유역

Дальрыбвтуза No.22, 2010, p.260.
 431) 최문형, 앞의 책, pp.103~104.
 432) John J Stephan, 앞의 책, p.49.

은 여전히 ‘변경(邊境)’의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명확하게 구획된 국경선을 수립원주민과 주변의 유목민들은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청나라상인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에 비해 러시아인들의 활동은 저조했다.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비교하면 러시아이주민과 군인의 수는 한줌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러시아가 점유하게 된 지역은 점차 러시아인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러시아화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제국의 통제력 역시 강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베이징조약이후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게 된 아무르 강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로의 역할을 기능하게 되었다. 1858년, 아이훈조약직후 아무르회사(Амур компания)⁴³³가 탄생해 아무르 강을 오가는 물자 및 여객수송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해운업과의 연계를 통해 아무르 강을 이용한 수송은 더욱 확대되어졌다. 그 과정에서 아무르 강변의 주요 도시들은 지역의 산업과 행정의 거점도시로 성장했다. 다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개통하면서 여객부분의 이점을 상실하시면서 수로는 화물수송으로 역할이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르 강은 현재까지도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요한 교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433)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 중 하나인 아무르 해운회사(Амурское пароходство)의 모체다.

V. 결론

19세기 이전까지 아무르 강은 시베리아의 여러 내륙수로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러시아는 해양이용이 다른 서구국가에 비해 제약이 크고 따라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진출과 유지가 어렵다는 지정학적인 약점이 강조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단으로 아무르 유역과 수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때 아무르 수로는 기존의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육로보다 효율적인 교통로였고, 동시에 러시아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존의 해로보다 다른 국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동아시아와 북태평양 연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였다. 따라서 19세기부터 아무르 강과 주변 유역에서의 교통로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탐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점차 탐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에서 러시아제국의 군사·행정적인 영향력도 확대되었다. 이후 크림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인들은 아무르수로를 직접 이용해 교통로로서의 가치를 직접 증명을 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러시아제국은 아무르수로를 이용해 군수품과 군인, 그리고 정착민을 수송했고 이를 통해 태평양에서의 영국과 프랑스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다. 이 과정에서 아무르 유역의 상당한 부분을 러시아제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제국의 수뇌부들은 공식적으로 지역을 점유할 것을 천명했고, 아이훈조약을 비롯한 여러 외교협상을 통해 100만km²에 달하는 새로운 영역을 자신의 영토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에서 아무르 수로의 이용은 팽창의 목적이자 수단으로 동시에 기능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아무르 유역의 수로이용과 지역으로의 진출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요소는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도 이 지역은 현재까지도 러시아령으로 남아있으면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행사되는 교두보인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탄생과 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적백내전 시기에 존재했던 극동

공화국(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Республика)부터 푸틴 행정부가 설치한 극동연방관구까지, 실제로도 구현된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동아시아·북태평양·동시베리아에 걸쳐있는 거시적이면서 행정적인 구역이다. 동시에 러시아의 극동지역 역사가들에게는 소(小)조국이라 불리는 관념적인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 지역은 아무르 강으로 연결되기 전까지 별개의 권역이었고 일부는 러시아의 영역도 아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 러시아는 아무르수로를 이용해 각 권역을 연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연결을 통해 지역의 물자와 인력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러시아화와 거시적 통합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라비요프에 의해 아무르 유역에 건설된 거점초소들은 지역의 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극동연방관구에 속한 11개 주도(州都) 중 7개의 도시가 무라비요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도시이다. 이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건설되면서 지역의 거리감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탄생한 러시아 극동지역은 유럽 러시아나 시베리아의 다른 지방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지역 정체성을 가지면서, 소련 붕괴 당시 분열되어 나간 여타의 공화국과는 달리 여전히 러시아로서, 동아시아에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19세기를 경계로 러시아의 아무르 유역 진출 양상이 판이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이전, 아무르 유역에서 러시아인들이 사용한 선박은 범선이었다. 그러나 1850년대 러시아의 행정가들이 태평양의 거점으로 보급을 위해 아무르 강을 이용할 때 이용한 선박에는 증기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차이는 지역 탐사에서도 나타났다. 18세기에 러시아인들이 아무르 유역에 주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이 풍부한 모피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교통로로의 아무르 강의 가치에 주목한 러시아인들이 찾아다닌 자원은 모피가 아닌 증기선 이용에 필수적인 자원인 석탄이었다. 그밖에도 지역에서의 거점 건설, 행정구 설치에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불평등한 조약의 강요와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해양 진출 시도 등 19세기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은 이전 세기와는 전혀 다른 근대적 요소가 꾸준히 나타난다. 나아가 이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 진입하

는 서구열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아시아세계의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을 설명하던 부동항 확보와의 비교이다. 많은 서구권 역사가들은 해양이용에 제약이 있는 러시아가 그러한 지정학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평양에서 부동항 확보를 목표로 했다고 평가했다. 이 주장은 서론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대륙국가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곧바로 부동항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해양국가로 전환될 수는 없었다. 아무르 수로는 그 관점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약점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러시아 나름의 방법이였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러시아제국이 차지한 동아시아 영토는 이후 발전을 거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동아시아에서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팽창주의적 노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었다. 이 맥락에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을 바라볼 때, 아무르 수로 이용과 아무르 유역 점유는 기존의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을 설명하는 시각과는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제국이 필요에 의해 아무르 유역을 탐사하고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은 러시아 나름의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때 주목할 것은 동아시아 팽창과 아무르 수로이용을 위해 필요했던 전략의 상당수가 모스크바가 아닌 동아시아에서 정립 및 실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러시아를 연구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 러시아가 바라보는 시각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의 시선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유럽인 극동 러시아를 바라보는데 있어 모스크바의 크렘린만을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요소이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사료집

- 국사편찬위원회,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I (1854~1894) 문서번역본』, 2007
-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곤차로프, 『전함 팔라다』, 문준일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2014
- 이반 곤차로프, 『전함 팔라다 II』, 정막래 옮김, 살림 출판사, 2016
- 장-프랑수아 갈로 드 라페루즈, 『라페루즈의 세계 일주 항해기』, 국립해양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연구소 옮김, 예맥, 2016
- General Sir Edward Hamley, *The War In the Crimea*, Seely and Co, 1891
- A. A. Половцова, *T.1 :Русский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ловник Аарон – Александр II*, Русским историческим обществом, 1896
- A. K. Стариций, *Материалы для описания русских рек и истории улучшения их судоходных условий. Выпуск 50. Река Селенга в Забайкальской области*, Тип. М-ва путей сообщ. (Т-ва И.Н. Кушнерев и Ко), 1913
- В. К. Зиланов의 4인, “Из Ноты, направленной 6/18 ноября 1853 г. 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ом Путятиным в Японский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Русские Курил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и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й границы*, Алгоритм, 2014
- Е. А. Адамова и И. В. Козьменко,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России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1856-1917)*,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52
- Доклад Комитета. — Ч. 1. — С. 127. Н.Н. Болховитинов(ред),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1732-1867, Т. 3. Русская Америка: от зенита к закату, 1825-1867*,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9
- 재인용

И. А. Гончаров(ред:РАН. Ин-т рус. лит. (Пушкин. Дом), *Гончаров И. 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Т. 3.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атериалы путешествия*, Наука, 2000

И. А. Носков, Кяхта:О кяхтинской торговле чаем, 1861

Невельской , Геннадий Иванович, *Подвиги Русскихъ морскихъ офицеровъна Край немъ Востокъ Россіи 1849–55 г При-амурскій и при-уссурійскій край* , Русская Скоропечатня (П. С. Нахимова) Большая садовая No 27, 1878.

Невельской , Геннадий Иванович(Редакция Л. Г. Каманина), *Подвиги русских морских офицеров на край 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1849–1855 г.)*,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49

Никола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Бошняк, “Экспедиция в Приамурский край ”, *орской сборник*, Морскимъ Ученымъ Комитетомъюб 1858

Никола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Бошняк, “Занятие части о-ва Сахалина и зимовка в Императорской гавани”,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Морскимъ Ученымъ Комитетомъюб 1859

П. П. Семенов, *История полувек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Русск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1845–1895/ Ч. 1. ОТД. 1–3*, Тип. В. Безобразова и К°, 1896.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струкция МинИндЕл Путятину от 24 февраля 1853 г”, 1853, АВПРИ, ГА, 1–9, оп.8, д. No. 17, ч. 1,ЛЛ. 214–216 об. 218–218 об

Россия. Законы и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сійской имперіи. Собрание 2-е, 1851,

Статистическіе таблицы о состояніи городов Россійской имперіи, Великого княжества Финляндскаго и Царства Польскаго, Сове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 1842

2. 연구서

(1) 국문

-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6
- , 『러시아의 만주 한반도 정책사, 17~19세기』, 푸른역사, 2018
- 따지야나 미하일로브나 찌모쉬나 지음, 『러시아 경제사』, 이재영 옮김, 한길사, 2008
- 마틴 부스, 『아편 : 그 황홀한 죽음의 기록』, 오희섭 옮김, 수막새, 2004
-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러시아와 한국』, 민경현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2010
- 백준기, 『유라시아 제국의 탄생 - 유라시아 외교의 기원』, 홍문관, 2014
-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 성종환 옮김, 동북아 역사재단, 2010
- 안정애, 『중국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2012
- 왕지아핑 외 7인, 『대국굴기』, 양성희·김인지 옮김, 크레듀, 2007
- 윌리엄 T. 로,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기세찬 옮김, 너머북스, 2014
- 제임스 포사이스,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정재겸 옮김, 솔출판사, 2009
- 제임스 조지, 『군함의 역사』, 허홍범 옮김, 韓國海洋戰略研究所, 2004
- 조너선 D. 스펠스, 『현대중국을 찾아서1』 김희교 옮김, 이산, 2012
-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침략』, 지식산업사, 2009
- 페일 어니스트 지음, 『서양 해운사』, 김성준 옮김, 해안, 2004
- 피터 홉커크, 『그레이트 게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숨겨진 전쟁』, 정영목 옮김, 사계절, 2008
- A. 말로제모프,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석화정 옮김, 지식산업사, 2002
- S. M. 두다료니크 외 23인,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사』, 양승조 옮김, 진인진, 2018
- C. Φ. 플리토노프, 『러시아사 강의 ②』, 김남섭 옮김, 나남, 2009

(2) 영문

- Andrew D. Lambert, *The Crimean War: British Grand Strategy Against Russia, 1853-56*, Routledge; 2nd edition, 2011
- A. L. Macfie, *Eastern Question, 1774-1923*, Longman, 1996

- C. M. Foust, *Muscovite and Mandari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2
- George Alexander Lensen, *The Russian push toward Japan, Russo-Japanese Relations, 1697-187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 David Foster Long, *Sailor-Diplomat: A Biography Of Commodore James Biddle, 1783-1848*, Northeastern, 1983
- David R. Stone, *A Military History of Russia: From Ivan the Terrible to the War in Chechnya*, Praeger, 2006
- Derek Hayes, *Historic Atlas on the North Pacific Ocean*, Sasquatch Books, 2001
- Great Britain Naval Intelligence Division, *A Handbook of Siberia and Arctic Russia : Volume 1: General*, Nabu Press, 2010
- J. D. Spence, *The Search for Modern China*, W. W. Norton & Company, 1990
- John. J. Stephan, *The Russian Far East - A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 Malozemoff Andrew,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 Univ. of California, 1958
- Mark Bassin, *Imperial Visions Nationalist Imagination and Geographical Expansion in the Russian Far East, 1840-18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Martha Avery, *The Tea Road: China and Russia Meet Across the Steppe*, China Intercontinental Press, 2004
- Ryan Tucker Jones, *Empire of Extinction: Russians and the North Pacific's Strange Beasts of the Sea, 1741-1867*,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S. C. M. Paine, *Imperial Rivals China, Russia, and Their Disputed Frontier*, Routledge, 1996
- Vladimir Zenone Volpicelli, *Russia on The Pacific And The Siberian Railway(1899)*, Kessinger Publishing, 2010

(3) 논문

- 민경현, 「19세기 중엽 러시아의 극동 진출 배경에 관한 연구」, 『史叢』 Vol. 49, 1999.에서 A. Сгивнев, *Амурский экспедиция*, Москва. 1978, 재인용
- A. A. Аракчеев, *Т. 2 : Алжирские экспедици,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ип. Т-ва И.Д. Сытина, 1911
- A. И. Алексеев, *Освоение русскими людь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до конца XIX века*, Наука, 1982
- _____, *Любовь, Амур, счастье*, КамчатГТУ, 2003
- Б. Г. Курц,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монополия в торговле России с Китаем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VIII ст*, Институт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СССР), 1929
- Б. В. Грызлова, *Губерни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стория и руководители 1708-1917*, Объединенная редакция МВД России, 2003
- В. М. Пасецкий, *Иван Фёдорович Крузенштерн*, Наука, 1974
- В. Н. Разгон, *Сибирское купечество в XVIII –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IX в. : Региональный аспек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традиционного типа*, Барнаул, 1999
- В. С. Геманов,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го флота*, Янтарный сказ, 2009
- Н.Н. Болховитинов(ред.),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1732-1867, Т. 3. Русская Америка: от зенита к закату, 1825-1867*,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9
- В. Ф. Веревкин, “Муравьев Н. Н. , граф амурский”, *Научные труды Дальрыбвтуза* No.22, 2010
- Магидович Иосиф,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ткрытий Т. 4.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нового времени XIX –начало XX в*, Просвещение, 1987
- О. В. Орлик, А. Н. Сытин, Г. А. Кузнецова и др, *Истори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19век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9

Юрий Осипов, *Крестьяне-старожил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1855-1917 гг.*, Издательство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экономики и сервиса, 2006

3. 연구논문

(1) 국문

- 강명구, 「러시아 아무르주 농업 현황」, 『세계농업』 155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 강진아, 「동아시아의 개항: 난징조약에서 강화도조약까지」, 『현대사광장』 7권, 2016
- 계승범, 「17세기 중반 나선정벌의 추이와 그 동아시아적 의미」, 『사학연구』 No. 110, 2013
- , 「러시아 자료로 본 1650년대 흑룡강원정(나선정벌)」, 『열상고전연구』 제65집, 2018
- 기계형, 「러시아제국의 정체성 구축하기-시베리아의 도시, 건축, 경관」,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No. 49, 2015
- 김정록, 「17세기 중반 동북아 국제정세와 조선의 나선정벌」, 『열상고전연구』 제67집, 2018
- 김낙현, 홍옥숙, 「프로튼 함장의 북태평양 탐사항해(1795-1798)와 그 의의」, 『해양도시문화교섭학』 제18호, 2018.
- 김남균, 「19세기 미국의 포경업, 태평양, 그리고 아시아」, 『미국학논집』 45권 1호, 2013
- 김문기, 「청어, 대구, 명태: 소빙기와 한류성어류의 박물학」, 『대구사학』 115권, 2014
- 김주삼, 「아편전쟁과 동아시아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중·일의 대응방식 분석」, 『아시아연구』 제 11권 13호, 2009
- 김현수, “주중영국공사 파크스의 외교활동, 1856~1861 -애로우호 사건부터 제2차 영중전쟁까지-”, *동양학* 46권, 2009
- 김혜민, 「19세기 전반 서양 異樣船의 출몰과 조선 조정의 대응」, 『진단학보』 제131호, 2018

- 남의현, 「15세기 명(明)의 여진지역(女眞地域) 진출시도(進出試圖)와 여진(女眞)의 성장(成長) -노아간도사(奴兒干都司)와 건주여진(建州女眞)을 중심으로」, 『江原史學』 No. 26, 2006
- _____, 「명(明)의 만주지역 영토인식에 관한 연구」, 『간도학보』 Vol. 2 No. 1, 2019
- _____, 「명대 遼東 接境地帶의 형성과 변화 : 遼東八站과 女眞衛所(靉廋衛)의 성격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No. 51, 2020
- 민경현, 「19세기 중엽 러시아의 극동 진출 배경에 관한 연구」, 『史叢』 Vol. 49, 1999
- _____,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대조선 정책」,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제 23호』, 2006
- 박원용, 「러시아 역사에서 해양 공간 다시보기」, 『대구사학』 137권, 2019
- _____,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맥락」,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No. 6, 2007
- 박종효, 「러시아 쿠릴열도에 관한 러·일 분쟁사 연구 - 러·일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중심으로-」, 『군사』 제80호, 2011
- _____, 「한·러관계사에서 본 러시아와 독도(獨島)」, 『군사』 제96집, 2015
- 박지배, 「18~19세기 전반 근대세계체제 내에서 영국의 대중국 차 무역이 갖는 의미」, 『역사학보』 No. 224, 2014
- _____, 「16-18세기 초 러시아 대서구 무역의 특징:아르한겔스크 무역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Vol. 120, 2015
- _____, 「19세기 1/4분기 해외무역으로 본 러시아의 경제 상황」, 『슬라브 연구』 제 31권 1호, 2015
- _____,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과 ‘나선정벌’의 의미」, 『역사 연구』 제240집, 2018
- _____, 「러시아 대중국 국경의 형성과 접경성:네르친스크-카흐타 국경 체제」, 『역사문화연구』 제71집, 2019
- 方用弼, 「阿片戰爭以後의 清英關係(1842~51) : 通商과 關稅問題를 中心으로」, 『人文論叢』 Vol. 16, 1988
- 손연숙, 「영국의 식민지정책이 세계의 차문화사에 미친 영향」, 『차문학·산업학』 Vol. 4 No. 1, 2008

- 심현용, 「러시아 동진의 군사적 성격과 통치구조(16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중소연구』 27권 2호, 2003
- 양승조,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지역 식민정책-유즈노우수리 지역 식민이주 정책을 중심으로」, 『史叢』 No. 87, 2016
- 오수열, 「태평천국의 성립배경과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Vol. 13 No. 2, 2008
- 이영은, 「근대전환기 러시아인의 조선인식」,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 이영형, 「라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격과 한국의 선택」, 『한국 시베리아연구』 22권 2호, 2018
- 이영호, 「거문도가 경험한 제국주의와 근대」, 『도서문화』 제48집, 2016
- 이완중, 「러시아의 극동진출과 중-러 국경획정과정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제4호, 2005
- 이왕무, 「조선시대 녹둔도(鹿屯島)의 역사와 영역 변화」, 『한국학』 34권, 2011
- 이준호, 「1623~1800년 서울지역의 기상기후 환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6
- 이훈, 「17세기 중엽 청-러시아의 충돌과 흑룡강 유역의 부족민」, 『열상고전연구』 제65집, 2018
- 정남모,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형성에서 아시아 프랑스어권국가들의 독립과 자구책 모색까지-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39집, 2007
- 정세진, 「러시아 제국의 시베리아 확장: 제국의 정복 및 시베리아 이미지」, 『노어노문학』 Vol. 26 No. 2, 2014
- 제성훈, 「19세기 말 만주 한반도에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지정학적 목표와 시사점」, 『슬라브학보』 Vol. 33, No. 1, 2018
- 조병학, 「후금(淸)의 흑룡강 주변 部族에 대한 平定과정 및 복속 정책」, 『몽골학』 No. 17, 2004
-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정책(南下政策)과 한국 : 특히 부동항획득(不凍港獲得)을 중심으로」, 『西洋史論』 Vol. 54 No. 1, 1997
- 최원오, 「나선정벌기(羅禪征伐期) 흑룡강(黑龍江) 유역한 소수민족의 삶과

대응 -다호르故事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Vol. 65, 2018

최형원, 「아이군조약(璦琿條約)의 만주문(滿洲文)과 몽고문(蒙古文)」, 『몽골학』 25권, 2008

홍용호, 「1858~1898년 의 동아시아 팽창과 만주」, 『동북아역사논총』 제14호, 2006

_____, 「러시아의 연해주 진출과 개발의 역사」, 『시베리아 극동연구』 제4호, 2008

_____, 「청일전쟁 이전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대동문화연구』 제61호, 2008

_____, 「19세기말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백두산 탐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Vol. 13 No. 3, 2009

(2) 영문

Andrew Rath, 『The Crimean War in Imperial Context, 1854-1856』, Palgrave Macmillan US, 2015

B. L. Walker, “Mamiya Rinzō and the Japanese exploration of Sakhalin Island: cartography and empir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33, Iss 2, 2006

Chinyun Lee, “From Kiachta to Vladivostok: Russian Merchants and the Tea Trade”, *Region* Vol. 3 No. 2, 2014

Erki Tammiksaar, and Ian Stone, “Alexander von Middendorff and his expedition to Siberia (1842 - 1845)”, *Polar Record* Vol. 43 No. 3, 2007

George Alexander Lensen, *Russia's Japan Expedition of 1582 to 1855*, University of Florida Press, 1955

John J. Stephan, “The Crimean War in the Far East”, *Modern Asian Studies* Vol. 3 No 3., 1969

Laurence Guymer, Meeting hauteur with Tact, imperturbability, and Resolution: British Diplomacy and Russia, 1856-1865, *Diplomacy & Statecraft* Vol. 29 No. 3, 2018

Leonard O. Packard, “Russian expansion and The long struggle for open ports”, *The Journal of geography* Vol. 7, No. 2, 1913

Michal Wanner, "Russian-Chinese Trade in Kyakhta – Trade Development and Volume Indicators 1727 - 1861", *Prague Papers o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s 1, 2016

T. C. Lin, "The Amur Frontier Ques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860",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3, No. 1, 1934.

Tessa MorrisSuzuki, "The telescope and The tinderbox-Rediscovering La PÉrouse in the North Pacific", *East Asian History* No. 39, 2014

Sablin, Ivan, and Daniel Sukhan. "Regionalisms and Imperialisms in the Making of the Russian Far East, 1903 - 1926." *Slavic Review* 77, No. 2, 2018

Victor Vladimirovich Zatsepine, "Beyond the Black Dragon River: Encounters and Decline of the Qing and Russian Empires: 1860-1917", Thesis (Ph. D.),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Canada), 2006

(3) 논문

A. A. Буркалёва, "Особен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я первых амурских сплавов", *Вестник Приаму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Шолом-Алей хема* No. 2(11), 2012

A. В. Гринёв, Торгово-промысло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ссий сого-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иив 1825-1840 гг.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1732-1867, 1732-1867,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99

Архипова Алена Ивановна, "Я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ях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а Н.Н. Муравьева", *Общество: философия,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No. 9, 2019

A. Ш. Кадырбаев, "Россия на рубеж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кануне посольства Е. В. Путятин в Китай (1844-1857 гг.)", *Восточный архив* No. 20, 2009

A. Ш. Кадырбаев, "Итоги миссии россий 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Е. В. Путятин в Китай . 1857-1858 годы", *Восточный архив* No. 2(38), 2018

- Б. П. Полевой, “К истории открытия Татарского пролива”,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Востока VI*, 1968
- _____, “Подробный отчет Г. И. Невельского о его истор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1849 г. к о-ву Сахалин и устью Амура”,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Востока. Выпуск XIII.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бассейна Тихого океана. Книга 2*. Наука, 1972
- _____, “Открытие и заселение русскими залива Хаджи в 1853 г. (Из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ой Гавани”,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Востока. Выпуск XX.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бассейна Тихого океана. Книга 4*, 1979
- В. П. Зиновьев, “К истории русско-кита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Забайкаль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1849 – 1852 гг”, *Вестник Том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No. 366, 2013
- В. Р. Чепелев, “Шхуна «Хэда» – «Бабушка» японского флота (к 160-летию создания)”, *Вестник академии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туризма и краеведения* 3, 2014
- Г. И. Щедрин, *Петропавловский бой*, изд-во Мин-ва обороны СССР, 1975
- Джеймс Р., “Проблема снабж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Америки 1732–1867*, 1999
- Е. В. Мезенцев, “Из предыстории организации первой кругосветной экспедиции русского флота в конце”, *Советские архивы* No. 1. – С, 1987
- И. А. Гончаро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а графа Е. В. Путятина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судов наших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1852–1855”,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В 20 т. Том 3.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атериалы путешествия Иван Гончаров, 2002
- И. Л. Экарева, “Из Истории колонизации России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естник Челяб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Vol. 139, 2009

Коваль Мария Вячеславовна, "Пограничная русско-китайская торговля в XIX в",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Сери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no. 3, 2013

Л. М. Дамешек, И. Л. Дамешек, "Сибирская управленческая комбинация Н. Н. Муравьева-Амурского и образование Забайкальской и Якутской областей", *История* No. 29, 2019

М. Х. Яргаев, "Становление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конец XVIII - начало XX вв.)", *Вестник ТОГУ* No. 29, 2013

Н. Ф. Лещенко, "Посол с погонами адмирала. Необычная судьба Е. В. Путятина (1804-1883)", *Восточный архив* No. 2 (32), 2015

П. Ф. Бровко, С. А. Пономарев, "Г.И. Невельской: Амурская экспедиция и решение пограничного вопроса на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No. 6 (172), 2013

Шерил Коррадо, "«Сахалин - остров!»: измене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карте Приамурья (1848-1854)", *Россия и АТР* No. 4(86), 2014

Ю.В. Аргудяева, "Роль Н. Н. Муравьева-амурского в переселении крестьян и казаков в низовья Р. Амур", *Вестник Дво Ран* No. 5 (13), 2009

Я. А. Барьенк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работа на юг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IX - начала XX веков как предпосылка управления аграрной колонизацией: практика 1850 - 1860 гг", *Ой кумена. Регионовед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4(32), 2016

_____, "Разрешение Амурского вопроса: сначала присоединить, затем легитимировать", *Россия и АТР* Vol. 104, No. 2 2019

4. 웹 페이지

Павлик Валерий, "Амур - слово даурское", Долгий путь на Амур. Ерофей Хабаров и его «войско», Словесница Искусств,

<http://www.slovoart.ru/node/332> (2021년 1월 19일 검색)

